경기그레이트북스47

www.ggcf.kr

개항기 미국 파견 '외교관'의 활동

-경기도 관련인물을 중심으로

한종수

경기문화재단

개항기 미국 파견 '외교관'의 활동
-경기도 관련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그레이트북스 47

www.ggcf.kr

경기그레이트북스 47

개항기 미국 파견 '외교관'의 활동

-경기도 관련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학센터가 기획하였고 관련 전문가가 집필하였습니다.

| 발간사 |

2024년 9월 9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건축물이 미국 연방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한민국정부(국가유산청)가 최초로 국외에 있는 건물을 2012년 10월 매입하여 보수 및 복원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5월 22일에 공식 개관한 한미외교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다.

이번 등재는 미국 정부도 주미공사관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했다는 점과 미국 내 한국 관련 건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에 등재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3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산하 기관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2013년부터 2018년 5월 주미공사관의 개관까지 복원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고 숨어 있던 한미외교 관련 자료 속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출신 또는 묘지 소재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개항기 미국 파견 '외교관'의 활동 -경기도 관련인물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공문서, 신문 및 잡지 등 사료를 근거로 경기도 관련 외교관의 활동을 추적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파견 시기를 중심으로 크게 두 파트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한미외교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사조약 체결 이후 보빙사 파견을 통한 미국 현지 외교관들의 활동과 의미를 소개한다. 조미조약 제2조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영사관 설치' 조항에 따라 미국은 1883년 정동에 미국공사관을 개설·운영했으나, 조선은 청국의 압력과 재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상주 공사관을 개설할 수 없어 조선에 공사관을 개설한 답례의 뜻으로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고종의 상주 공사관 개설의 의지로 청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주미조선공사관을 개설·운영을 위해 초대 공사 및 외교관을 파견한다. 1888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최초 주미공사관 피서옥(皮瑞屋)을 개설한 이후, 1889년 2월에 아이오아 서클로 공관을 옮겨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중지될 때까지 약 17년 동안 주미조선(대한제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자주외교'와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했던 외교관들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기존에 단국대 김원모 명예 교수님, 대림대 이민식 명예교수님, 동국대 고(故) 한철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미관계사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고 필자가 주미공사관 복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국 의회도서관, 국가기록관, 신문, 잡지 등 미국 현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료와 내용을 추가하여 1882년부터 1905년까지 약 23년의 한미외교사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과 그림들을 포함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에게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아있다. 1888년부터 1905년까지 약 17년 동안 주미공사관에 파견된 외교관들 전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수가 있으나, 현지 유학생 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잠시 견습 신분으로 근무했던 기록 등은 향후 추가 자료 발굴을 통해 여전히 비어있는 퍼즐을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설령 미국 현지 사료에서 이름은 등장하지만 국내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주미공사관 복원작업을 하면서 발굴 수집한 인물을 정리하여 출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경기문화재단 및 김명우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책의 구성이나 오탈자 등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24년 9월 어느날

한 종 수

| 차례 |

10 발간사

Ⅰ. 서론

Ⅱ.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 실질적인 '자주외교'의 시작 _ 20
2. 조미수교 장소에 게양된 최초의 태극기 _ 21
3. 조미조약 체결장소가 자유공원 입구로 최종 비정되다 _ 22

Ⅲ. 미국 사절단(보빙사) 파견과 활동

1.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 _ 34
2. 보빙사 전권부대신 홍영식 _ 48
3. 보빙사 종사관 서광범 _ 58
4. 보빙사 수원 유길준 _ 66
5. 보빙사 수원 변수 _ 74
6. 보빙사 수원 고영철 _ 81
7. 보빙사 수원 현흥택 _ 86
8. 보빙사 수원 최경석 _ 91
9. 보빙사 수원 우리탕 _ 97
10. 외교 서기관 로웰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 _ 103

Ⅳ. 주미 조선(대한제국) 공사관 파견과 활동

1.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_ 118
2. 초대 주미공사관 참찬관 이완용 _ 134
3.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하영 _ 141
4.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_ 150
5. 4대 주미서리공사 이채연과 부인의 미국 활동 _ 186
6. 주미공사 수행비서 강진희 _ 195
7.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참서관 박승봉 _ 200
8.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서기관 이의담 _ 204
9. 주미공사 조민희 _ 218
10. 주미공사 서광범 _ 231
11. 서리공사 김윤정 _ 243

Ⅴ. 결론

Ⅰ. 서론

Ⅰ. 서론

올해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이 체결된 지 142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은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조미조약을 체결하며 서양 국가와 최초로 공식 외교관계를 맺는다. 조미조약 제2조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영사관 설치' 조항에 따라 미국은 초대 특명전권공사로 루시어스 푸트Lucius H. Foote를 파견한다. 1883년부터 1905년 11월 에드윈 모건Edwin V. Morgan 공사를 마지막으로 국교를 단절하기까지 약 22년 동안 변리공사와 임시대리공사를 포함해 총 11명이 공사로 부임하며 조선 말과 대한제국의 외교사적 소용돌이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조선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청국의 압력과 재정적인 문제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상주공관을 개설할 수 없었다. 조선은 푸트 공사의 권고와 조선에 상주공관을 개설해 준 감사의 의미로 미국에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한다.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 부대신 홍영식洪英植, 종사관 서광범徐光範, 수원 유길준俞吉濬, 변수邊燧, 고영철高永喆, 현흥택玄興澤, 최경석崔景錫 그리고 미국인 로웰P. Lowell, 로웰의 개인비서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 청국인 우리탕吳禮堂 등 외국인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였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 각지를 돌며 주요 공업시설과 농업시설, 언론사,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정부 부처 등을 시찰하며 견문을 넓혔다.

조선은 1888년 1월에서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주미조선(1897년 10월 이후 대한제국) 공사관을 개설한다. 초대 전권특명공사로 박정양朴定陽, 참찬관 이완용李完用, 서기관 이하영李夏榮·이상재李商在, 번역관 이채연李采淵, 외교 참찬관 알렌Horace N. Allen 등 11명이 외교관으로 파견되고, 이후 총 14명의 주미공사가 부임하였다. 이들은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정지당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분야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필자는 미국에 보빙사로 파견된 11명과 주미조선(대한제국)공사관에 파견되어 14명의 주미공사와 외교관 중 경기도와 관련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신문 및 잡지, 외교문서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활동한 내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 백

II.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 실질적인 '자주외교'의 시작

2. 조미수교 장소에 게양된 최초의 태극기

3. 조미조약 체결장소가 자유공원 입구로 최종 비정되다

Ⅱ.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 실질적인 '자주외교'의 시작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서구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은자隱者의 나라에서 벗어난다. 당시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은 조약 1조에 "조선은 중국청의 속국이다"는 명문화를 요구하였으나, 미국 특명전권대사인 해군 제독 슈펠트Robert W. Shufelt는 조선의 '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신 조약문에는 '속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별도조회문別途照會文에 포함하기로 하고 조약은 타결되었다. 하지만 끝내 '속국'의 조항은 삭제된 채 미국 의회와 대통령 아서Chester A. Arthur에 의해 비준되었다.

조미조약 14조 중 제1조 '거중조정居中調整, Good Offices'과 제2조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영사관 설치', 제5조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권'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독립국'임을 인정받고 서로 '대등한 외교'를 인정받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조에 명시된 '거중조정'은 조선이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 시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6년 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불평등 조약과는 성격이 다른 최초의 쌍무적인 협약이었다. 이 조약체결로 수백 년간 유지해왔던 조선과 중국 간의 '조공-책봉' 체제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1871년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고종은 왜 미국과 수교하고자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888년 초대 공사 박정양 일행으로 파견되어 2대 서리 공사를 역임했던 이하영1858~1929이 쓴 「한미국교와 해아사건」(19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왈 조선과 거리가 멀어서 조선침입이 그다지 심하지는 안을 것이요,
이왈 황금의 부국이니 물질적으로 덕을 볼 것이요,
삼왈 종교지상주의의 국가이니 도덕을 존중할 터이라 모욕과 야심이 적을 것이라는 달관적이였든 것이다.

이처럼 고종은 미국을 믿었으나 미국은 그의 믿음을 저버린다.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 가쓰라-태프트밀약(1905) 등을 거치면서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는 문제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용인한 것이다. 조선(대한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었다. 미국의 용인하에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2. 조미수교 장소에 게양된 최초의 태극기

1882년 조미수교 장소에는 조선의 국기國旗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당시 조선의 공식적인 국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882년 9월 일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일본으로 가는 메이지마루明治丸 상선에서 태극기를 최초로 제작했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 태극기는 1882년 7월 미국 해군부Secretary of the Navy가 발간한 '해양국가들의 깃발들Flags of Maritime Nations'에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중국청, 일본 등 49개국의 국기 도안과 함께 포함되었다.

2017년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82년 조미수교 때 미국 특명전권대사로 참가했던 슈펠트의 문서The Papers of Robert W. Shufeldt를 모아놓은 Box 24에서 태극기 도안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필자가 2019년 2월 5일 의회도서관 방문 결과 Box 37에서 도안을 확인하였다). 이 도안은 '해양국가들의 깃발들'에 실린 태극기와 동일한 도



이응준 태극기(1882.5.14.~22.)



해양국가들의 깃발(1882.7.19.)



박영효 태극기(1883.9.25.)

안으로 조미수교를 앞둔 5월 14일 조선 국기가 없는 사실을 안 슈펠트는 조선 부대신 김홍집에게 국기를 만들어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에 역관譯官 이응준은 14일과 22일 사이에 미국 함정 스와타라Swatara호에서 펜으로 깃대는 6cm, 깃발Ensign은 가로 7.2cm, 세로 4.4.cm 크기로 종이에 그렸고 청색·적색의 태극문양과 흑색의 건곤감리 4괘卦 등 박영효 태극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태극의 형태와 괘의 위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위에는 '코리아Corea', 아래에는 '깃발Ensign'이란 글씨가 적혀 있다. 1883년 3월 6일 고종은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공식 반포한다.

3. 조미조약 체결 장소가 자유공원 입구로 최종 비정되다

조미조약 체결 장소로 인천시 화도진공원 또는 중구 올림포스호텔 부지(전 해망대)라는 설로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 2곳에 관련 표지석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김성수 과장(인천본부세관 공항여행자통관검사)에 의해 '인천해관장(인천세관장) 사택 터'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한 세관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조약 체결 장소 논란은 일단락이 된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자유공원 입구 인근(중구 제물량로232번길 23)을 비정하여 표지석을 세운다.

의견이 분분했던 조미수교 체결 장소를 비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입구에 설치된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지' 표지석

1882년 5월 '조미조약' 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미국 특명전권대사 슈펠트는 고종의 초청을 받고 1886년에서 1887년 사이 몇 개월간 국빈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서울에 거주하던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Henry Appenzeller 목사를 만나 조약 체결을 위해 제물포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슈펠트가 타고 왔던 미 군함 '소아타'의 함장 쿠퍼도 조약 체결 현장에 입회했는데, 그 또한 아펜젤러 목사에게 조약 체결 장소가 세관장稅關長 관사라고 확인해 주었다.

원래 세관장 관사는 미국 영사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미국 측에 건네준 땅이었는데, 미 국무부가 이 땅을 포기하고 1889년 조선 정부의 총세무사로 있던 헨리 메릴Henry F. Merill이 정부를 대신하여 매입하여 인천의 관세무사 관사로 줄곧 사용했다. 2013년에 세무사 공관稅務司公館이라고 표기된 해관 문서를 발굴함으로써 조미조약 체결 장소와 미국 공사관 부지, 세관장 관사가 동일한 장소임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었다.

위에 소개한 조미조약 체결 과정과 조문 내용, 최초로 게양된 태극기 도안, 체결 장소 비정 과정 등은 수많은 한미 외교사의 사건과 인물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142년 동안 수많은 부침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교훈을 준다. 1882년 5월 당시 초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 여겨진다.

여 백

III. 미국 사절단(보빙사) 파견과 활동

1.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

2. 보빙사 전권부대신 홍영식

3. 보빙사 종사관 서광범

4. 보빙사 수원 유길준

5. 보빙사 수원 변수

6. 보빙사 수원 고영철

7. 보빙사 수원 현흥택

8. 보빙사 수원 최경석

9. 보빙사 수원 우리탕

10. 외교 서기관 로웰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

Ⅲ. 미국 사절단(보빙사) 파견과 활동

1883년 3월 초대 주조선 미국 특명전권공사 푸트L. H. Foote가 서울에 부임, 민영목閔泳穆 통상사무와 비준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역사적인 한미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된 것이다. 푸트 공사는 즉시 서울 정동에 미국 공사관(현 주한미국대사관저)을 개설했다. 조미조약 제2조에 "한미 양국은 상대국 수도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하고 상주공사를 파견한다"라고 상호 외교관 교환을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즉각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하면서 서울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했지만, 조선은 이 같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조선공사관을 개설, 상주공사를 파견해야 함에도 조선은 청국의 간섭과 재정적 궁핍으로 상주공사를 파견할 수 없었다. 이에 푸트 공사는 그 대안으로 보빙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선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보빙사 전권대신에 민영익閔泳翊, 전권부대신에 홍영식洪英植, 종사관에 서광범徐光範, 수행원에 유길준俞吉濬·변수邊燧·고영철高永喆·현흥택玄興澤·최경석崔景錫 그리고 외교 서기관 미국인 로웰P. Lowell, 魯越, 청국인 우리탕吳禮堂,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 등이다. 이와 같이 보빙사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푸트 공사는 조미조약 체결 직후 조선 최초로 해외로 파견되는 보빙사이기에 보빙사는 외교에 미숙하므로 이들을 안전하게 안내할 외교 서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주일 미국공사 빙햄J. A. Bingham에게 외교 참찬관 추천을 의뢰하여 빙햄은 로웰을 천거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로웰 외교 참찬관이 보빙사를 인솔하고 워싱턴 사행을 하게 된 것이다.

보빙사는 1883년 7월 16일 미국 해군함정 모노카시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항, 일본에 기착, 로웰과 합류하여 아라빅호를 타고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미국 육군 소장 쇼필드가 영접했다. 9월 4일 샌프란시스코 상

공회의소와 샌프란시스코시로부터 환영 리셉션을 받았다. 여기서 대륙횡단철도로 9월 12일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에서는 남북전쟁의 명장 세리든P. H. Sheridan 장군이 영접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미국 군사고문관 조선 파견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세리던은 자신의 참모인 그레고리 대령으로 하여금 조선 보빙사를 워싱턴까지 안전하게 경호할 것을 지시했다.

9월 15일 워싱턴 D.C.에 도착, 알링턴 호텔Arlington Hotel에 유숙했다. 그 당시 아서C.A. Arthur 미국 대통령은 뉴욕에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국무부는 마손 해군대위와 포크 해군소위가 보빙사를 접대했고 데이비스Davis 국무부 차관이 보빙사를 뉴욕으로 안내하도록 조처했다. 드디어 9월 18일 뉴욕 피브스 애비뉴 호텔fifth ave. Hotel 대접견실에서 국서 제정식이 거행되었다. 데이비스 국무차관의 안내로 조선 보빙사는 사모관대로 정장하고 호텔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문밖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큰절을 하였다. 국가원수에 대한 최고의 예의범절을 행한 것이다. 아서 대통령은 이례적인 예절에 몹시 당황하면서 허리를 굽혀 답례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간단한 인사를 했다. 드디어 아서 대통령, 프릴링하이젠F. T. Frelinghuysen 국무장관 등이 도열한 가운데 국서제정식이 엄숙하게 거행된 것이다.



보빙사가 아서 대통령을 예방하는 장면


보빙사와 아서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

대조선국 대군주는 아서 대통령에게 보낸 회한에서 조미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치하하고 있다.

> 북미 합중국의 특명 전권공사 푸트 편에 보내주신 각하의 서한은 심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체결한 조약은 지금 비준批准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조약의 자연적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주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각하의 공사 푸트는 우리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 바 그는 공평하고 정직한 인물로 그의 처사가 항상 우리 정부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합중국 정부가 그에게 맡긴 사명에 관하여는 장차 충분한 활동으로써 실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양국 간의 친밀한 교제는 날로 긴밀해질 것이며, 본인은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각하의 인자한 영도하에 북미 합중국 국민이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개국 492년 6월 11일(1883. 7. 14.)

한편 〈뉴욕 헤럴드New York Herald〉에 게재된 한글본 국서와 민영익·홍영식의 국서 제정사는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었다. 한글문서가, 그것도 한글 국서가 미국 신문에 보도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성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은 고유한 표음문자 한글이 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게 될 계기가 된 것이다.

〈대조선국 대군주 한글 국서〉

> 대조선국 대군주는 대미국 백리새천덕大美國 伯理璽天德, President께 글월을 올립니다. 이사이 두 나라의 조약을 바꾸고 화의和誼가 도타움에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흠차欽差, 파견하여 귀국에 보내서 폐백幣帛 갚는 예禮를 닦이노니 이 대신들이 공반公反, 공평되며 충성하며 주밀周密하며 자세하여 능히 나의 속마음을 몸 받아 고달告達, 알릴할 터이며 범사凡事, 가지가지의 모든 일의 변리辨理, 처리함이 적당하

리니 다행히 바라노니 정성을 미루어 서로 믿어서 더욱 화목케 하며 한 가지 태평을 누리게 하시옵나이다. 생각건대 또한 귀 백리새천덕도 기꺼워하실 바로소이다. 개국 492년 6월 12일(1883. 7. 15.)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신임장을 제정한 후 민영익 전권대신은 대조선 대군주를 대신하여 한글로 다음과 같은 국서 제정사國書 提呈辭를 했다.

〈민영익·홍영식 국서 제정사〉

사신 민영익閔泳翊·홍영식洪英植 등은 낯으로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대백리새천덕大伯理璽天德, 대통령께 아뢰옵나이다. 사신 등이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 흠명欽命, 명령을 받자와 와서 대신代身으로 대백리새천덕과 합중국 모든 인민이 한가지로 안녕함을 누리시기를 청하오며 또는 두 나라 인민이 서로 사귀고 좋아하는 우의友誼에 확실한 뜻을 고하여 피차 돈밀敦密함을 생각하와 실상實狀으로 서로 지킴을 정하여 길이 무궁한 복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받들어 온바 국서國書 두 봉封의 하나는 우리 대군주께옵서 대백리새천덕께 회답하심이오 하나는 사신의 전권빙거全權憑據, 신임장이오니 삼가 바침을 아뢰옵나이다. (*New York Herald*, September 19, 1883)

민영익 전권대신이 국서 제정사를 마치자 미국 아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사를 했다.

〈아서 대통령의 답사〉

대조선국 전권대신 민영익, 전권부대신 홍영식, 본인은 여러분을 대조선국 대군주와 정부의 대표로 영접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수많은 도서島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한반도와

그 산물産物, 그리고 조선 백성의 근면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귀국 국민의 인구는 우리나라 독립 당시 인구의 두 배나 됩니다. 우리 양국의 영역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대양大洋도 이제는 증기선 항해의 도입과 완비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역의 대공로大公路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귀국은 우리의 이웃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미국은 모든 다른 나라 중에서 특히 동양 여러 나라와 우의友誼 및 통상관계를 증진할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나라와 동양 여러 나라에게 다 같이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항상 증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역사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국력·부富·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민을 지배·통치하거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획득·점령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상호 우호관계와 성실한 호혜적互惠的인 교역을 통해 이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귀하와 사귀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농기구 및 농산 가공품 면에서, 기계 기술면에서 우리가 이룩해 놓은 발전상과 친숙해짐으로써 그것이 귀국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보상報償임을 아시고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그밖에 우리의 교육제도와 법률제도 가운데서도 귀국이 기꺼이 채택할 부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귀국이 우리 미국과 최초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귀 사절께서는 귀국 대군주께 본인의 경의敬意를 전해주시고, 아울러 귀국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본인과 미국 국민에게 영광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절께서 체미滯美 중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여러분을 이토록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귀 사절께서 우리 미국에 대하여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귀국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FRUS*, Corea, 1883, pp.249~250, President Arthur Address to the Representatives of Tah Chosun)

1883년 9월 19일자 〈뉴욕 헤럴드〉에 '한글 국서'와 '한글 국서 제정사'를 사진동판으로 게재하면서 이에 관한 기사가 전면을 장식했다. 1880년대에는 한글은 '언문'이라 해서 부녀자들이나 사용했고, 모든 공문서에는 철저하게 한문만 전용하고 있었다. 원래 국서도 한문으로 작성된 문서인데. 이를 한글로 번역했다. 이 같은 한글문서를 작성한 이는 종사관 서광범徐光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종사관은 서장관書狀官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비서Secretary이므로 문서를 작성하는 관직이다. 그래서 서광범은 이들 문서를 붓글씨로 정성껏 한글로 작성해서 신문사에 보도자료로 제공, 신문사는 이를 사진동판으로 제작해서 게재한 것이다. '뉴욕 헤럴드' 기사에는 외교 서기관 로웰이 지적했듯이 조선은 중국·일본과 다른 고유한 알파벳, 즉 표음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한글 국서'와 '한글 국서 제정사'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조선 정부의 대미對美 자주외교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 헤럴드 기자가 보도자료로 국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조선 보빙사는 한문본 원본을 제출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굳이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서 제출했다. 생각건대 종사관 서광범이 조선은 고유한 한글문자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이같이 한글로 제작해서 신문사에 제공한 것이다. 조미조약 체결 직후에 조선에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서울에는 청일 양군이 난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진주, 군사적 대치 양상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청나라는 원세개袁世凱를 조선 총리로 파견 대한對韓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었다. 이처럼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조선 정부는 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대미 자주외교를 강조하기 위해 국서를 한글로 번역,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대조선국의 정체성을 선양한 것이다.

둘째, 보빙사는 의식적·의도적으로 국서와 국서 제정사를 한글 문서로 제작해서 신문사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미조약 입약 교섭 시 청의 이홍장李鴻章은 '속방론'을,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는 '독립론'을 주장했다. 결국 슈

펠트의 독립론이 관철, 조선은 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독립국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독립론은 조미조약 체결 정신이다. 대조선국은 청일과 상이한 문화적 전통과 독자적인 문자를 가진 독립국임을 국제적으로 과시·선양하기 위해 이 같은 한글 문서를 제작했던 것이다.

셋째, 국서에는 중국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대조선국이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독자적인 개국연호開國年號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조선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보빙사는 태극기를 휴대하고 미국사행을 단행했다. 이홍장이 파견한 마건충은 조미조약 체결을 앞두고 속방론을 강조하기 위해 청나라의 국기는 황룡기黃龍旗인데,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므로 청룡기青龍旗를 만들어서 조인식에서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는 만약 조선이 청룡기를 사용하면 조선이 스스로 청나라의 속방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독자적인 국기를 제정·사용할 것을 강권했다. 이에 조선은 전권대신 슈펠트의 독립 정신을 존중, 미국 해군 함정 스와타라호 함상에서 태극기太極旗를 제정하여 조미조약 조인식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태극기를 국기제정 반포(1883. 3. 6.)한 후 처음으로 미국 사행에서의 공식 외교 행사에 사용했다는 것은 태극기 제정 정신(독립정신)을 유감없이 선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월 26일 보빙사 일행은 대통령 전용선 카탈프호를 탑승, 함상 마스트에는 태극기the Corean flag를 높이 게양하고 아이슬란드에 있는 뉴욕주 지사를 예방했다. 〈뉴욕 타임스〉(1883. 9. 27.)에는 태극기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처음으로 보도됐다. "아서호(대통령 전용선) 마스트 위에 펄럭이고 있는 그들의 깃발에는 나침반 같은 모양의 방위를 가리키는 부호, 즉 4괘가 네 귀퉁이에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히에로글리프(상형문자) 같이 생긴 도안, 즉 태극양의太極兩儀가 있는데 이는 조선의 행복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이다." 이렇게 태극기는 신비로운 철학적 의미가 있는 국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에 호응, 대조선의 국호를 '대조선Tah Chosun'이라 한글 발음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조선국의 자주독립국임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조미조약 영문본에는 '조센Chosen'이라고 일본어 발음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서 제정식을 끝낸 후 보빙사는 보스턴으로 이동, 롤트 방직공장, 월코트 시범농장 등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뉴욕으로 이동, 브루클린 해군공창, 웨스턴 유니언 전신국, 뉴욕 소방서, 뉴욕 우체국, 뉴욕병원, 크램프 조선소, 하버마이어 제당공장, 프레이자 상사와 티파니 상사 등 각종 무역상사, 이브닝 포스트와 뉴욕 헤럴드 신문사,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등을 두루 시찰했다. 이어 워싱턴으로 이동, 정부 각 부처를 방문했는데, 특히 국무부를 방문,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과 군사·정치·외교 고문관 파견문제와 교육의 근대화를 위해 교사 파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농무부를 방문하여 각종 농작물의 신품종 종자 및 농기구 도입을 교섭했다.

1.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



민영익

민영익閔泳翊, 1860~1914 전권대신의 보스턴 산업 시찰은 한미 과학 기술 교류의 시단始端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방문이 아닐 수 없다. 민영익이 보스턴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주인은 태극기를 가져오게 한 후 사절단의 예우로 태극기를 국기 게양대에 게양했다. 이는 조선 외교대표가 머문 호텔에 게양한 첫 번째 국기게양이었고, 대조선 외교관에 대한 최고 예우였다. 보빙사 일행은 외국 박람회와 아메리카 박람회를 순방, 전시품을 관람한 후 미국의 산업 발전에 감탄했다. 특히 광산 채굴 도구, 농기구 및 면직기 등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것은 지금 조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품이다. 민영익은 박람회에 조선 토산품 몇 가지를 출품했다. 이는 최초의 박물관 출품이기 때문에 한미 문화·과학 교류의 시단이 되고 있다. 〈보스턴 모닝 저널〉(*Boston Morning Journal,* September 20, 1883)에 이를 크게 보도했다. "조선 보빙사는 보스턴에 있는 동안 외국박람회를 참관했다. 이 박람회에는 조선이 정식으로 출품·전시한 상품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표본상품과 천연 자원품이 출품되었다. 보빙사는 오늘 낮에 두 박람회를 비공식 방문했다. 보빙사는 낮에 보스턴 시내의 명소 고적을 관광했다. 아메리카 박람회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원면과 목화 씨앗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이 전시품을 보고, 다량의 목화종자를 구입하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들 나라에 도입한 종자라고는 병에 숨겨 넣어 온 목화씨앗 4개뿐이었다. 저녁에는 외국박람회에 참석, 외국박람회 직원의 영접을 받았고, 그들의 안내로 전시장을 관람하면서 몇 가지 매력을 끄는 전시품을 보

고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여기서 "병에 목화 씨앗 4개를 숨겨 왔다"는 말은 바로 고려 공민왕 때(1363) 문익점文益漸이 서장관으로 원元나라에 가서 귀국 시 목화 씨앗木棉實을 붓 대롱 속에 숨겨옴으로써 한국에 목화도입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문익점은 일종의 산업 스파이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보빙사는 외국박람회에 두 번째 방문, 도자기·화병·주전자 등을 출품하기도 했다. 이것은 필시 고려 자기와 조선 자기였다. 비록 출품 수는 몇 점 되지 않지만, 보빙사가 최초로 외국박람회에 토산품을 출품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조선은 개방 외교정책에 의한 국제사회에로의 적극적인 산업진출과 개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실상 보빙사 일행은 이 미국 박람회를 관람하고 문화적 충격을 느꼈다. 좀처럼 감정을 표명하지 않던 보빙사가 구미 여러 나라의 실용적인 발명품과 제조 상품의 우수성을 보고 경탄을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본국의 낙후된 산업과 원시적인 제조실업과 비교해 본다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박람회 참관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자극을 받았는지, 귀국하면 서울에서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박람회 전시용 상품을 다량 도입하는 절차를 타진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불안, 즉 갑신정변1884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숭고한 개회 의지는 좌절되고 말았다.

9월 20일에는 월코트 농장Wolcott Farm을 방문했다. 농장에 있는 서양 낫을 비롯하여 각종 농기구와 그 제작 과정을 시찰했다. 온실에 들어가 각종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 등 처음으로 온실 산업을 체험했다. 그리고 각종 가축을 기르는 목축장을 시찰했다. 특히 가축 사료용으로 목초를 썰어서 저장해 두는 원탑형 사일로silo를 보았다. 그리고 각종 화초를 재배하는 화원도 관람했다. 그날 저녁에는 보스턴 극장에서 잘마Jalma라는 연극공연을 관람했다. 300명의 무희가 은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번쩍이는 창과 깃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다. 영어를 모르는 보빙사이지만, 이러한 쇼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9월 21일에는 보스턴 북쪽 40㎞ 지점에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 로웰Lowell시를 방문했다. 로웰은 미국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다. 1814년에 보스턴 교외 월섬Waltham에서 세계 최초로 방적기와 방직기에 자동기계를 사용하고, 월섬형이라 불리는 공장제 공장을 세움으로써 미국 산업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이 공장은 면화 원료로부터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미국 최초의 일관작업공장이었다. 1820년에 이곳 로웰에 공업 도시를 건설, 미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보빙사는 이 미국 산업혁명의 발상지 로웰을 방문, 주요 방직공장 4개를 시찰한 것이다. "보빙사는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보고 비상한 관심과 흥미를 표명하면서 크게 기뻐하였고, 공장 방문을 통해 보람 있는 시찰을 했다고 만족하고 있다."고 현지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정부에서 주지사의 영접을 받았고, 보스턴시를 방문하면서 보스턴 시내 공립학교를 시찰했다.

보스턴 산업도시를 시찰한 후 뉴욕으로 돌아와서 피브스 애비뉴 호텔에 투숙했다. 9월 24일 뉴욕시청을 방문, 로우 시장의 영접을 받았다. 로우 시장의 안내로 브루클린 해군 공창工廠을 방문하자 해군 제독들의 영접을 받았고 콜로라도 함상으로부터 15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보빙사는 공창 안으로 들어가서 각 부서를 시찰하였다. 저녁에는 니블로 가든Niblo's Garden에서 "익셀스터(Excelstor, 언제나 보다 높은 것을 목표로! 보다 높이)"라는 연극을 관람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연극을 관람한 후 조미 양국의 의상을 비교하면서 한복보다는 미국 의상이 질기고 간편하지만 한복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뉴욕 헤럴드'(1883.10.15.)는 보빙사의 한복 예찬론을 보도하고 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일본옷·중국옷과 함께 한복이 곧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복을 입고 무대공연을 하면 훌륭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한복은 작업에는 불편하지만 보기에는 다른 어느 나라의 의상보다도 훨씬 아름답기 때문이다."

9월 25일에는 프레이자 상사Frazar and Company를 비롯하여 각종 무역상사를 순방했다. 특히 프레이자Everett Frazar는 대조선교역에 관심이 많았고, 보빙

사를 환영연회에 초청하는 등 헌신적인 알선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1884년 1월 17일 그는 뉴욕주재 조선 명예총영사에 임명되었는데,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워싱턴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프레이자는 주미조선공사의 대리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뉴욕병원을 시찰하면서 병원설비의 화려함에 경탄을 연발했고, 특히 소아과 병실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악수하기도 했다. 병원 시찰 후 웨스턴 전신국을 방문, 여기서 워싱턴으로 통신문을 전송하면 즉시 회신이 오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여겼다. 특히 민영익은 우편물 따위를 전달해주는 기송관氣送管, Pneumatic tubes의 작동을 보고 크게 경탄했다. 그는 작은 종이쪽지에다 몇 개의 단어를 적어 보냈더니, 다른 튜브를 통해 반송되어 오는 과정을 보고 감탄을 연발했다.

보빙사는 콜럼버스 보루를 방문했다. 이때 제5보병대는 보빙사 환영회를 개최하면서 성벽에서 17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군악대가 환영연주가를 우렁차게 울렸다.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동그라미 포연砲煙이 장관을 연출했다. 이어 젝슨 장군의 지휘로 군악대를 선두로 군대 열병식이 거행되자 보빙사는 사열대에 올라 군악대를 선두로 보무당당한 군대의 행진을 사열하면서 매우 흡족·감복했다. 핸콕Hancock 사령관의 관저에서 환영오찬이 있었는데 군악대가 가극 음악을 연주해서 흥취를 돋우었다. 오찬 후 보빙사는 시가를 피우면서 여유 있는 행동거지로 전투 훈련을 관람했다. 이때 포병대장의 포격 조작 도움을 받아 민영익은 생애 처음으로 대포를 발사해 보였다. 보빙사 일행은 동양 외교관 특유의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 양반의 기품 있는 행동거지는 미국인이 보기에는 아주 장중하고 경건해 보였다. 어린아이들은 보빙사 일행의 특이한 옷차림을 구경하느라 서로 밀치며 열광하기도 했다. 보빙사 일행은 조금도 놀라는 법이 없이 점잖은 팔자걸음으로 의젓하게 다녔다. 그러나 종사관 서광범은 명랑하게 생긴 키 작은 사람으로서 모든 미국인에게 호감을 샀다. 그는 시종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영어를 습득, 간단한 인사

말 '굿모닝' 정도로 담소했다. 조미 간에는 이중 통역으로 그들의 의사를 소통했다. 미국인 통역이 일본말로 종사관에게 이야기 내용을 전하면 종사관은 이를 부대신 홍영식에게 전하고, 홍영식은 한국말로 민영익 전권대신에게 전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은 한국말로 직접 소통할 수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 의사전달을 하는 이중 통역이었다.

군사훈련을 관람한 후 대통령 전용선 아서호를 타고 뉴욕 센트럴 허드슨 리버 철도회사 소속 곡물창고를 시찰했다. "그들은 안내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따라나섰다. 어제 밤에는 나는 몹시 피로했었는데 보빙사는 피로의 기색도 없이 여전히 활력이 넘쳐 있었다"고 영접관 메이슨T. B. Mason 해군대위는 전했다. 저녁에는 에드슨Edson 시장의 안내로 연극공연을 관람했다. 보빙사는 미국인의 의상 생활의 편리하고도 유용한 면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그러나 한복이 양복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표명했다. 종사관 서광범은 미국 여자의 옷차림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인 가운데 조선인과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우리와 키가 비슷하고 눈빛과 머리카락 색깔이 비슷한 남자를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외모로 보아 체격이 조선인보다도 더 건장해 보였다. 우리는 수염을 기르고 있지만, 미국 남자만큼 턱수염이 많지 않다. 콧수염은 미국인처럼 치켜 올리지 않고 항상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일본 여자와 중국 여자만 보아왔다. 그러나 미국 여자는 어느 나라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자이다. 대부분 미국 여자는 검은색 옷이나 또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하면 흰색 옷을 입고 다닌다. 어떤 여자는 모자나 보닛끈을 매는 챙 없는 모자을 뒤로 제쳐쓰고 있으므로 앞머리가 내다보였다. 어떤 여자는 머리 위에 수평으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착모着帽 스타일 가운데, 뒤로 제쳐 쓰는 모습이 훨씬 멋이 있어 보였다."고 뉴욕 헤럴드(1883.10.15.)는 보도했다.

9월 27일에는 뉴욕 소방서를 방문, 소방 훈련을 관람하고, 이어 엔진회사를 방문, 쇼트Short 사장의 영접을 받았다. 쇼트는 보빙사에게 방명록에 서명을

요청하자 먼저 민영익이 책상에 앉아 펜으로 천천히 서명했다. 조선 양반 선비의 붓글씨 쓰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썼기 때문에 이름을 쓰는데도 몇 분이나 걸렸다. 이에 반하여 영접관 포크와 메이슨은 펜으로 서명을 휘갈겨서 신속하게 써버리는 게 아닌가.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재빨리 수행한다. 저들은 글씨를 쓰는데도 얼마나 빨리 쓰는가"라고 조선과 미국의 글씨 쓰는 방법의 차이를 실감하기도 했다.

보빙사는 정오에 뉴욕시청을 방문했다. 아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에드슨Edson 시장은 민영익을 환대하게 된 것이다. 에드슨 시장은 보빙사를 영접하는 오찬을 베풀면서 환영사에서 조미 호혜적인 우호 관계수립을 치하한다고 했다.

> 본인은 뉴욕 시민을 대신하여 각하를 충심으로 환영하며, 귀 사절단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freedom를 보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국 국민과 우리 뉴욕시 상인 간의 통상 교역 관계 및 정치 관계가 유쾌하고도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상서롭게 출발한 양국 관계가 평화롭고도 영속적인 행운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New York Herald,* September 28, 1883)

에드슨 시장이 이 같은 환영사를 하자 민영익 전권대신은 준비해 간 답사를 한국어로 낭독하였는데, 포크 영접관이 이를 영어로 통역했다.

> 민영익 전권대신께서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보빙사는 귀하의 친절한 배려에 감사하며, 뉴욕 시장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계속 유쾌한 기분이며, 이 나라 전국에 걸친 시찰 여행, 특히 뉴욕 시내의 관광을 통하여 무한한 감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미 간의 통상조약에 관하여서는 보빙사께서는 자기 나라의 정부가 통상의 문호를 미국 국민에게 개방한 것을 다행한 일로서 기쁘게 여

기고 있습니다. 조선을 떠나 미국으로 오기 전에 푸트 주조선미국공사는 민영익 전권대신에게 조선 사신이 미국에 가면 미국 국민으로부터 친절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푸트가 말한 것보다도 더 친절한 영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각하께서는 한미 양국 국민은 국가적 우의友誼와 통상을 통하여 '한 집one house'에 살고 있는 것 같이 '하나의 국민one people'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는 귀하께서 '뉴욕시의 자유에로의 친절한 초대kind invitation to the freedom of the City'를 기꺼이 수락했으며, 보빙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귀하께서도 보빙사로 하여금 직접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합니다.(*New York Herald,* September 28, 1883)

보빙사는 뉴욕 시장의 안내로 각 부서를 시찰한 후 시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방명록에 서명하고 시청을 떠났다. 이어 이브닝 포스트, 뉴욕 헤럴드 양 신문사를 방문·시찰했다. 특히 뉴욕 헤럴드에서 9월 19일자 '한글본 국서'와 '한글 국서 제정사'를 동판으로 보도해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한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뉴욕 헤럴드에 '한글Corean Characters문서'가 처음으로 게재된 데 대해 무한한 영광과 큰 감명을 받았다고 치하하면서 신문제작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보빙사의 동정을 신속하게 보도한 각 신문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고 뉴스의 신속 보도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어 신문인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조선도 이러한 활자를 가지고 있지만 인쇄 과정은 미국과 다르다. 200년 전 조선국 국왕은 수많은 금속활자를 발명했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철활자를 사용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활자가 만들어지게 된 시기는 대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반인데 조선왕조 초기부터 금속활자를 발명, 각종 서적을 인쇄해서 서적 보급에 큰 이바지를 했다. 1403년태종 3년에 계미자癸未字라는 동활자를 발명·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1434년 서양 활자인쇄술의 발명자로 알

려진 구텐베르크Gutenberg보다도 무려 30년이나 앞서고 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사용한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 품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금속활자로 인쇄된 한문고본漢文古本을 꺼내어 신문사 기자들에게 펼쳐 보이기도 했다. 사실상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금속활자는 1800년대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가 만들었다고 부언했다.

9월 29일 워싱턴으로 돌아온 보빙사 일행은 국무부·농무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를 순방했다. 조선 보빙사는 상투를 틀고 품위 있는 풍성한 도포를 입었는가 하면, 사모관대紗帽冠帶 정장 차림을 하고 문관은 학을 수놓은 흉배,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은 관복에다 호화찬란한 색깔의 각띠를 허리에 두르고 다양한 색깔의 관복을 입고 워싱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미국 시민에게는 이국적 구경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보빙사 일행의 옷차림이 워싱턴 시민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보빙사 일행은 각양각색의 비단 옷과 말총으로 만든 진기한 모자(갓)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워싱턴 시민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워싱턴 시민은 괴상한 옷차림을 한 보빙사가 공원을 거닐고, 마차를 타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왕래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정부 관서의 공무원도 괴상한 옷차림에 피부 빛이 거무스름한 이들 외국인 사절단의 정중한 행동거지를 보고 신기한 듯 일손을 멈추고 구경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신 아라비안나이트a new Arabian Nights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 현신現身했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평했다.(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p.14)

구미 여러 나라 가운데 조선과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미국이고, 또 조선이 최초로 보빙사를 파미하게 되자, 조선 정부의 대미 통상 기대도 그만큼 컸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그 당시 협판교섭사무외무차관 묄렌도르프Paul G. Moellendorff, 穆麟德는 보빙사 파미를 계기로 서울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는 7월 14일자로 서울에서 대

규모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건의문을 고종에게 제출한 것이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이 건의문 편지를 휴대하고 미국사행을 단행, 미국 국무부에 박람회 개최를 교섭한 것이다.

> 대조선국 대군주는 상공업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 서울에서 박물관을 설치, 특히 광산도구·농기구·지질조사기구,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외국 수출품의 표본 및 모형을 전시할 전시관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이러한 전시관을 개설하게 되면 1,200만 조선 국민은 가장 원시적 상태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문명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전시 품목은 모두 영어와 한문으로 기록 목록을 작성하되 출품회사의 사명社名을 명기할 것이다. 아메리카합중국의 상인 및 제조회사도 본 박람회에 출품하도록 초청받을 것이다. 모든 출품물은 중국 상해에 있는 대리인 스네드라지H. Snethlage 씨 앞으로 보내야 하며, 출품목록 및 가격목록을 포함하여 모든 서신은 본인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 조선 정부는 송장invoices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이들 상품을 구입할 특권이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통상무역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을 희망하며 따라서 상품 주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품이 우리에게 직접 배달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상인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상업대리인을 파견하지 못한 미국의 각 회사들도 크게 덕을 보게 될 것이다.(*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His Corean Majesty's Foreign Office, Seoul, July 14, 1883. P. G. Moellendorff)

민영익은 묄렌도르프의 서신을 동봉, 국제박람회 개최에 협력·출품해달라는 공한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10월 4일자 서한에서 묄렌도르프의 국제박람회 개최구상을 설명하면서 개관 일자는 미정이지만, 출품할 견본과 모형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은 아서 대통령에게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보빙사에게

통고했다. 민영익은 이러한 허락을 받고, 미국 정부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답서를 보내면서 과학 및 제조공업에 관련된 모든 품목, 특히 광산 농업 분야의 기구출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조선왕국이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빅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뉴욕 헤럴드'(1883. 10. 15.)는 "민영익은 한국에서 외국박람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무부 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외국박람회를 개최하면 한국 국민들에게 외국제 상품을 보여주는 호기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대외교역을 촉진하며,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인의 '대외 편견prejudice'의 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람회 개최는 한국의 대외교섭을 발전시키는 조치이므로 한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평가·보도하면서 묄렌도르프의 국제박람회International Exhibition 개최를 요청한 서한 전문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워싱턴시 상공회의소에 출품의뢰를 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한편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October 23, 1883)는 국제박람회 개최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하였다. "최근 조선 왕국으로서 재미있는 사건은 이처럼 먼 나라에서 국제적 대산업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제의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끌었고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원시상태로부터 겨우 문명 사회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때에, 이들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상품, 이를테면 광산 개발기계 농기구 그리고 기타 상품 등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미국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정부는 일본을 개항시켰듯이 최초로 한국과도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친밀한 우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로서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될 산업박람회industrial fair에 미국 상품을 출품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명한 처사라고 보는 바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서울박람회 개최에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민영익 전권대신은 10월 12일 백악관을 예방, 고별 인사를 행했다. 아서 대통령은 해군장관에게 조선 보빙사를 안전하게 호송할 해군함정 트렌턴Trenton호를 파견하도록 조치했다. 해군대령 피티언R. L. Phythian을 트렌턴호 함장에 임명하고 항행비용은 해군 비상지출금the contingent appropriation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보빙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다.

조선 보빙사는 두 패로 나뉘어 귀국했는데, 민영익 전권대신은 서광범·변수·해군무관 포크G. C. Foulk와 함께 1883년 11월 19일 트렌턴호를 탑승, 뉴욕항을 출항, 대서양을 횡단 항행하여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민영익은 주영청국공사 증기택曾紀澤, Tseng Chi-tse 후작을 방문했다. 주영일본공사와는 대조적으로 청국공사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민영익은 청국공사를 만날 때 '朝鮮人閔泳翊조선인 민영익(Min Yong Ik, Chosunese)'이라 한자와 영문으로 표기된 명함을 내놓고 환담을 나누었다. 각국 주영국 공사관을 방문할 때 이 명함을 사용한 것이다. 민영익 일행은 런던·파리·카이로·로마 등지를 역방하고, 수에즈운하를 거쳐 인도양을 횡단하고 싱가포르·홍콩 등지를 역방하는 등 한국인 최초의 세계 일주항행을 무사히 끝내고 1884년 6월 2일 제물포항에 도착, 귀국 복명했다. 한편 홍영식 부대신 일행에는 고영철·최경석·현흥택·미국인 외교 서기관 로웰·중국인 우리탕 등은 오던 길로 태평양을 횡단항행, 일본을 거쳐 1883년 12월 21일 귀국 복명한 것이다.

거의 3개월에 걸쳐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1884년 2월 27일 트렌턴호는 드디어 서방세계를 뒤로하고 수에즈운하를 거쳐 홍해로 빠져나와 아덴에 기항한 후 아라비아 해역을 거쳐 인도양에 연한 실론스리랑카에 기항했다. 아시아에로의 항행 중 포크 해군무관은 보빙사들 사이에 행동거지가 정반대임을 발견했다. 민영익은 시종일관 유교서적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처럼 구미의 선진문물을 시찰하고 계몽을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반하여 서광범과 변수는 포크가 백과사전을 번역해서 설명하면 열심히 노트하고, 또 구미 각국을 시찰한 내용을 토론하는 등 구미 선진문

명의 수용에 대해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개화인물an enlightened man이었던 민영익은 트렌턴호를 타고 귀국하는 함상에서 보수·반동적 경향을 보인 반면, 서광범·변수 등은 개혁정치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장차 이들 양파 사이에 적대적 충돌을 야기할 불길한 조짐이었다.

보빙사 일행은 인도양을 항행, 말라카 해협을 거쳐 싱카포르·홍콩을 거쳐 나가사키를 잠시 기항했다가 인천 제물포에 도착, 귀국·복명한 것이다. 민영익 일행은 사인교와 당나귀를 타고 서울로 오는 길에 서광범은 포크 해군무관에게 민영익의 행동거취에 매우 우려를 표명했다. 민영익이 도미 시에는 개화의지를 가지고 미국으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떠나 유럽 각국으로 6개월간의 장기 세계 일주항행을 하면서 부청적附淸的 의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광범은 민영익이 서울에 도착하면 장차 구미 각국에서 견문한 구미 진보사상을 버리고 보수·반동적 수구 사대사상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말은 선견지명이 있는 적중한 예언이었다. 민영익은 그 다음날 6월 3일 푸트 미국공사를 방문, 그동안 미국정부의 환대에 대해 공식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서 대통령의 특별배려로 세계 일주 항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구미 선진문물을 직접 견문한 소감을 솔직하게 피력했다.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서 광명 세계로 들어갔다가 이제 또다시 암흑세계로 되돌아왔다. 나는 아직 내 진로를 분명히 취할 수 없는데, 곧 앞으로의 나의 거취를 밝히게 될 것을 희망한다."



민영익 묘지 전경

앞면〈前面〉

輔國崇祿大夫吏曹判書
驪興閔公泳翊之墓 艮坐
配貞敬夫人光山金氏合窆



민영익 묘비 앞면

뒷면〈後面〉

生父 台鎬
哲宗 庚申 四月 二十九日 生
甲寅 閏五月 十五日 卒
驪陽府院君 七代孫

官歷翰林待教檢詳舍人銓郎
應教副提學吏曹參議大司成
兼輔德都承旨至輔國崇祿大
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
督辦內務府事判義禁府事知
經筵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
知春秋館成均館訓練院事原
任奎章閣提學侍講院左賓客


민영익 묘비 뒷면

2. 보빙사 전권부대신 홍영식



홍영식

홍영식洪英植, 1855~1884의 자는 중육仲育, 호는 금석琴石으로 급진개화파로, 보빙사 전권부공사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신설된 우정총국의 총판總辦이 되어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홍순목洪淳穆, 1816~1884과 어머니 전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81년 일본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도일했다. 1883년에는 전권대신 민영익과 함께 견미사절단인 보빙사 11명에 포함되어 미국의 발전된 문명을 직접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전권대신 민영익은 종사관 서광범·변수·해군무관 포크G. C. Foulk 등과 함께 대서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쳐 인도양을 횡단하는 경로로 세계 일주하여 1884년 6월 고종에게 복명復命하였다. 반면 홍영식은 고영철·최경석·현흥택·미국인 외교 서기관 로웰·중국인 우리탕 등과 미국으로 왔던 경로를 따라 1883년 12월 21일 귀국하여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은자隱者의 나라' 조선 관리 8명이 최초로 방문한 미국과 세계 일주한 1년은 1884년 6월 2일음력 5월 9일, 창덕궁 중희당重熙堂에서 전권대신 민영익이 종사관 서광범과 함께 고종에게 복명한 내용은 단지 『승정원일기』에만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이는 6개월 후 보빙사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변수 등이 가담한 갑신정변의 실패로 홍영식은 고종을 호위하다가 청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는데, 가족들은 노륙지전孥戮之典, 남편 또는 아버지의 죄로 처자를 죽이는 형벌을, 그의 아버지 홍순목은 자결했고, 형 홍만식은 삭탈관직을 당했다. 반면 서광범·변수는 김옥균·박영효·서재필 등과 함께 일본 및 미국 망명길에 올라 대역부도죄인大逆不道罪人 홍영식의 복명 기록과 서광

범·변수가 기록한 내용들은 모두 남아있지 않아 1883~1884년 미국과 유럽 등 각 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중간에 당당하게 다리를 꼬고 사진을 찍은 홍영식.
홍영식과 외부아문 사진. 로웰 촬영(1884년)

1884년 당시 30세의 홍영식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가 미국에서 보고 느낀 선진 문물을 도입, 정치적 개혁을 통해 개화운동을 벌이려 했던 개화 의지를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후 보빙사 외교 서기관 로웰은 홍영식에 대해 "나에게 너무나 충실한 친절을 베풀었던 홍영식은 진정한 애국자였건만, 마침내 정치적으로 희생, 순국자가 되었으니 다만 그동안 기억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고 회고했다.

1883년 12월 보빙사 부대신으로 귀국한 홍영식이 고종에게 복명한 기록인 「복명문답기復命問答記」가 1981년 2월 13일 청계천 고서점에서 단국대 김원모 교수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의 1884년 6월에 고종에게 복명한 기록과 같이 홍영식의 복명 기록 또한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었어야 할 중요 공문서였지만 홍영식이 대역부도죄로 인해 역적의 문서를 등재할 수 없어서 제외되어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조미조약 약 100년 만에 발견된 것이었다. 필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최초로 미국과 유럽 등을 여행

한 기록을 전권대신 민영익과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변수 등이 일기나 견문기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홍영식만은 미국견문기인 복명문답기를 남겼던 것이다. 아니 어딘가 다른 기록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서가 「복명문답기復命問答記」이자 최초 '미국견문기'인 셈이다. 이후 1888년 주미조선공사관에 부임한 박정양 초대 공사가 저술한 『미행일기美行日記』,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등을 미국 견문록으로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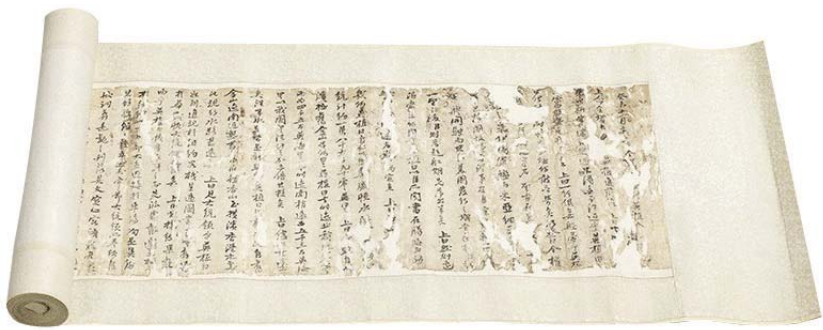
홍영식의 「복명문답기」는 한자로만 쓰여졌고 길이는 278.5cm, 폭이 20.7cm, 총 149행 1행당 20자 내외로 총 2,887자에 이른다. 글자는 초서草書와 행서行書의 혼체필사본으로 지질은 얇은 태지胎紙로 두루마리식으로 이어져 있다.

「복명문답기」의 첫머리에는 "癸未十一月二十二日全權副大臣洪英植계미십일월이십이일 전권부대신 홍영식"이라고 정확한 연도와 월일, 작성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그 문서에서 교육·우편·군사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근대화 운동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선진문물을 도입·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신 등이 그곳에 도착한 이래 언어가 불통하고 문자가 같지 아니해서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파악할 수는 있어도 도무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기器機의 제조 및 배·차·우편·전보 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교육에 관한 일인데, 만약 미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서 백방으로 대응한다면 아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그 법을 본받아야 합니다.
>
> 군용軍容의 정숙함과 기계의 정리精利함은 유럽에 비해 손색이 없고 현재 미국의 병력수효를 보면, 그 수가 2만여 명에 불과하며, 이를 열 군데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토의 넓이와 군대 수를 비교하면 그 대소가 아주 달라서, 이처럼 소수의 군대로 국가 방위를 충분히 담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문맹자가 거의 없고, 또한 해군, 육군의 무예를 겸하여 습득하지

아니한 자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장수가 될 수 있고 졸병도 될 수 있어서, 갑자기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백만의 군대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북전쟁1861~1865 때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력 수효는 심히 적으며, 평화 시에는 양병의 명목이 없지만 민병民兵이 많이 있으므로 이 같이 위난을 당하더라도 양병의 실효를 충분히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홍영식의 「복명문답기」(1883)

위의 홍영식의 「복명문답기」의 내용과 같이 한미 외교 및 관계사에서 이 문서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문서의 발견으로 최초의 미국 사절단 보빙사가 기록한 사료의 부족함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방문한 보빙사에 관한 미국 내 기록은 그 당시 미국 현지 신문·잡지 및 『미국무부문서』 등 자료가 조선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홍영식의 「복명문답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빈약한 전권대신 민영익의 「복명문답기」가 『승정원일기』에 간략 소개되어 있을 뿐이었다. 1년 여의 조선 외교사절단 기록이 단지 몇 장의 문답 형식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둘째, 이 문서는 1880년대 초의 한미 외교 및 교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홍영식 미국의 정치·군사·국방·농업·상공업·전신·우편제도 등 전반적인 미국의 선진문물을 시찰하고 그 견문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의 개화사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대조선국의 대미관對美觀의 전환을 이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73년 대원군의 실각으로 양이관洋夷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880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 도입으로 쇄국정책에서 개항정책으로 전환했다. 신미양요(1871) 시에는 미국인을 '해적떼海浪賊'라고 비하하면서 인간 이하의 야만종이라고 보았다. 서양 여러 나라 중에 미국과 최초로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 홍영식은 미국의 선진문물을 직접 시찰하면서 세계 최강의 부강국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문명국임을 확인하고 「복명문답기」를 남겼다.

넷째, 우리민족 역사상 최초로 대미 자주외교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보빙사의 임명·파견부터 뉴욕에서의 미국 대통령 아서에게 국서 제정식과 워싱턴 D.C.에서 각국 주재 공사 접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자주외교를 수행했다. 임오군란(1882) 이래 청군의 서울 주둔과 원세개의 대한 내정간섭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대미 자주외교를 완수한 것이다. 특히 조선 국서에 청국 연호를 폐기하고 조선의 개국연호開國年號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조선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 것이다.

다섯째, 아메리카라는 나라 이름을 '미국美國'이라 표기했고 대조선국을 한국어 발음으로 영문으로 'Tah Chosun'이라 표기했다. 조미조약에는 일본어 발음 '조센Chosen'이라 표기했다. 한글 국서에는 미국 대통령을 중국어로 '대백리새천덕大伯理璽天德'이라 표기했지만 이 문서에는 미국 대통령을 '대통령大統領'이라 처음 표기했다. 이와 같이 외교문서에 처음으로 미국이란 나라 이름을 표기한 것이다. 'President'라는 낱말은 중국에서는 '대백리새천덕'이라 음사해서 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총통이라 표기한 데 비해 홍영식의 「복

명문답기」에 처음으로 '대통령'이라 표기한 것이다.

홍영식은 귀국하면 미국의 우편제도를 모방하여 조선에도 우편제도를 수립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홍영식은 이 같은 개화의지로 1884년 4월 22일에 우정총국을 창설하면서 우정총판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편제도를 모방하여 우정총국을 창설한 것이다. 정부는 설립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국과 통상을 한 이래 내외 교섭이 날로 증가하고 관상官商의 소식이 이에 따라 번성하고 있다. 우편의 시설이 없으면 원근을 막론하고 소식을 연락할 길이 없다. 이에 우정총국郵征總局 설립을 명하노니 연해沿海 각 항구를 내왕하는 우편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내지 우편업무에까지 점차 확장해서 공사 간의 이익을 거두게 함이다. 이에 병조참판 홍영식을 우정총판郵征總辦에 임명, 우정총국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후 홍영식은 마침내 1884년 11월 18일부터 우편업무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도 주한 각국 공사관에 '우정규칙'을 송부하면서 우편업무 개시를 통고했다. "우정총국에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우정국을 배치한 장소에서 우정사무를 개시한다. 우편물을 운반할 때 기장旗章이 없으면 우편물 구별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기장도안을 만들어 사용함이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각과의 분장업무도 정한다." 그러나 홍영식은 이 같은 개화의지를 가지고 근대 미국식 우편제도를 도입·실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갑신정변 실패로 말미암아 우편업무 개시 20일 만인 1884년 11월 8일 우정총국은 혁파되고 말았다.

홍영식 묘비洪英植 墓碑 원문



홍영식 묘지 전경



홍영식 묘비 앞면

앞면〈前面〉

琴石先生南陽洪公英植之墓

좌측면〈左側面〉

여기驪州땅文章마을뒷山마루人跡이고요한곳에몸은비록三十世에今世를떠났지만이름은永劫토록남겨歷/史에끼치고氣魄은後世에드리운信念에불타는開拓者요近代郵便制度의先覺者께서고요
히누워계시니/
이가바로初代郵政總辦琴石洪英植先生이시다字는仲育號는琴石貫鄕은南陽이니그始祖高麗三重大匡太師/公諱殷悅의三十四世孫이요韓末領議政諱淳穆의第二子로一八五五年十二月二十九日서울에서出生하시니世/代名門의後裔이다一八七二年十八歲로七夕製에及第하여正字待敎承旨等을連任하고一八八一年朴定陽等을/비롯한紳士遊覽團의一員으로日本國에건너가新式郵便制度를視察하였고歸國後總理機務衙門副經理使가되/



홍영식 묘비 좌측면

뒷면〈後面〉

었다一八八二年副提學參議總理內務衙門事務參議軍國事務參議交涉通商事務郵程司協辦等을歷任一八八三/年에는協辦交涉通商事務에被任同年에全權副使로美國에赴任新式郵便制度를비롯萬國郵便聯合制度等에代/한認識과더불어積極的인研究가始作되었다一八八四年兵曹參判으로被任同年四月二十二日에는王命으로/郵征總局을設立總辦이되자主導的인役割로他의追從을不許하는獨步

的인計劃樹立과아울러郵便業務를近代/化시켜오늘의遞信部가存續할수있는基盤을튼튼하게닦아놓은不滅의功勞者이다一八八四年十一月十七日에/業務를開始하였고同年十二月四日開局宴을契機로朴泳孝金玉均等과함께甲申政變을일으켜新政府를組職하/고右議政이되었다그러나淸國의介入으로三日만에新政府가무너지고先生은昌德宮뒷山넘어玉流川上流에서/淸兵에依해無慘히도殺害되니享年三十歲였다十年後인一八九四年甲午更張때經理大臣金弘集等의上奏로伸/寃되어官에復歸되고一九一〇年에는奎章閣大提學으로追贈忠愍이라諡號하였다/

大逆罪人으로烙印이찍혔으니血孫이있을까닭이없고伯父諱淳敬에게出系한伯兄諱萬植의弟二子諱性謙을/入養한바그의子應基가出生하여永登浦驛長으로在職中六二五動亂時行方不明이되고應基의子가錫皓이니곧/先生의曾孫이며錫皓의子彰秀가三歲幼兒로자랄뿐이다先生이가신지九十餘四年이라幽宅에는標識하나없어/아는이없기에後世에남겨줄敎訓으로서우리들敎職員및訓練生四三一六名의誠意를모아碑를세워繼繼承承뜻/있는萬人으로하여금香花와瞻拜를받으시게하노라



홍영식 묘비 뒷면

우측면〈右側面〉

온누리가 새밝음에 躍動하는 渦中인데 祖國만은 어둠속에 갈피들을 못잡았네
一家犧牲 不惜하고 革新機運 주셨으니 맵고차신 높은뜻을 우리들은 銘肝하리
나라위한 忠志之士 마음속에 모셔두자 遞信위한 先見之明 가슴안에 간직하자

西紀一九七七年二月十三日
遞信公務員訓練所長 鄭圭石 謹撰



홍영식 묘비 우측면

3. 보빙사 종사관 서광범



서광범

서광범徐光範, 1859~1897의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서구敍九, 호는 위산緯山이다. 그의 증조부는 순조대 영의정을 지낸 서용보徐龍輔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서상익徐相翊이다. 어린나이에 김옥균金玉均과 박규수朴珪壽 집을 출입하며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20세 되는 1879년경 김옥균·박영효朴泳孝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였다.

1880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규장각 대교奎章閣侍敎·규장각 검교奎章閣檢校·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세자시강원 겸 사서世子侍講院兼司書·세자시강원 겸 필선世子侍講院兼弼善·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등을 지냈다.

1882년 4월 김옥균을 수행해 일본의 국정을 시찰하고 귀국한 뒤 9월 수신사 박영효의 종사관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883년 3월 귀국하였다. 이어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의 종사관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 시설을 시찰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하고 이듬해 6월에 귀국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외유를 통해 개화·자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1884년 12월 개화당의 일원으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혁신내각을 수립한 뒤, 좌우영사 겸 우포장左右營使兼右捕將·대리외무독판代理外務督辦이 되었다.

그러나 즉각적인 청국군 개입으로 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에서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1885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이유는 본국정부로부터의 계속적인 소환 독촉과 일본 정부의 냉대 때문이었다.

1882년 7월 임오군란 발발로 청군은 난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청국 천진으로 납치해갔다. 이때 일본공사관은 난군에 의해 건물이 불태워졌다. 일단

사태가 수습되자 한일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정부는 1882년 9월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했는데, 특명전권대신 수신사에 박영효, 전권부관 겸 수신부사에 김만식金晩植, 종사관에 서광범, 수원 변수 등 14명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국정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민영익·김옥균 등이 수신사와 함께 동경으로 향했다. 이로써 서광범과 김옥균은 상호 의기투합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행로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첫째로 서광범은 민영익과 함께 갔었는데 김옥균은 보빙사 전권대신에 민영익을, 종사관에 서광범을 천거·임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로 수신사 박영효는 일본사행 임무를 완수하고 곧바로 귀국한 데 비해 김옥균·서광범은 6개월이나 동경東京에 머물면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일으키려는 정변政變 거사계획을 숙의, 그 방책은 이른바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모델로 한 급진적인 정치 쿠데타 갑신정변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서광범은 일본 각지와 각 기관을 시찰하고 일본 지도자와 교유한 후 1883년 3월에 귀국 복명했다.

1884년 6월 2일 보빙사가 미국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복명했다. 해군무관 포크는 민영익·서광범·변수 등을 정치성향이 전혀 다른 적대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민영익은 자기나라의 개화·발전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성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민영익은 변덕이 심한 심약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민영익은 항상 휴대하고 있는 유학서적만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모처럼 구미의 문물을 시찰하고 계몽을 받아들여 개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에 반해 서광범과 변수 두 사람은 자기나라에 유익한 문제가 있으면 이를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백과사전에 있는 세계 주요국가의 정치사 및 개화사에 관한 정보자료를 많이 번역해 주었더니 그들은 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귀국했다." 이와 같이 민영익은 보수적 인물로, 서광범과 변수는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는 혁명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기에 스미스T. Smith는 '서광범의 사명'(The Mission of Pom K. Soh)에서 서광범을 평하기

를 '한국인을 위한 한국'(Korea for the Koreans)이 바로 서광범의 정치적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서광범이야말로 자주독립과 개화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martyred heroes)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청의 지배로부터의 독립, 개화운동이란 바로 일본방식(명치유신)을 모델로 한 정치적 개혁운동을 가리키고 있다.

서광범은 제물포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포크 해군 무관에게 민영익은 심히 염려되는 골수 친청親淸 보수주의자라고 평하고 있다. 서광범은 민영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민영익의 행동 노선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구미 각국 순방 시 우리의 시찰목적은 바로 개화운동에 있었는데 우리가 민영익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교적 교리와 인습적 관념에 젖어있는 민씨 외척 세력 가문의 전통적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민영익은 친청적인 경향으로 전향, 서구적 개화운동을 반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윤치호尹致昊는 민영익을 반개화 친청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영익은 조선독립에 회의를 피력하면서 개화당과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개화당이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옛것을 고쳐서 항구적인 독립을 도모하고 있는데, 민영익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문명 독립을 이룩하고 스스로 우내宇內에 떨치려는 개화파 인사를 불충하는 사람이라 비난하고 있다.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온 그가 저와 같이 완고하고 어리석게도 자강自强의 영광됨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반으로 설유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구차스럽게 보전하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급진 개화파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역사의식의 결여,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는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명, 안이한 대일의존식 혁명거사 등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조선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세개袁世凱의 청군이 갑신정변에 즉각 개입, 급진 개화당의 혁명계획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박영효·김옥균·서재필·

서광범·변수 등은 다케소에竹添進一郎 일본 공사를 따라 일본으로 망명한 것이다. 김옥균은 일본에 남고, 박영효·서재필·서광범 등 3인은 서화를 그려 판 돈 90원으로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박영효는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가고 서재필·서광범은 남아있으면서 망명생활을 계속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으로 귀화,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인물이 서재필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는 1888년 모국의 이름을 버리고 '제손Philip Jaisoh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 서광범도 이에 따라 1889년 5월 24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90년 6월 19일 미국으로 귀화했다. "조선인 서광범은 1892년 6월 19일 미국 시민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는 4~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훌륭한 도덕적 인격의 인간으로서 미국 헌법의 원리를 준수하고 미국의 질서와 안녕을 잘 지키고 있다. 이에 상기 신청인은 엄숙한 선서에서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그리고 여하한 주권 독립국, 특히 그가 지금까지 신민臣民으로서 섬겨왔던 대조선국 대군주에 대한 모든 충성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포기·철회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상기 신청자는 지금부터 미국 시민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일본의 대조선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를 정복·지배하고야 말겠다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청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이리하여 청일전쟁(1894. 7. 24.)을 도발, 압도적 전승을 거둠으로써 이제 일본은 청의 간섭 없이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김홍집金弘集 친일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노우에井上馨 일본 공사는 미국에 망명한 지 10년이나 되는 서재필·서광범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귀국하도록 조치했다. 김홍집 친일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11월 21일 서광범에게 법부대신을 임명했다. 서광범은 1894년 12월 13일 이노우에 공사의 영접을 받으며 10년간의 정치망명을 청산하고 감격적인 귀국을 했다. 서광범은 귀국 즉시 사죄赦罪 소환에 감사한다는 상소를 대군주에게 올렸

다. “일찍이 갑신년 겨울(갑신정변) 인신人臣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바다를 건너 멀리 달아나서 오늘날까지 목숨을 부지해 왔습니다. 신의 죄는 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번 죽어도 속죄를 받을 길 없으며, 이는 스스로 만든 재앙自作之孽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천만 뜻밖에 지난 6월 그믐께 조가朝家의 유죄宥罪를 입사와 초환招還의 뜻이 있다기에 신은 수만 리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부모의 나라에 되돌아와서 법부대신을 제수받으니 더욱 황감하옵니다.”

서광범이 법부대신에 부임한 이래 조선정부 내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더욱 첨예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친일파와 친러파 간의 대립·갈등 양상이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비閔妃를 중심으로 한 민씨 친청 사대당은 반일정신으로 무장하고 일본의 대한침략야욕을 분쇄하고자 인아책引俄策을 수립,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제압한다는 친러반일정책을 강구한 것이다.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로 끌어 들이면 일본의 침략야욕은 좌절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친러반일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민비였다. 이에 일본은 민비를 제거하였는데 이를 을미사변乙未事變이라 한다. 1895년 10월 8일 밤 미우라三浦梧樓 일본공사는 민비시해사건을 단행했다. 일본 정치깡패 낭인배는 대원군을 앞장세우고 경복궁으로 난입, 민비를 시해하고 말았다. 법부대신 서광범은 즉각 민비를 폐서인廢庶人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광범이 을미시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서광범은 탈출을 시도했으니 자신을 주미공사에 임명해달라고 자원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0월 25일 김홍집 친일정부는 서광범을 주미공사에 임명한 것이다.

을미사변 이래 친일파와 친러파 간의 정치적 암투는 더욱 격화되어 정국은 더욱 혼미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1896년 2월 11일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과 동시에 김홍집이 타살됨으로써 친일정부는 붕괴하고 친러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2월 19일 서광범 주미공사는 백악관에서

거행된 국서신임장 제정식에서 제정사를 행했다. "조선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선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한 나라라는 것, 본 조약 체결로 미국은 조선을 독립 주권국가independent sovereignty임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이처럼 중차대하고도 경사스런 신임장 제정식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공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본인의 특별한 은혜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본인은 대군주의 명확한 훈령을 준수·이행하기 위하여 귀국정부와 협조한다는 것은 본인의 성실한 소망인 동시에 공식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미국 측보다도 한국 측이 훨씬 유리했던 우호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결합시킬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관파천 직후 친러파가 득세함에 따라 서광범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친러정부는 마침내 1896년 6월 20일 서광범을 해임하고 아관파천의 주역을 담당한 친러파 영수인 이범진李範晉을 주미특명공사에 임명했다. 서광범이 주미공사에 부임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해임된 것이다. 서광범은 극도의 좌절감과 궁핍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1897년 8월 13일 주미 조선공사관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만다. 장례식은 의화군 이강李堈을 비롯하여 조선 유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8월 16일 엄수되었다. "전 주미공사 서광범의 유해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오늘 화장되었다. 그리고 화장된 유골은 이범진 공사가 보관하고 있다. 유골은 곧 조선으로 운구될 것이다. 오늘 오후 유해는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그의 저택을 나와 화장터로 운구되었다. 많은 친구와 신지학회神智學會 회원 다수가 관 뒤를 따라가며 운구했다. 신지학회장 코핀G. M. Coffin이 장례식을 주재했다. 서광범의 관 위에는 성조기가 덮여 있었고 성조기 위에는 서가 평소 임고 있었던 관복 사모관대가 걸쳐 있었다."(*New York Tribune,* August 16, 1897)

미국간행물 색인에 의하면 서광범은 1891년 '조선교육론Education in Korea'을 발표했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조선족은 서양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머리카락 색깔 피부 빛이 다르며, 그리고 주식물로 쌀밥을 먹는다는 것, 주거양식은 온돌방이며, 헐렁한 옷을 입는다는 것, 불교사원이 많다는 것, 유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 등 모두가 중국과 일본 양 민족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곧 조선, 중국, 일본 3개 민족이 같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족韓族의 특이성을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인의 체격은 중국과 일본 양 민족에 비해 코카서스 인종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가령 중국인의 안색은 아주 황색이고, 일본인은 갈색인 데 반해 한국인은 중일 양 민족에 비해 피부색이 붉은빛을 띠고 있다. 유럽인이 빵을 먹듯이 쌀밥은 아시아인의 공통으로 먹는 주식물이다. 유럽인 사이에 빵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아시아 각국인 간에도 쌀을 원료로 한 요리양식도 다양하다. 그래서 이들 3개국 간에는 그 특성이 뚜렷하다. 가령 조선인은 주로 쇠고기를, 중국인은 돼지고기를, 일본인은 생선을 좋아하고 있다. 조선은 일찍부터 중국으로부터 한자漢字를 받아들여 문명국가를 이룩하고 있다. 한인에게 있어서의 한자는 마치 라틴어와 영어와의 관계처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문자이다. 조선인은 한자를 자기 문자화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고 배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선이 한자를 도입한 것이 문명발전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의 시와 가사에 한자를 혼합시켰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악적 효과는 상실되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다. 서광범은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갈파하고 있다.

로마자알파벳와 마찬가지로 한글은 25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어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음절音節이 있다. 그러나 한자漢字는 일반적으로 단음절單音節이다. 한자는 한국어의 구성에 절대적으로 혼합 사용되어 왔으니, 가령 모든 한국어의 단어가 한자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가령 'ㅇng' 발음으로 끝나는 음절들은 대개 중국어원中國語源이다. 한글은 수세기간 문법체계를 유지해왔으며, 로마자의 표음문자처럼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한자처럼 한글도 수직적으로 쓰이

며 여러 문자가 합해서 한 개 단어가 된다. 은유법隱喩法과 의인화擬人化는 중국어와 일본어보다 한국어에 더 많이 발전·사용되고 있다.

우리민족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일찍부터 문화민족으로 자처하며 일본보다도 우월한 문명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상찬賞讚을 받고 있는 일본 미술 문화는 바로 한국 미술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우수한 한국문화를 도입, 이를 모방하여 독특한 일본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의 근대 과학사상을 채택·도입하는 데 일본보다 뒤졌기 때문에 약소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과거를 빛냈던 문화국임을 스스로 자부하면서 문화적 우월감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은 청조의 지배민족인 만주 여진족을 '되놈오랑캐', 일본 민족을 '왜놈섬 오랑캐'이라 부르면서 다 같이 야만족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광범이 주미공사로 부임하여 활동 내역과 죽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주미조선(대한제국) 공사관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4. 보빙사 수원 유길준



유길준

보빙사 수원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미국사행 시 민영익 전권대신의 특별 배려로 미국에 남아 한국인 최초의 국비유학생이 되었다. 그는 개화선각자답게 용감하게 상투를 잘라 버리고 단발한 후 양복을 사입고 첫 미국유학생이 되었다. 미국유학 중 갑신정변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했지만 유길준은 급진개화파로 몰려 무려 7년간1885~1892 유폐 생활을 하였다.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친일정부가 붕괴됨에 따라 유길준은 일본으로 망명, 11년간1896~1907 망명생활을 보냈다. 파란만장한 59년 생애 중 무려 18년간 유폐생활을 한 셈이다. 한국 개화파 인물 가운데 유길준만큼 시련과 고난의 생애를 보낸 인물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갑신정변 실패 후 유폐 생활 중 우리나라 세계 인문지리서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저술, 개화사상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한문 혼용 문체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으로 김홍집 친일 정부가 붕괴되면서 그는 개화사상의 정치이념을 펴보지 못한 채 일본으로 망명, 11년간 망명 생활 중 친러정부를 타도하기 위하여 쿠데타 음모를 기획했으나 미수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그는 오가사와라小笠原島로 유폐되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친일파 인물로 지목되었던 유길준은 1907년 귀국 후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사업을 통해 국권회복운동에 정진했다. 그는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와 흥사단興士團 회장으로서 한일강제병합 반대운동을 벌였고, 병합 후 일본 정부가 내린 작위수여마저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개화사상가로서의 독립정신을 고취했을 뿐만 아니라 배일排日운동을 주도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으로부터 주일청국공사 황준헌黃

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정부에 바침으로써 조선 정부는 비로소 쇄국정책을 탈피, 개항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수구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 주자학을 고수하고 서양 천주교를 배척함는 '일본과 서양 오랑캐는 한 통속'이라는 왜양일체倭洋一體의 개념을 고수, 개항을 반대하면서 조미수교를 반대하고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면서 개항정책을 반대했다. 이처럼 개항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부는 1881년 1월 11일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을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유길준은 조사朝士 어윤중魚允中의 수원으로 윤치호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유길준·윤치호는 한국 최초의 일본 동경유학생이 되었다. 유길준은 경응의숙에 입학하여 후쿠자와福澤諭吉로부터 문명개화론 지도를 받았다. 1882년 9월 박영효 수신사의 수원으로 민영익이 도일했을 때 유길준을 만나 통리교섭사무아문(외무부)에 같이 일하자면서 귀국을 종용, 유길준은 귀국 후 1883년 외무낭관外務郎官에 임명됐다. 이를 계기로 하여 민영익이 이끄는 조선 보빙사 수원으로 도미하게 된 것이다.

조선 보빙사의 미국사행 중 의사소통은 일본어와 영어로 이중통역으로 진행했다. 유길준은 최초의 동경유학생이어서 일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일본말 통역을 도맡아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1883년 9월 4일 보빙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바틀레트Bartlett 상항 시장은 환영회 석상에서 환영사를 행했다.

> "본인은 상항 시장으로서 각하께서 우리 도시를 방문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에 유쾌하고도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외국정부와 친선관계를 수립·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국가정책이 되어왔으며, 우리는 이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미 양국이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 간에 친선유대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은 주재공사로서 귀하의 미국 체재가 유쾌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미국 국민과 관습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보빙사 일행은 상항에서 대륙횡단철도로 워싱턴으로 향했다. 유길준은 증기 기관차의 규모를 자세히 적고 있다. "객차는 견고한 나무로 정교하게 짰으며 너비가 4~5척, 높이가 7척 이상이며, 길이는 20여 척에 이르고 있다. 연황색 및 잡색의 페인트를 칠하여 눈비 물의 침습을 방지해주고 있다. 좌우의 차창은 모두 유리로 끼워놓았고, 그 위에 커튼을 드리우고 있다. 두 줄로 된 철의자 위에는 화려한 융단을 깔아놓았는데 한 의자에 두 사람씩 앉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객차 하나에 20명 이상 30~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기차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운행하는데 차중에 침구도 마련되어 있는바, 낮에는 걷어 두었다가 밤에 내려서 상하 2층의 평상에서 취침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식당차가 있는데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있어서 세수도 할 수 있다. 기차는 화륜선보다 더 빠르며 한 시간 300여 리를 달릴 수 있다."

보빙사 일행이 상항을 출발, 5일 만인 9월 12일에 시카고에 도착, 하우Howe가 베푼 환영 만찬회에 참석, 한미 양국의 신사들은 저녁 한때를 만찬으로 즐겼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빙사의 인상과 그들의 의상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조선 보빙사의 옷차림은 이상해 보였다. 통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주아브 병사(프랑스 경보병, 원래 알제리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아라비아옷을 입음)의 바지처럼 보였다. 저고리는 헐렁한데다가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무릎까지 내려왔다. 천은 비단인데 취향에 따라 색깔이 다양했다. 바지의 천은 면이고 솜 넣은 버선을 신었고, 가죽신(갖신)을 신고 있었는데 중국인의 신발과 흡사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 그들은 모자(갓)를 벗지 않고 관모冠帽를 쓴 채 식사하고 있었다. 모자는 챙이 넓고 모양은 원뿔모양sugar-loaf이었다. 비단망건skull caps 위에 대나무와 비단실로 정교하게 짠 갓을 쓰고 있었는데 긴 갓끈이 턱에 매어져 있었다. 그들의 관모는 미화로 15달러나 되는 값비싼 것이었다. 도포Over-garment는 얇은 사紗로 만들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턱에는 긴 수염을 달고 있었다. 그런데 보빙사 일행은 모두 기혼인데도 부인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이상해 보였다. 이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인은 여성을 천시한다. 조선인은 조혼의 풍습이 있다. 모든 남자는 정실부인 이외에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한 한두 사람의 첩을 거느리고 산다. 조선의 부인은 사회적 지위가 없다. 가령 미국인이 조선인 집에 초청되어 방문한다 해도 그의 부인을 소개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내외內外'의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인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가 공공연히 키스하는 일이 없다.

한편 조선 민족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의 수도는 서울So Oool이다.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한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지금에는(개항 이후)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선 민족은 아주 예의바르고 행동거지가 정중하며, 금욕주의적 민족이다. 그들은 희로애락을 얼굴 표정에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오락도 없고, 기쁨을 자아내는 놀이game 같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의 오락을 훌륭하게 감상하고 있다. 그들은 '고방Go-bang'이라는 도박을 즐기고 있는데, 이는 조선식 포커카드놀이 놀이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방'이란 아마 투전鬪牋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한 기자가 지금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국왕의 이름을 물었더니, 국왕은 죽을 때까지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9월 25일 뉴욕의 에퀴타블 빌딩Equitable Building을 방문, 발전기로부터 전기불이 켜지는 과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대 문명의 꽃이요 산업혁명의 동력인 전기불을 보고 그들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길준은 전등의 신기함을 이렇게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전기불이 어떻게 켜지는지 몰랐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악마devil'의 힘으로 불이 켜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그 사용방법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조작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유길준은 전기의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장차 조선에도 전기 사용의 가능성을 희망하였다. "우리는 조선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 미국에서 여러분은 전기가 가스나 석유등보다도 값싸고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상 실험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개화기 때 전기불을 '마귀불'이라 일컫게 된 것은 바로 유길준의 전등 감탄에서 유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에도 에디슨전기회사로부터 전기 플란트를 직수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정부는 미국 전등기사 멕케W. McKay, 麥巨를 초빙, 에디슨전기회사로부터 전등소 플란트를 직수입하여 건청궁에 전등소를 설치하여 1887년 1월 26일 점등한 것이다. 이날은 암흑세계에서 광명을 비추어 주는 역사적인 날이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한 지 8년 만에, 일본이 궁성에 전등을 가설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한반도에도 일찍이 유길준이 감탄했던 근대문명의 상징인 '마귀불'이 환하게 밝혀진 것이다.

유길준은 민영익의 특별배려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국 유학을 위해 남게 되었다. 이에 유길준은 즉각 입고 있던 한복을 벗어버리고 양복을 사 입은 최초의 양장 신사가 되었고, 상투를 자른 최초의 단발인 신사가 되었다. 조선 정부가 단발령斷髮令을 내린 것은 1895년 12월 30일이었다. 유길준은 단발령 시행 12년 전에 '단발 제1호'의 선구자가 되었다. 로웰 외교 서기관은 동경대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생물학 교수 모스E. S. Morse에게 유길준을 소개하면서 특별 지도를 부탁했다. 유길준의 미국 유학에 대해 "유길준은 아마도 5년간 세일럼에서 머물게 되며, 유학 후 서울로 돌아가면 영어를 구사하는 관리가 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1884. 12. 15.)는 보도했다. 이리하여 유길준은 모스의 개인지도를 받다가 1884년 9월 모스의 알선으로 세일럼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인 더머학원Dummer Academy에 입학했다. 이로써 유길준은 한국 최초의 국비 미국유학생이 된 것이다.

더머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1884년 12월 말 유길준은 뜻밖에 고국에서 정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길준은 그당시 "갑신년 겨울에 강의를 받던 중 학생 한 사람이 신문 스크랩(갑신정변

보도기사)을 주면서 귀국에 정변이 발생하였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이때 유길준이 동급생으로부터 얻어 읽은 신문기사란 곧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조선의 무정부Anarchy in Corea'라는 제목의 갑신정변 기사이다. "국왕 몽진蒙塵… 세자(민영익을 세자로 지칭) 및 대신 6명이 참살됨. 런던발 12월 15일. '타임스' 홍콩발 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 반란이 발생했는데 국왕은 몽진했고, 어영대장이 살해되었다는 나가사키발 보도를 인용했다. 국왕은 주조선 외국공사를 비롯하여 기타 조선 정부 고위 주요 인사들을 초청, 만찬회를 베풀었는데, 이 만찬회 석상에서 반란이 발생했다. 신호에 따라 세자 및 중신重臣 6명이 살해되었다. 왕비는 행방불명이다. 청일 양군 사이에 무력적 충돌이 벌어졌다. 조선 주재 외국거류민의 생명은 안전하다. 포함 에스프와Espoir호가 서울 한강에 도착했다. 이번 반란의 결과 몇몇 강대국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이 유길준은 갑신정변 발생 소식을 약 보름 후에 급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끔찍한 정변 소식을 듣고 유길준은 즉시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정변 소식을 듣고 은사 모스에게 고국에서 정변 발생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참을 수 없다면서 일본을 통하여 정확한 소식을 듣는 대로 귀국하겠다고 전했다. 이리하여 미국 유학 1년 3개월 만에 미국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는데 대서양을 항행, 유럽 각국을 순방, 세계 일주를 완수한 후 1885년 11월 17일 귀국한 것이다. 이는 민영익 일행에 이어 두 번째의 세계 일주를 한 셈이다. 유길준은 갑신정변이 발발할 것을 일찌감치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 사행 시 동경에 갔을 때 홍영식이 민영익을 따돌리고 김옥균을 은밀히 만나서 거사 계획을 숙의했다는 것이다. "얼마 안 되어 내가 유학차 미국으로 갈 때 일본 동경에서 홍영식과 같이 김옥균을 만나 정치 개혁문제를 의정議定한 바 있다. 김옥균은 나라 밖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홍영식은 나라 안에서 서울 주둔 청일 양국 군대를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약 5년 후 거사하기로 했다. 나는 일개 서생으로 이러한 거사 계획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다만 이 두 사람의 거사계획 밀담을 듣고만 있었다."

미국사행을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민영익은 김옥균·유길준과 뜻을 같이하는 개화파 동지였다. 미국사행 후 귀국을 계기로 민영익은 수구 친청 사대당의 영수로서 친일 급진 개화독립당의 정적政敵이 되고 말았다. 갑신정변에 실패한 친일개화독립당은 참살을 당하거나 또는 일본 망명을 단행했다. 그 결과 민씨 친청정부가 수립되었다. 유길준이 뒤늦게 귀국하자, 그를 친일 개화독립당이라 지목하면서 체포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유길준은 7년간(1885. 11.~1892. 11.) 유폐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개화 사상사의 불멸의 업적이라 일컫고 있는 그 유명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원고를 집필하여 1889년에 탈고하고 1895년 일본 동경에서 간행했다. 유길준이 세계 일주항행을 단행하면서 유럽 각국을 순방, 현장답사와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해서 『서유견문』을 저술했다는 것, 모든 공식문서에는 한자전용문체를 고수해 온 시대상황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유길준은 한국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를 실행,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실현한 선구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공문서는, 한글은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언문이라고 이를 배제하고 한자전용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길준은 언문일치 문장을 처음으로 집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국한문 혼용을 실시하게 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직후 『관보』를 발행할 때이다. 유길준은 관보 발행보다도 6년 전에 이미 개화사상의 선각자로서 한자전용의 서술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그 방대한 『서유견문』을 국한문 혼용체 문장으로 저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어문법의 이론을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것이다. 한자만을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가 한글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문법의 체계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던 시대적 여망에 부응, 유길준은 1909년 『대한문전大韓文典』을 펴냄으로써 국어문법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유길준이야말로 한글문화의 창시자라고 일컬을 수 있다.



유길준 묘지 전경



유길준 묘비 앞면



유길준 묘비 뒷면

5. 보빙사 수원 변수



변수

변수邊燧, 1861~1891는 서울에서 역과譯科 및 의관을 업으로 하는 중인 집안의 출신이다. 그는 일찍부터 당대 개화사상가로 명망이 있는 강위姜瑋를 집으로 모셔놓고 학업을 습득했다. 강위는 김옥균과 교분이 있었다. 김옥균은 일본의 국정을 자세히 정탐한다는 임무를 띠고 일본에 파견되었다. 도일 명목은 일본 국정 정탐이지만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국채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김옥균이 1882년 3월 도일할 때 강위를 동반하기로 했다. 강위는 그의 제자 변수와 함께 김옥균을 수행한 것이다. 김옥균은 그해 10월 박영효 수신사와 별도로 제2차 도일할 때 서광범·변수 등이 수행했다. 마침내 김옥균은 17만 원의 차관을 획득, 정치 개혁의 꿈을 가지고 1883년 3월에 귀국했다. 이렇듯 변수가 두 번씩이나 김옥균의 일본 사행에 수행함으로써 상호 친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김옥균은 변수를 보빙사 수원에 천거했으며 변수는 김옥균의 급진 개화독립당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빙사 중 전권대신 민영익 일행이 미국사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국한 것은 1884년 6월 2일이었다. 변수는 1884년 8월 21일 통리교섭사무아문의 주사에 임명되었다. 직책상 변수는 대군주를 자주 알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포크는 변수의 활동상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서울에 돌아온 직후 민영익은 외아문外衙門 협판協辦이 되고 서광범은 귀족의 서열에 올랐고, 지금까지 관직을 맡지 못했던 변수는 내아문內衙門 주사가 되어 대군주와 가까이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보빙사 사절이 정부요직에 참가하게 되자 이제 개화당은 희망에 넘쳐 있었다. 대군주 자신이 개화 사업을 지휘하면서 구미 문명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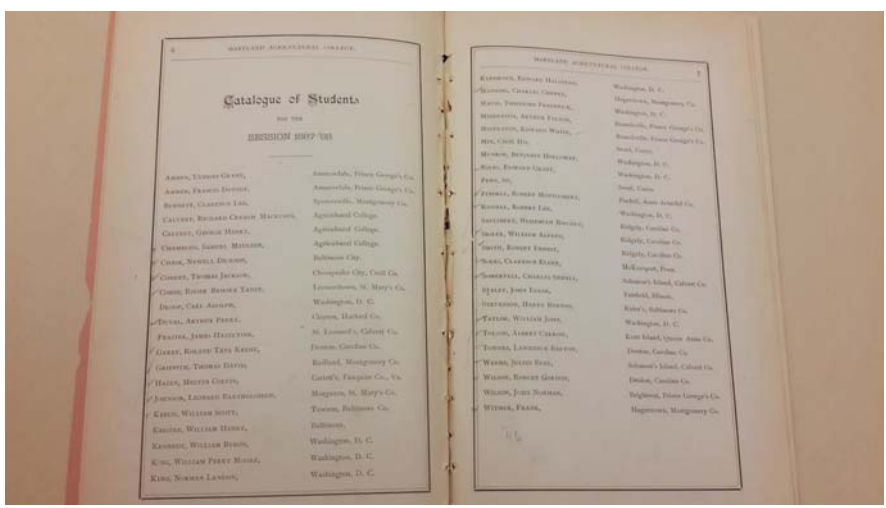
들이는 일련의 준비 사업에 착수했다. 대군주를 포함하여 개화당 지도자들이 개화 사업의 '착수조치initiatory steps'를 협의하는 모임에 초청되어 나는 내 의견을 개진하였다. 대군주의 명을 받은 변수는 매일 같이 나를 찾아와서 착수할 개화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본국정부의 훈령 범위 내에서 힘껏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때부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친일 개화독립당의 혁명거사 계획이 무르익게 되었다. 마침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천하로 종말을 고하고 홍영식은 청군에 타살되고, 김옥균·박영효·서재필·서광범·변수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다. 박영효·서재필·서광범은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변수는 김옥균을 따라 일본에 남았다. 1885년 8월 임오군란 때 천진으로 납치되어간 대원군이 환국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민영익은 대원군 환국 저지를 위해 천진행을 단행했다. 민영익은 이홍장을 만나 대원군과는 국사를 같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원군의 환국을 절대 반대했다. 그러나 이홍장은 민영익에게 구원舊怨을 풀 것을 권유하면서 대원군 환국조치는 불가피한 외교사항이라고 설득함으로써 민영익의 천진사행 목적은 실패했다. 그러나 민영익은 귀국하지 않고 상해와 홍콩을 왕래하면서 홍삼수출권을 독점, 막대한 수익금을 홍콩 프랑스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 바로 이때 중국 유학생 민주호閔周鎬·윤정식尹定植이 민영익의 은행 예금 17,288달러를 훔치고 일본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김옥균을 찾아가서 4천 원을 인도하면서 앞으로의 거취를 상의했다. 이에 김옥균은 이 돈의 일부를 변수에게 주면서 민주호·윤정식과 함께 미국 망명을 명했다.

이리하여 변수는 민주호·윤정식과 함께 1886년 1월 24일 미국망명길에 올랐다. 변수와 민주호는 대학입학을 위해 벌리츠 어학원Berlitz Academy을 이수하고 있었다. 이때 버나도우·알렌H. N. Allen, 安連·쥬이P. L. Jouy 등 3인이 한국에서 문화재와 민속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미정리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망명인사 서재필·서광범·변수 등 3인이 정리

작업에 참여, 알렌·록힐W. W. Rockhill, 柔克義·쥬이·그리피스W. E. Griffis 등 인사와 더불어 한국 문화재 정리작업에 참여했다. 민주호·변수는 1887년 9월 메릴랜드 농과대학Maryland Agricultural College에 입학했다. 현재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전신인데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사관생도의 제복 차림으로 엄격한 군대식 교육을 받는 보수적 학풍으로 유명하다. 1856년에 설립한 메릴랜드 대학은 농업대학으로 시작했는데, 1912년 11월 29일 발생한 큰 화재로 대학의 기숙사, 강의실과 사무실 등 절반 이상 큰 손실을 입었지만, 그 당시 자료 가운데 변수의 자료들은 잘 보관되어 그 자료를 근거로 변수의 대학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1887년 9월 입학 당시 『학교요람』을 보면, 학생 총수는 46명이고, 그 중 눈에 띄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Min Chou Ho, Seoul, Corea; Penn Su, Seoul, Corea” 등 조선 학생 2명이 포함되어 있다.


Catalogue of Students

1887~1888년 『학교요람』

그의 동기 중에는 남북전쟁의 영웅 암멘Daniel Ammon 제독의 아들 그랜트 암멘Ulysses Grant Ammon과 메릴랜드의 명문 가문으로 메릴랜드 대학 창설자 찰스 베네딕트 칼버트Charles Benedict Calvert의 아들 칼버트Calvert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선의 개혁가이자 반역자 변수와 민주호는 정치적 망명객 신분이라 당시 조선 정부의 지원과 보호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대신 그들 동기 아버지인 찰스 베네딕트 칼버트와 암멘 제독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한편, 1888년 1월 19일은 초대 주미특명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과 관원들이 워싱턴 D.C.에 부임하여 공사관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 시기다. 박정양은 민영익의 돈을 훔친 주범은 윤정식이니 민주호는 나이 어린 14세 소년이라는 사실을 들어 민주호는 무죄라고 선언하면서 귀국을 종용했다. 결국 민주호는 메릴랜드 농과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해 변수 혼자 계속 학업을 이수하게 된다.

당시 대학에는 졸업 앨범이 없었다. 학생들은 사진관에 가서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동기들끼리 선물로 주고 받았다. 이 사진은 볼티모어에 가서 찍은 사진이 전해진 것이다.

변수는 메릴랜드 농과대학에서 암멘 제독의 학비보조를 받으며 농학을 전공했는데 이는 그가 장차 학업을 이수한 후 조선의 농업근대화라는 그의 원대한 개화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는 조선의 근대화 기도는 갑신정변 실패로 일단 좌절되었다고 보았다. 위로부터의 정치개혁을 통해 개화운동을 시도해 보고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의 개입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의 근대화운동이 바로 그의 농업근대화를 통한 조국근대화의 궁극



변수 졸업장

적 목표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달성하려면 농업근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부문의 개화계획보다도 우선 농민의 생활과 지위를 향상시켜야만 근대화는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진 농업과 영농기술을 체득, 이를 조선에 도입 실시한다면 농촌의 만성적 절대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아선상에 있는 절대다수의 농민을 '빈곤의 속박Thralldom of poverty'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농학연구에 정진했다.

변수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망명 죄인의 몸이지만 암멘 제독의 보살핌을 받으며 학업에 정진, 드디어 입학 4년 만인 1891년 6월 4일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한국인 최초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역사적인 날이다. 또한 변수는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을 대표하여 상업Commerce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변수는 미국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며 그가 귀국하면 농업 지식이 조선 백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농업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땅에 머물렀다. 그는 대학을 졸업 이후 미국 농무부에서 청국, 일본, 조선의 농작물 통계자료를 번역하고 표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가 일본, 청국, 조선 등과 관련된 통계 분야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채용되었다.

변수의 수습 기간은 사망하기 전주에 만료되지만, 청국 농업의 현황에 관한 편집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재임명된다.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조선에 돌아갈 목적을 가지고 있어 영구적인 임명은 원하지 않았다. 사고 역시 다음 과제인 청국에 관한 자료 수집차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에 치인 것으로 30세 어린 나이에 이국땅에서 숨을 거둔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매체에서 그의 죽음을 알렸고, 미국 정부는 그의 사망 후 즉각 조선공사관에 사망 소식을 알렸으나,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후속 조치를 거부한다. 변수가 갑신정변에 참여하여 수배령이 떨어진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당시 서리 공사 이채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변수와 같은 나이다. 결국 그의 유해는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친구 아버지인 암멘 제독이 자기가 묻히려 마련해 뒀던 땅을 변수의 무덤으로 내준다.

아래는 변수를 기리며 묘비에 새긴 글을 소개한다.

변수를 추모하며
그는 조선 최초의 보빙사견미사절단로 미국을 방문했고 1891년 6월에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후 1891년 10월 22일 기차 사고로 사망했다.

암멘 장군 가족과 동급생 일동

윤치호는 변수의 부음을 듣고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의 글을 일기에 남긴다.

"1882~1883년 일본에서 농업계통의 학교에서 수학하였고, 귀국 후 국왕의 은총을 받아 출세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도 김옥균 음모갑신정변에 가담, 정변 실패 후 영원히 해외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여름 워싱턴에서 그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 최신식 유행스타일의 양복을 입은 멋진 신사차림이었다. 4년 만에 메릴랜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월 60달러의 보수를 받고 미국 농무부 농무국 종자과種子課에 취직했고, 이어 미국시민으로 귀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이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나이다. 그러나 자기의 주견主見이 결여된 것이 그의 결점이다."

변수는 1910년 7월 18일 한일강제병합을 얼마 앞두고 종2품 규장각부제학으로 특증된다. 그가 반역자에서 신원伸冤된 것이다.



변수 묘지 전경



변수 묘비 앞면



변수 묘비 근사촬영

6. 보빙사 수원 고영철



고영철(뒷줄 오른쪽 두 번째)

고영철高永喆, 1853~?은 서울에서 대대로 역관을 업으로 하는 중인 집안 출신이다. 한국 근대 개화사상가요 선각자인 추금秋琴 강위姜瑋의 문하생이다. 따라서 고영철은 변수와 함께 강위에게 동문수학한 동지이다. 고영철은 어릴 때부터 강위가 베푼 시회詩會에 당대 명망 높은 지운영池運永 등과 함께 참여하여 그의 어학적 재능을 과시하기도 했다.

1881년 9월 조선정부는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을 청나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영선사란 개항 초기 청나라에 파견된 유학생을 인솔사행引率使行한다는 것이다. 영선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김윤식은 청의 대한對韓 외교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홍장李鴻章을 만나서 다음 두 가지 외교 현안을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비자강책武備自强策을 실현하기 위한 신무기에 관한 학습을 받는 문제와 앞으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연미문제聯美事에 관한 사전교섭이었다. 근대화 운동의 일환책으로 학도·공장工匠 등 청년 기술자를 청나라 천진으로 파견, 기기機器 제조 기술을 학습하고 기예技藝를 배우기 위함이었다.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1881년 11월 17일 학도 25명, 공장 13명 등을 포함하여 총 69명의 사행단을 이끌고 청국으로 향했다. 이는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사행단이었다. 그런데 김윤식은 역관 출신의 학도 고영철을 비서 겸 서기로 선발 동반했다. 김윤식은 "서기 고영철은 노자돈과 선물거리 반찬거리 등을 관장하는 업무를 주관한다"고 그의 임무를 부여할 만큼 그를 전폭 신임했다.

학도 고영철은 김윤식의 서기로 청국에 가서 천진에서 1년간 유학하게 되

었다. 천진에는 어학국語學局을 설치하여 연소 총명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외국어학을 교습하고 있었다. 학도 중에 고영철·조한근趙漢根·김광련金光鍊 등 3명이 선발되어 1882년 2월 5일에 천진 어학국에 입학했다. 그 후 이희민李熙民이 추가로 선발되어 입학함으로써 조선 학생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김광련·조한근·이희민 등 3명은 어학 재능이 부족하여 중도 퇴학 조치되었고, 고영철 홀로 남아 외국어 특히 영어를 열심히 학습했다. 고영철은 그 자신이 역관 출신이라 한문 및 한어(중국어)는 새삼스러이 배울 필요가 없었고, 그 자신이 역관 출신이기에 양창대洋槍隊, 서양식 총기의 훈련도 받지 않고 오로지 외국어 특히 영어 학습에만 열중하였는데 동급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가장 뛰어났다는 것이다.

영선사 김윤식 일행이 청국에 사행하고 있는 동안 국내의 정국은 긴박하게 급변 일로를 치닫고 있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명실상부 완전 개항을 이룩했다. 그해 7월에는 임오군란이 발발, 난군에 의해 일본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공사관원 7명이 살해되고, 하나부사花房義質 일본공사는 일본으로 도망하였고, 민씨 외척세력이 참살당하는 대란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청국은 모든 책임을 대원군에 뒤집어씌우면서 그를 천진으로 납치하고 말았다. 그해 9월 수신사 박영효는 임오군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사행을 단행했다. 이러한 국내 정변으로 말미암아 김윤식은 더 이상 청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882년 12월 15일 학도·공장 등을 거느리고 귀국하고 말았다.

영선사 일행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고영철은 1883년 1월 사과司果, 五衛에 딸린 정6품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해 5월 푸트 주한 미국특명전권공사가 서울에 부임, 정동에 미국공사관을 개설했다. 조미조약 체결로 한미 양국 공사가 상호 상대국 수도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상주공사를 파견하는 것이 외교 관례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서울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했지만, 조선은 재정 궁핍으로 인해 워싱턴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이에 푸트 공사는

그 대안으로 보빙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 조선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빙사를 파미한 것이다. 이때 고영철이 보빙사 수원에 발탁되었다. 이는 김옥균이 민영익을 보빙사 전권 공사에 임명하게 했고 김옥균과 강위 사이의 교분으로 강위의 문하생인 변수·고영철이 수원으로 발탁된 것이다. 고영철이 보빙사 수원으로 선발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역관 출신인데다가 그가 일찍이 영선사 학도로 청국 천진의 어학국에 입학, 영어를 습득했기 때문이다. 보빙사 일행 중 영어를 습득한 사람은 고영철이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고영철은 영어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국은 1860년 천진조약 체결로 개항하면서 외교 및 통상 사무를 관장할 총리아문總理衙門을 설치하고 그 부속기관으로 동문관同文館을 개설했다. 동문관은 외국어와 근대 과학을 교수하는 일종의 외국어 학교이다. 이홍장이 파견한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가 1882년 12월 청국제도를 본받아 제도개혁을 단행, 통리아문統理衙門, 외아문을 설치하고 동문학同文學을 개설했다. 동문학은 일명 통변通辯학교라고도 불렸다. 조미조약 체결로 각국과 통상교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특히 영어 통역인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자 영어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동문학을 개설한 것이다. "동문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한다. 만 15세의 총명한 자제를 뽑아 먼저 외국어문을 학습하고 정치와 경제의 학문을 교습한다."라고 그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문학의 설치와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문학에는 서적을 널리 갖추어 유용한 일을 청구한다. 생도들은 엄히 교습하고 그들에게 엄격한 과제를 부과한다. 장교掌教, 교장 한 사람을 두어 이를 주관하게 하고, 주사主事가 업무를 보좌한다. 서적을 간행하고 신문보관新聞報館을 개설하는데, 그 운영 방법은 동문학절제同文學節制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어 통역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젊고 총명한 어학생 40명을 선발하여 영어·일본어 및 서양의 필산筆算 등을 가르쳤다. 김만식金晩植이 장교에 취임하였고, 동문학은 영어학교English Language School로서 영국인 핼리팩스T. E. Hallifax, 奚來百士가 주무교사로, 중국인 미국 유학생 당소의唐紹儀 오중현吳仲

賢 등이 교사로 일했다. 설립되던 해에 남궁억南宮檍이 입학하여 1884년 최우등으로 졸업하기도 하였다.

고영철은 보빙사 전권부대신 홍영식을 수행, 1883년 12월 귀국했다. 〈뉴욕 헤럴드〉는 보빙사의 방미 성과를 보도하고 있다. "서울을 떠날 때 푸트 공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우리들에게 즐거운 환영회를 베풀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위대한 공공기관을 시찰할 뿐 아니라 증기기관과 전기 시설까지 관람할 것이고, 조선에서 볼 수 없는 기타 많은 풍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친절한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말씀은 현실화되었다. 오히려 푸트 공사가 언급한 것보다도 더 지나치게 우리는 친절하고도 정중한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크게 감탄과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New York Herald,* October 15)

일반적으로 미국사행을 수행하고 돌아온 조선 보빙사 일행 대부분은 정치적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고영철은 처음부터 정치적 야망을 가지지 않았다. 미국사행을 완수하고 1883년 12월 귀국 직후 고영철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에 임명되었다. 독판督辦 김병시金炳始의 외교 실무책임을 맡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문학 주사에도 임명되었다. 이같이 외교 업무의 실무 책임직과 동문학 주사직 등에 이중으로 임명된 배경은 역시 그가 일찍이 청국 천진의 어학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영어습득을 이수했다는 것과 보빙사 수원으로 미국사행을 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선 정부가 보빙사를 파견한 일차적 목적은 조미조약 제2조의 조미 양국 외교관 교환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주목적은 미국의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개화운동을 벌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홍영식은 귀국 즉시 근대화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정부에 고문관·교사·군사교관 등을 고빙하여 정치개혁을 통해 개화사업을 이룩하려고 시도했다. 조선정부는 조선 보빙사 미국사행 직후인 1883년 10월 19일에 푸트 공사에게 직접 고문관·군사교관·교사 등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보빙사가 미국 워싱턴에 가서도 미국 정부에 직접 교사·고문관·군사교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는 실로 의욕적인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러나 국운이 불행하게도 갑신정변 발발로 말미암아 이 같은 교사·고문관·군사교관 파견문제는 무기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교사 고빙은 1886년 7월 5일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길모어G. A. Gilmore, 吉模·벙커D. A. Bunker, 房巨·헐버트H. B. Hulbert, 紇法 등 3명의 미국인 교사를 고빙하여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했던 것이다.

1886년 9월 육영공원의 설립 목적은 "현금 각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어학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따로 육영공원을 설립하고 나이 어리고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한다."라고 어학 위주의 교육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선발 기준은 현직 관료 중에서 선발한 학생과 양반 자제 중에 선발한 학생 35명을 엄선하여 어학, 특히 영어 교육에 역점을 두고 개교한 것이다. 개교 시의 운영을 담당한 관리는 민응식閔應植을 비롯한 훈구척신들이었다. 교사로는 헐버트·벙커·길모어·헬리팩스·허치슨W. du F. Hutchison, 轄治臣 등 5명이다. 교사 명단에 동양인의 이름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철저하게 영어를 전문으로 학습하는 영어학교임을 말해주고 있다. 육영공원은 1894년 정부의 재정 악화와 관심부족으로 폐교하고 말았다. 육영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립 교육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영어교육만을 위주로 한 교육의 한계성과 양반 자제만을 선발한 신분제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폐교된 것이다.

7. 보빙사 수원 현흥택



현흥택(뒷줄 왼쪽 첫 번째)

보빙사의 수행원 가운데 무관으로는 현흥택玄興澤, 생몰연대 미상이 유일한 인물이다. 1895년 이후의 그의 관직은 무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일단 무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원래 외교사절단에는 반드시 무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외교적 관례가 되어 있다. 물론 이때도 이러한 외교관행에 의해 무관 출신인 현흥택이 수행원으로 발탁된 듯 여겨진다. 그런데 현흥택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나 영성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심지어 그의 생몰연대조차 알려진 바 없다.

보빙사 수행원으로 미국사행을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현흥택은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서 더욱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보빙사 일행의 대부분은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거나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러나 현흥택은 정치적 야심이 없었기에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현흥택은 홍영식을 수행하고 귀국 직후 상해로 갔다. 상해로 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약 3개월간 체류하다가 1884년 2월 18일 일단 귀국했다. 귀국 후 정부에서는 민주호와 윤정식을 상해로 국비유학생으로 파견했다. 현흥택은 고종으로부터 내탕금 500냥을 받아가지고 상해 유학생의 유학비용을 주기 위해 파견되었다. 현흥택은 1886년 1월 19일 상해에 도착, 먼저 유학차 상해에 와있는 윤치호를 만났다. 이 당시 민영익은 홍콩에 머물고 있으면서 홍삼 수출권을 독점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었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민영익의 방탕한 해외 생활을 개탄스럽다고 적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채外債는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쇠가죽牛皮 정도에 불과한데, 이

또한 도매의 폐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다. 나라 일이 이같이 창황히 망해 가는데, 민영익은 가히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외방外邦에 나와서 구차스럽게 자기만을 살찌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라고 개탄하면서 민영익의 맹목적 외유생활을 비난하고 있다.

민주호와 윤정식은 청국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885년 5월 상해에 가게 되었다. 그들은 조선정부에서 지급하는 관비 유학생이었다. 이들보다 먼저 상해에 와서 유학하고 있었던 윤치호의 주선으로 이 두 사람은 1885년 10월 중서학원中西學院에 입학, 윤치호와 함께 수학하고 있었다. 현흥택은 고종으로부터 학비조로 하사금 500냥을 받아가지고 민주호와 윤정식에게 주기 위하여 상해로 떠난 것은 1886년 1월이었다. 현흥택이 학비를 가지고 상해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이미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현흥택은 민주호·윤정식이 틀림없이 홍콩에 체류 중인 민영익에게 가있으리라고 확신하고 홍콩에 가보니, 과연 민영익은 이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기식하다가 홍콩은행에 예금해둔 자기돈 1만 6천 냥을 몰래 인출한 후 달아났다는 것이다. 민주호·윤정식은 훔친 돈 4천 냥은 김옥균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변수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

현흥택은 상해·홍콩 등지에서 민영익·윤치호를 만나면서, 민주호·윤정식 학비 전달에 실패한 후 1886년 7월 12일 민영익과 함께 귀국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고종의 하사금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귀국 후 현흥택은 수안遂安 군수를 거쳐 1890년 광무총국鑛務總局 감리가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전승을 거둔 일본은 한반도 지배의 첫 단계로 우선 서울 일원의 군사권을 장악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1895년 5월에 육군의 편제를 재편성하면서 이른바 훈련대訓鍊隊를 설치, 군대를 일본식으로 훈련·육성했다. 2개 대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대대는 492명, 제2대대는 482명으로 조직했다. 주로 수도 서울의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훈련대가 일본군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병력으로서 1895년 7월 17일 700명으

로 조직된 시위대侍衛隊를 창설했다. 미국인 군사교관 다이W. M. Dye, 茶伊 장군이 시위대를 지휘했다. 시위대의 임무에 대해 "시위대를 설치, 궁중을 호위한다. 연대장 및 대·중·소 등 대장을 둔다."라고 설치목적을 밝힌 점으로 보아 시위대는 친일적 훈련대에 대항하여 국왕이 기거하고 있는 경복궁을 경호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이렇게 군제를 개편하고 1895년 6월 17일 칙령 제120 호로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은 훈련대 연대장이 되었고, 부령 현흥택은 시위대 연대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현흥택은 궁중 경호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1895년 9월 4일음 7. 16.이 개국기원開國紀元 경절慶節인 바, 이 기념연회의 행사를 주관하는 장원사장莊園司長에 현흥택을 임명했다. 개국기원 경절을 훌륭하게 치른 공로가 인정되어 현흥택은 종2품으로 승진되었다.

1894년 12월 김홍집 친일 내각이 성립되면서 조선 조정에서는 친일파 세력이 득세,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제 민왕후를 중심으로 한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배일排日세력은 제3세력인 친러 반일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친러파 세력을 형성, 친일파 세력과 항쟁을 벌이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조종을 받고 있는 훈련대와, 다이 장군과 현흥택 연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시위대 사이에 자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양 세력 간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상사가 빈발하였다.

일본군의 앞잡이 훈련대의 침략 위협에 불안을 느낀 고종은 마침내 훈련대를 해산하겠다는 밀지密旨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일본은 친일내각을 앞세워 한반도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군부대신 안경수安駉壽는 '훈련대 해산 밀지'를 사전 입수, 미우라三浦梧樓 일본공사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전승을 거두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했지만, 한반도 정복의 최대 장애는 역시 정동구락부의 중심인물인 민비의 친러파 세력이었다. 친러파 중심인물인 민비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일본의 한반도 정복·지배 성취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확신, 마침내 민비 암살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전 주조선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가 민비시해음모를 수립했고, 신임 미우라 공사가 부임하자마자 이를 실천에 옮겼다. 미우라 공사는 훈련대 해산 소식을 접하고, 만약 훈련대를 해산한 후 민비시해 거사를 단행할 경우, 이른바 마녀사냥은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 마침내 거사 일자를 앞당겨 1895년 10월 8일 민비의 적대세력인 대원군을 앞장세우고 장사壯士, 浪人輩 깡패와 훈련대를 동원, 건청궁을 침입하여 한 나라의 국모 민비閔妃를 시해하고 말았다. 원래 시위대 연대장은 현흥택이었는데 이때 이미 훈련대 연대장인 홍계훈으로 교체되었다. 시위대 연대장 홍계훈은 건청궁乾淸宮을 사수하다가 일본 낭인배에 희생되고 말았다.

김홍집 친일내각이 성립되면서 갑신정변 실패로 미국에 망명 중인 서재필·서광범을 귀국 조치했다. 서광범은 법부대신이 되었고 민비시해가 성사되면서 서광범은 즉각 민비폐서인閔妃廢庶人, 민 왕후를 폐하고 서인으로 삼음조치를 발표했다. 서재필은 김홍집 친일정부에 관여하지 않고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자주독립운동과 근대화운동을 주도했다. 그런데 당시 국내 정치 정세는 친일파와 친러파 간에 민비시해사건을 계기로 대립과 반목이 격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민비시해 발생 직전 친미·친러파 인사들이 연합하여 배일적 정치단체인 정동구락부를 발족했다. 민비를 떠받들고 그 중심인물은 이완용李完用·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채연李采淵·민영환閔泳煥·이범진李範晉·이학균李學均·윤웅렬尹雄烈·현흥택玄興澤 등이다. 이와 같이 현흥택은 배일·친러 정치단체인 정동구락부에 가담하면서 친일 집권세력과 대결하게 되었다.

정동구락부는 마침내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에 유폐되어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고종을 구출하고 김홍집 친일정부를 타도하고 친러정부를 수립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을 저지하려는 구국운동을 일으켰다. 고종을 '정동 외국인 공사관 마을'로 모셔오려는 이른바 고종구출거사를 단행했다. 이리하여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함을 단행, 김홍집 친일정부를 타도하고 이범진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정동구락부의 정치

적 투쟁목표는 친일내각 타도와 국왕 구출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했기 때문에 정동구락부 소속인사들 대부분은 서재필이 주도하고 있는 독립협회獨立協會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현흥택도 이에 가담하여 주권독립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흥택은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적극 가담하면서 개화운동과 주권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이다. 독립협회는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을 거행하는 등 자유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지만 일제의 군사적 탄압으로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8. 보빙사 수원 최경석



최경석(뒷줄 왼쪽 두 번째)

최경석崔景錫, ?~1886은 무관 출신이다. 1883년 5월에 훈련주부訓鍊主簿가 되었으며, 6월에는 보빙사의 미국사행 시 오위장五衛將으로서 수행원에 발탁되어 도미했다. 원래 외국 사절단을 구성할 때는 으레 무관이 그 일원이 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정석으로 되어 있다. 최경석이 어떻게 민영익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는 그 경위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민영익의 의사에 따라 최경석이 무관 수행원에 발탁된 것이다. 이리하여 최경석은 무관 자격으로 보빙사 수원으로 발탁되었다.

1883년 9월 3일 보빙사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부터 현지 신문에서는 최경석을 식물학자로 소개하면서부터 최경석의 임무는 무관이 아니라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경석은 목화 씨앗을 도입하여 농무목축시험장에서 미국산 목화 재배의 원조가 되었다. 9월 20일에 벤담호텔 주인 월코트J.W.Wolcott는 보빙사 일행을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캔턴Canton 소재 월코트농장Wolcott Farm으로 초대했다. 최경석은 월코트 농장을 시찰할 때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농기구에 비상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농장에 있는 서양 낫을 비롯하여 각종 농기구와 그 조작방법을 체험하였고 이어 채소를 비롯하여 각종 작물이 온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정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각종 가축을 기르는 목장에서의 가축사육과정을 관람하였는데, 이때 놀라운 것은 가축의 사료를 제조하는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가축 사료용으로 목초를 썰어서 저장해 두는 원탑형 사일로silo를 보고 이것이 바로 현대식 가축 사육방법이라고 감탄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초를 기르는 화원

도 둘러보았다. 최경석은 이러한 농목축장과 온실 및 화원 그리고 사일로의 사료 저장 방법을 직접 시찰하고 크게 감탄과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날의 월코트 농장 시찰이 곧 최경석으로 하여금 귀국 후 농무목축시험장을 개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관으로서의 최경석의 본분은 민영익 전권공사의 경호를 담당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사행을 통하여 미국의 군사제도, 국방체제와 각종 무기류에 대한 관찰, 병기시설의 배치를 시찰하는 것이 그의 본무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경석은 월코트 농장을 시찰하면서부터 그 자신이 농업전문가답게 장차 조선에도 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해야 함을 통감한 것이다. 군사문제는 홍영식이 담당하였으니 그는 일찍이 1881년 1월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도일, 일본 육군과 군사제도를 시찰하고 귀국, 『일본육군조전』이란 저서를 남겼고 미국사행 시에는 미국 육군의 제도와 국방과 병기의 배치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이를 조선군의 근대화에 도입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같이 홍영식은 미국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뿐만 아니라 병기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자, 최경석은 무관으로서 그의 임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최경석은 평소부터 정치적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제도와 무기류에 관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농업 분야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의 영농방법 등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장차 귀국하면 미국의 과학적 영농방법과 작물 재배 방식을 도입, 이를 본받아 시험농장을 개설, 그자신이 한국 농업근대화의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월코트 농장 시찰을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는 최경석은 직접 미국 농무부를 몇 차례 방문할 때 각종 신품종 종자와 영농에 관한 소책자를 받아 크게 기뻐하면서 미국의 영농기술 도입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민영익은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농업기술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국무장관은 농업기술자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25일에 뉴욕병원을 방문했을 때 최경석은 소아병실에 들어가서 입원 중인 사내 어린이를 침술로 응급치료를 해서 거뜬히 쾌유케 함으로써 좌중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만큼 최경석은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인 것이다. 최경석의 시험농장건설계획안을 처음부터 도와주고 이를 주선해 준 자는 포크G. C. Foulk, 福久 해군무관과 프레이자 상사의 프레이자Everett Frazar, 厚禮節 두 사람이다. 포크는 조선 보빙사를 안내하면서 처음부터 동부 각지로 시찰여행을 주선하면서 월코트 농장 시찰을 하도록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농무부 방문을 직접 주선하면서 각종 작물 종자 및 영농 책자를 얻어 최경석에게 주었고,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자 파견을 주선하는 데 진력했다. 포크 해군무관은 민영익 전권공사를 수행하면서 뉴욕에서 대서양 항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 11월 14일 뉴욕에 있는 미국 전등회사United States Electric Company와 커터 견직물공장 등을 안내해서 시찰케 한 바 있다. 포크는 프레이자를 소개하면서 한미 간 통상교역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프레이자 상사는 아시아 교역을 하는 거상으로서 이미 1883년 4월에 푸트 주조선미국공사를 따라 일본 동경까지 와서 조선과의 통상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거니와, 민영익 일행이 뉴욕을 재방문하자 프레이자는 이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보빙사 일행을 그 자신의 저택으로 초청, 환영연을 베풀었다. 11월 15일 뉴저지 오렌지Orange에서 뉴잉글랜드 협회New England Society 주최 환영연 자리에서 민영익은 프레이자에게 귀국하면 곧 서울에서 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이에 출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프레이자는 면직물·모직물·농기구·철물제품·시계류·석유 등 전시품을 출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영익은 최경석의 시험농장 건설계획안을 설명하면서 프레이자 상사와 각종 농기구를 구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경석은 1883년 10월 24일 홍영식을 수행, 샌프란시스코항을 출항 귀국길에 올랐다. 홍영식 일행은 12월에 귀국·복명한 것이다. 귀국 직후 최경석은 훈련원 첨정僉正이 되었고, 그의 조선 농업근대화 계획에 따라 1884년 농무목축시험장農務牧畜試驗場이 개설되자 그 관리관에 임명되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그

동안 보빙사에게 여러 가지 편의와 호의를 베풀어주었고, 또 민영익과 농기구 구입협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프레이자를 1884년 1월 14일자로 주뉴욕 조선명예총영사에 임명했다. 이는 농무목축시험장에 사용할 각종 농기구 그리고 각종 가축도입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 대상자가 바로 프레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취한 인사 조치였다. 조선정부는 조미조약을 체결했지만 워싱턴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레이자 뉴욕명예총영사는 사실상 주미조선공사의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최경석은 대군주로부터 동대문 밖에 있는 망우리忘憂里 일대의 농경지와 야산을 하사받아 즉시 농장경영에 착수했다. 최경석은 그 자신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얻어온 각종 농작물 종자를 이 농장에 파종·재배하기 시작했다. 각종 채소를 비롯하여 농작물의 작황은 대성공이었다. 한편 1883년 11월에 뉴욕에서 민영익 전권공사와 프레이자 사이에 농기구 구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각종 농기구도 이미 서울에 도착했다. 조선정부가 구매한 농기구를 보면, 벼 베는 기계, 탈곡기, 벼 심는 기계, 인분 뿌리는 분무기계, 저울, 보습·쇠스랑 등 모두 18상자로 그 대금은 운송비와 보험비를 포함하여 미화로 총 751.33달러(한화로 751원 3각 3분)에 이르고 있다. 최경석은 새로 도입한 농기구를 사용, 자신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직접 얻어온 농작물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였으며, 그 결과 첫해의 작황은 풍성했다. 농작물 수확은 일반 식당에 공급하지 않고 전량 신품종 종자로 확보, 파종 및 재배방법을 해설한 안내책자와 함께 전국 305개 군에 널리 배포하면서 1885년 봄부터 본격적인 품종개량을 위해 파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한국 농업사상 획기적인 품종개량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농무목축시험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는 주로 궁내부 및 외국 공사관에 공급되었다.

농무목축시험장은 개설한 첫해에 이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자, 최경석은 더욱 의욕적으로 근대식 영농 목축방식을 도입, 농업 및 목축을 본격적으로 병행 경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농목축 지

식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필요했다. 최경석 자신은 비록 시험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신분상 무관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이에 포크를 통하여 미국인 농장관리관Superintendent of farm을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최경석은 농목축업이 계획대로 추진 발전된다면 이에 한걸음 나아가서 낙농업酪農業을 경영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가축 사육하는 기술, 버터와 치즈를 제조하는 기술, 과수 접목하는 기술 등을 갖춘 농목축 관리기술자를 천거해 줄 것을 푸트 공사에게 요청하면서 월봉은 150달러에 여비를 포함해 6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석은 포크 해군무관을 통하여 미국 농무부에 다량의 신품종 농작물 종자를 구입하는 동시에 우마 등 미국산 가축을 도입하는 절차를 밟았다. 1885년 2월에 미국 농무부 농업국장은 다량의 각종 종자를 송부했다고 포크에게 통고했지만, 수송상의 지체로 말미암아 주문한 종자는 파종 적기에 도착하지 못해 최경석의 영농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구입 주문한 소·말 등 가축은 1885년 4월에 무사히 도착했다. 가축은 정부경영 농목축장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면세통관 혜택을 받아 농무목축시험장에서 사육하기로 했다. 가축 도입과 그 사육에 비상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포크 해군무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 대군주(고종)는 정부농장주 최경석에게 조선 가축과 말을 사육·개량할 목적으로 상당히 넓은 농목축장 부지를 하사했다. 농장주최경석는 캘리포니아산 우량 가축을 구입했던 바, 2개월 만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도착했다. 이 가축 중에는 최우량 암말 2필, 씨말種馬 1필, 뉴저지산 암소젖소 2필, 황소 1필, 왕세자가 탈 셰트랜드종 조랑말 3필, 돼지 8필, 양 25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축들은 젖소를 제외하고는 조선 가축보다 월등 우량하다. 그런데 젖소는 젖을 생산하는 데만 조선 암소보다 우수할 뿐이다. 그래서 젖을 짜는 데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이와 같이 이 농목축장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축 품종이 잘 갖추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이 농장이 조선에게 유익한 농목축장이 되려면 유능한 서양인 농장주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포크는 조선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제2차 연도에는 미국으로부터 각종 가축을 도입함으로써 농목축시험장 경영은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농업과 목축업을 본격적으로 병행 경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낙농업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조선에서 처음부터 펼친 농목축 분야의 개화운동으로서 영농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 농목축발달의 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뜻하지 않게도 농장관리관 최경석이 1886년 급사함으로써 농목축장은 주인 없는 농장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를 주관해서 경영할 후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농무목축시험장은 그후 얼마 안 되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 농업근대화의 꿈을 실현시켜보려고 시도한 최경석의 농목축 개화운동은 이를 실천할 기반과 국민적 관심의 결여, 그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킬 유능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9. 보빙사 수원 우리탕



우리탕(오른쪽 첫 번째)

우리탕吳禮堂, Woo Li Tang, 생몰연대 미상은 이홍장이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파견하여 조선해관을 창설함에 따라 묄렌도르프를 수행해서 내한, 조선해관에서 근무한 중국인이다. 우리탕은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한 인물이다. 1883년 대조선정부가 미국에 최초로 보빙사를 파견할 때 대미 외교 교섭상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서 묄렌도르프의 천거로 우리탕을 보빙사 수원으로 발탁한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상 자주독립국임을 공인받은 것이다. 이홍장李鴻章은 시종일관 조미조약 제1조에 '조선은 청국의 속방이다'라는 속방론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전권 슈펠트R. W. Shufeldt는 속방론 삭제를 고집함으로써 조미조약 체결교섭은 결렬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양국은 일보 양보해서 조미조약 체결 후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별도조회문에 속방론을 명문화하기로 타결, 드디어 1882년 5월 22일 역사적인 조미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 결과 청은 조선에 대한 속방 정책의 패배요, 미국은 대조선 독립국정책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미조약 체결의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홍장과 슈펠트는 천진 북양아문에서 조미조약 조인 전에 조미조약 조인 후 조선국왕이 별도조회문을 작성해서 미국 전권 슈펠트에게 전달, 미국 대통령에게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홍장이 특파한 마건충馬建忠이 제물포에서 조미조약 조인 7일 전에 자신이 작성한 별도조회문을 슈펠트에게 직접 전달했다. 마건충이 작성한 별도조회문에 "조선은 본래부터 중국의 속방이

나 내치·외교는 조선국 군주가 자주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다. 조인 전에 마건충이 별도조회문을 작성·전달한 것은 외교적 배신행위이다. 미청 양측은 조인 전 작성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청국 측은 미국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고 조미조약을 조인했기 때문에 조선은 엄연한 청의 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측은 조선국왕이 입약 전에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고 조미조약을 체결했기에 조선은 속국의 지위로부터 벗어나서 자주독립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방屬邦'이란 이름은 조미 양국 간의 평등한 국가관계 유지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조선국왕이 별도조회문에서 속방론을 명문화한 것이 그후 청의 대한 속방정책의 강화와 대한 내정간섭의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조미조약 입약 2개월 후인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이 발생했다. 조선정부는 군란진압을 위해 스스로 청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국 파병에 자극을 받은 일본이 출병함으로써 조선은 외세 개입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이를 계기로 청은 종래부터 유지해왔던 대한 방임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대한 종주권宗主權 강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홍장은 조미조약 교섭 시 슈펠트에게 속방조항을 삭제하고 조선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오군란 발발을 계기로 청국 군대를 파견함과 동시에 속방론을 재거론하면서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더니 군란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천진 보정부保定府, 이홍장로 납치해 간 것이다. 미국은 청의 대한 내정간섭은 조미조약 체결정신에 위배된다고 규탄하고 있다. "임오군란 발발 한 달 전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미국)로서는 군란 기간 중 한청일 3국이 취한 조치는 약간 불가사의한 점이 없지 않다. 여기에 독립국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조선)에 다른 한 나라(청)가 군사개입을 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내란을 진압, 질서를 회복하고, 고유문告諭文을 발표하면서 왕족 한 사람(대원군)을 문죄하기 위하여 청나라로 구치拘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오히려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고 있다. 주청 미국공사 영J. R. Young은 대원군 납치 때 마건

충의 고유문에는 조선에 대한 청국 황제의 주권종주권·속방론을 확인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조미조약 체결정신과 사실상 상치되고 있다."

1882년 9월 조선 정부는 외국인 고빙을 요청하는 국왕의 자문을 조영하趙寧夏에게 주어 천진 보정부로 파견, 이홍장에게 전달했다. 조선 국왕의 자문咨文, 중국과의 왕복문서에 "우리나라는 서양 각국과 조약체결을 앞두고 교섭·상판商辦할 사건이 많이 있어도 외교를 몰라서 이를 처리할 길이 망연하다. 청컨대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신 이 방면(관세와 외교)에 현명하고도 숙달한 인사를 선발·파견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홍장은 독일인 묄렌도르프P. G. Moellendorff, 穆麟德를 천거했던 것이다. 묄렌도르프는 청국 해관에서 근무했고, 천진영사를 역임한 독일인으로서 서양 각국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통달한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이홍장은 김윤식에게 묄렌도르프를 천거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일본인은 독일을 가장 겁내고 있다. 또한 묄렌도르프를 기피하고 있다. 나는 일본이 귀국을 모욕하는 것을 가장 증오하고 있는 고로 묄렌도르프를 귀국에 보내어 일본을 제지하려 한다. 만약 귀국이 묄렌도르프를 고빙한다면 일본은 감히 그전처럼 자횡恣橫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홍장이 묄렌도르프를 조선에 파견하는 일차적 목적은 일본의 전횡을 제압하고 조선의 해관업무를 장악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종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묄렌도르프는 1882년 12월 4일 이홍장이 추천한 미국 유학생 우리탕吳禮堂·당소의唐紹儀·오중현吳仲賢 등 6명과 함께 서울에 도착·부임했다.

이홍장이 추천한 미국 유학생 6명 중 3명(우리탕·당소의·오중현)은 동문학同文學에서 조선학생들에게 서양 어학을 가르쳤다. 우리탕은 처음에는 인천해관에 배속되어 해관업무를 개시한 지 불과 한 달도 못되어 묄렌도르프의 보빙사 수원 추천을 받아 미국사행길에 올랐다. 미국사행 중 우리탕의 임무는 중국어와 영어 통역을 담당한 것이다. 미국사행을 완수하고 우리탕은 홍영식을 수

행, 1883년 12월 20일에 귀국했다. 〈한성순보漢城旬報〉는 홍영식 일행의 귀국을 이렇게 보도했다. "12월 21일 전권부대신 홍영식이 복명하였다. 부대신 홍영식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거쳐 인천항에 상륙하여 이날 입경하였다. 외국 참찬관 미국인 로웰Lowell과 중국인 우리탕吳禮堂도 함께 왔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교섭은 지난번 교빙交聘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아시아와 미주 두 주 사이에 화호和好가 크게 일어날 일대 국면이다. 우리나라 전권대신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정황을 듣건대, 미국 정부 및 국민들이 다 함께 기꺼이 환대하여 대우가 융숭했다 하니, 참으로 만리 먼 곳의 이웃이고 형제나라라 하겠다. 전권대신의 축사와 미국 대통령의 답사를 보건대 양국 국교에 틈이 없음을 알 수 있겠다."

우리탕은 귀국 후 인천해관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용산龍山 상무위원이 되었다. 우리탕은 해관업무에서 통상업무로 전속되어 청국 총판總辦 조선상무 진수당陳樹棠의 통상업무를 보좌하게 되었다. 묄렌도르프는 조선부임 초에는 이홍장의 대한 속방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차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조러밀약을 주선하는 등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청의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해보려고 진력했다. 묄렌도르프는 임명권자인 이홍장의 대한 속방정책을 무시하고 친러거청親露拒淸 정책을 강구했다. 이로 인해 마침내 이홍장은 1885년 9월 묄렌도르프를 해임·소환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탕은 묄렌도르프와 함께 본국으로 소환되지 않고 계속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탕은 1889년 7월 원산 상무위원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임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인천에서 영주했다.

우리탕은 전권부대신 홍영식을 수행하고 귀국 직후 인천해관에 복귀 근무하게 되었다. 1884년 3월 미국 아서 대통령이 대한 정책을 밝힌 연설에서도 미국의 대한 독립국정책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서 대통령은 "조선은 상하가 한 마음으로 우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미국은 조선을 개명開明시킬 것을 기약하며, 우리는 가벼이 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외국이 조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우리 미국은 힘껏 보호하여 영원히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이다."라고

조선의 주권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서 대통령의 '조선주권 보호 약속' 은 바로 조미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 공약'에 근거하고 있다. 조미조약 제1조에 "미국은 거중조정good offices, 從中善爲調處 공약을 성실히 준수하며 어떠한 외국이라도 조선 문제에 개입, 조선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고 업신여겨 모욕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간섭을 자행할 경우 단호히 이를 저지하고 조선의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아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한對韓 정책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 조선과의 화친조약은 이미 비준을 거친 상태이며 다가오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의 사신푸트 공사을 서울에 주재하게 하고, 교환조로 대조선 사신도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다(조선 보빙사의 미국사행). 대조선국은 건국 이래로 오로지 스스로를 지킬 줄이나 알았지 외교에는 익숙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점차로 시세를 깨닫고 공작工作의 이익과 무역의 편리함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으니 역시 축하할 만한 일이니 본인도 대조선국에 대해서는 이익만을 강구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통상의 여러 업무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실시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의 무역은 별도로 취급할 생각에서이다. 만약 대조선의 신민臣民이 우리들과 서로 인연을 맺을 뜻이 있어서 서로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우리도 이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권리를 침략해서 강탈하는 행동이 있다면 자웅을 결단해서라도 대조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대조선에 대한 어느 나라의 침탈행위"란 바로 청의 대한 종주권 강화 정책에 의한 대한 내정간섭을 일컫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청의 이 같은 대한 주권침해 행위를 경고하면서 조미조약 정신에 따라 조선을 제3국 즉 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우리탕은 인천해관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이어서 용산·원산 상무위원을 역임하면서 재산을 축재하더니 1890년경 은퇴, 이후부터 부동산업과 고리대

금업으로 치부하여 인천 재주 외국인 중 가장 거부가 되었다. 우리탕은 묄렌도르프를 따라 내한하기 전에는 일찍이 주 스페인 청국공사관 서기관으로 근무 중 스페인 여자와 결혼하여 영어 및 스페인어에 능통한 인물이다. 그는 은퇴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인천에서 영주하면서 1909년에 엄청난 규모의 양관을 신축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우리탕 저택Woo Li Tang House라 불리고 있다. 세창양행世昌洋行, Edward and Meyer Co.의 독일인 쉬르바움P. Schirbaum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탕은 대한제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 1909년 그의 스페인 부인의 소원에 따라 이 같은 호화 양관을 건축한 후 인천 주재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 저택 준공 피로연을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탕 묘비 전경



우리탕 안내문



우리탕 묘비석



우리탕 묘비 앞면

10. 외교 서기관 로웰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로웰(왼쪽에서 세 번째)

보빙사의 미국사행을 적극 주선했던 푸트 주조선미국공사는 조선으로서는 최초의 견미사절이고 외교업무를 전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사행의 외교절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어 빙햄J. A. Bingham 주일 미국공사에게 보빙사를 안내할 외교 서기관·참찬관을 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빙햄 공사는 즉각 인선작업에 착수했는데 의외로 희망자가 많았다.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자가 주르당P. Jourdan, 造端이었다. 보빙사가 1883년 9월 3일 미국 상항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로 미국 현지신문은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은 주르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Foreign Secretary'에 임명된 주르당은 오랫동안 일본 동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괴상한 특성을 지닌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특히 일본 골동품 수집광이며, 일본에서 귀중한 문화재를 다량 수집해서 본국으로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동경에 있는 그의 저택에는 값지고 진귀한 도자기, 서화, 칠기, 청동제품 등 일본 고문화재가 다량 소장되어 있는 바,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값진 일본 골동품은 워싱턴으로 이송될 것이며, 이제 우리는 가장 훌륭한 동양 골동품 수집을 관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르당의 독신 홀은 수많은 미적 순례자의 메카가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New York Times*, September 3, 1883)

이렇듯 빙햄 공사는 주르당을 보빙사 서기관에 임명하고 본국 정부에 임명사실을 통고함으로써 미국 각 신문에는 주르당이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에 임명되어 조선 보빙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주르당 자

신이 개인적 사정으로 서기관 임명 수락을 사양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빙햄 공사가 주르당보다도 더 적격의 인물을 물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몰라도 하룻밤 사이에 서기관은 로웰Percival Lowell, 魯越, 1855~1916로 교체되었다. 김옥균의 말에 의하면, 당초에 민영익 전권대신과 빙햄 공사 간에 보빙사의 서기관으로 주르당을 보임補任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로웰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가 무슨 이유로 또 어떤 동기로 주르당 인선을 반대했는지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주르당이 반일 감정을 가진 인물이 아닐지 모를 일이다. 새로 임명된 로웰은 전후 일본에 10년간(1883~1893)이나 장기간 체재하면서 일본문화에 대해 심취, 일본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저서를 남겼기 때문이다.

어쨌든 빙햄 공사는 로웰을 보빙사 서기관의 적격자로 판단, 민영익을 설득 교섭 끝에 보빙사 외교 서기관에 임명하는 외교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당시 로웰은 일본 전국 여행답사를 끝내고 8월 13일 막 동경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같은 보빙사 외교 서기관 임명제의를 받고 즉각 이를 수락했다. 빙햄 공사는 로웰로부터 수락동의를 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민영익 전권대신에게 정식 보고하자, 민영익은 8월 18일자 프릴링하이젠F. T. Frelinghuysen 국무장관에게 로웰 서기관 임명 사실을 통고한 것이다.

> 본인은 대군주(고종)의 명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며 미국과 친밀한 우호관계가수립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외교에 정통한 유능한 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웰은 조선의 관습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총명한 지성인으로서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를 '서기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의 임명을 사양하지 않고 수락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인을 위해 친절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 임명장을 그에게 전달하면, 그는 조선 보빙사의 임무에 관련된 제반 외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충고와 원조로서 도와

줄 것입니다. 그는 본인의 이러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에 임명장을 로웰 씨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리하여 로웰은 보빙사를 미국까지 안내하면서 전반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로웰은 1855년 3월 13일 보스턴에서 뉴잉글랜드의 부유한 명문가인 아우구스투스Augustus Lowell와 비겔로우Katharine Bigelow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 빅토리아적인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보스턴적인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로웰가의 가훈은 "너의 기회를 잡으라Occasionem Cognosce, seize your opportunity"이다. 이러한 가훈이 로웰로 하여금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역사, 생애 후반기에는 특히 천문학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등 폭넓은 학문영역을 종횡무진하게 했다.

로웰은 노블고등학교를 거쳐 1872년 하버드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4년간 하버드대학을 수학할 때, 그는 수학·물리학·고전학·역사학 등 다방면의 학문 세계를 편력·이수했다. 로웰은 이 같이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학문연구의 의욕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학, 특히 외국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이를 기반으로 그의 문장력은 저술가의 장래를 약속했다. 대학 졸업반 때 그는 "엘리자베스 서거부터 앤 서거까지의 유럽 국가로서의 영국의 지위(The Rank of England as a European Power from the Death of Elizabeth to the Death of Anne)"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보두인 상Bowdoin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성운설星雲說, The Nebular Hypothesis'을 주장, 천문학계에 신이론을 제창하기도 했다. 로렌스A. Lawrence Lowell는 그의 동생으로서 그 후 하버드대학 총장이 되었고, 로웰의 전기를 남겼는 바, 로렌스에 의하면 로웰은 하버드대학을 수석 졸업했다는 것이다.

1876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로웰은 유럽·중동 등지로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평소부터 외국 여행을 좋아했는데, 단짝 친구인 애모리H. Amory와 함

께 영국 여행을 끝낸 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걸친 광범위한 중동여행을 즐겼다. 여기서 로웰은 터키(현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간의 전쟁을 목격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기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77년 여름 귀국, 조부가 경영하고 있는 신탁자금사업을 도와 기업을 크게 번창시키기도 했다. 로웰은 조부 사업뿐만 아니라 방직공장, 전기회사 등에도 관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웰로서는 오랫동안 조부의 사업에만 얽매어 살 수 없었다. 이제 그의 꿈은 극동여행이었다. 후진된 국가이지만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일본은 진정 흥분과 환희를 주리라고 확신하고 일본여행을 결심했다. 이리하여 1883년 봄 동아시아 여행길에 올랐다. 일본 동경에 도착한 로웰은 하인이 딸린 집을 세내어 살면서 일본 각지를 여행하면서 일본 국민의 관습, 다도茶道, 일본식 정원, 미술 등 일본문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의 고유한 종교인 신도사상秘教的 神道思想, Esoteric Shinto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는 타고난 어학의 재능을 발휘, 단기간 일본어를 습득,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내륙지방 여행을 끝내고 동경으로 돌아온 것은 1883년 8월 13일이었다. 로웰은 장차 캄차카 반도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 당시 빙햄 주일미국공사는 처음에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으로 주르당을 내정했지만, 본인의 사양으로 적격의 인물을 물색하던 차였다. 때마침 동경으로 돌아온 로웰에게 그의 친구 비겔로우W. S. Bigelow를 통하여 조선 보빙사 '서기관직' 천거교섭을 벌였다. 처음에는 로웰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비겔로우의 끈질긴 설득과 권유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비겔로우는 로웰을 추천하면서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불신하고 있다. 그는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재빨리 일본어를 습득했다. 그는 이제 과학이든 외교 업무든 양단간 이를 떠맡아서 성공적으로 수행, 그의 능력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로웰의 잠재적인 외교수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어 비겔로우는 본국에 있는 로웰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로웰의 보빙사 외교 서기관 수락 과정을 전하고 있다.

> 이틀 동안 무조건 수락을 거부하다가 퍼시Percy, 로웰의 애칭는 마침내 이 곳 주일미국공사 빙햄의 요청을 수락, 조선 보빙사 '외교 서기관 및 고문관Foreign Secretary and General Counsellor'에 임명되었다. 이 직책은 사실상 일본 개항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는 한 신생국가(조선)의 서기관인 만큼 그 임무는 중차대할 뿐만 아니라 퍼시는 조선 보빙사의 전반적 외교업무를 감리監理하게 되어 있다. 이곳 미국공사관 당국으로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인물을 확보한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재일在日 미국 인사 가운데 조선 보빙사 서기관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었다.(Lawrence, *Biography of Fercival Lowell*, pp.12~13)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최초의 외국에 파견하는 사절단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보빙사를 보살펴줄 '수완 있는 인사someone with savoir faire'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로웰을 서기관으로 채용한 것이다.

조선 보빙사의 사절인원은 총 11명이었다. 로웰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발할 때,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를 그의 개인비서로 동반하게 했다. 한편 로웰 서기관이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에 보고한 조선 보빙사 명단 11명 중에는 미야오카의 이름이 빠져있다. 서기관에 임명된 로웰은 일본 동경에서부터 미국까지 보빙사를 인솔하고 가는데 사실상 그는 보빙사의 외교업무를 총할總轄·주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로웰은 보빙사 일행을 인솔하고 요코하마항을 출항,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사전에 푸트 공사는 보빙사 일행을 환대해 줄 것을 조처했기에 상항에서 융숭한 환대를 받은 것이다. 〈한성순보〉는 이 같은 환대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이전에 조선이 서로 통한 나라는 다만 중국과 일본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서양의 정세를 알고 내외의 소식을 참고하고는 비로소 발전에 분발하여 하루 속히 자강自强의 길을 도모하는가 하면, 인품人品의 영리함이 구미 사람들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상항桑港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러 나라의 정체政體를 파악하고 또 교제의 사무를 채택하였으며, 군사와 농업, 광업과 직물업 등까지도 모두 마음을 다하여 강구하였으니, 이들에게는 활발성 있는 정신과 개발성 있는 충정을 가졌다고 이를 만하다. 그런고로 우리 정부에서 저절로 감탄하여 융숭한 대우를 베풀고 있다.(한성순보 제5호, 개국 492. 11. 10., 1883. 11. 10.)

조선 보빙사 국서 제정식에서부터 동부 지방 산업시찰여행에 이르기까지 로웰은 시종일관 재치 있는 외교적 수완력을 발휘, 미국사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특히 로웰은 보빙사 일행을 동부의 미국 산업혁명의 메카인 로웰 공업지대와 산업 생산업체를 순방하는 데 안내역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와 같이 산업시찰을 완수하고 나서 1883년 10월 12일 아서 대통령을 예방, 고별인사를 나누었다. 〈뉴욕타임스〉는 고별인사를 신속히 보도했다. "조선 보빙사 일행은 오늘 백악관을 예방,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고별인사를 했다. 메이슨Mason·포크 해군무관이 수행했다.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서 대통령은 블루 팔로Blue Parlor에서 조선 보빙사를 영접했다. 대통령에 대한 인사는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에 의해 거행되었다. 조선 사절단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워싱턴을 출발, 상항으로 가게 된다. 거기서 증기선을 타고 10월 24일 귀국하게 된다."(*New York Times,* October 13, 1883)

로웰 서기관은 홍영식 전권부대신을 따라 상항을 거쳐 일본 동경에 도착, 며칠간 체류했다. 대조선국 대군주는 로웰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를 '대조선국 대군주의 빈객the guest of the King'으로 초청, 1883년 12월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로웰은 제물포에 도착,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 나라를 조금 공부하고 나서 내륙지방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육로로 일본의 개항장

인 부산·원산까지 여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점으로 보아 로웰은 조선의 실상을 현지 답사한 후 견문기를 남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내륙 지방여행은 교통시설의 미비로 어렵다는 것, 더군다나 서양인으로서 육로여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내륙지방여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홍영식 전권부대신은 로웰 서기관, 로웰 개인비서 미야오카, 일본인 요리사, 그리고 청국인 우리탕, 조선인 수행원 최경석·고영철·현흥택 등을 거느리고 무사히 귀국했다. 홍영식 일행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항행 도중 나가사키항에 기항했을 때, 홍영식은 로웰을 위해 특별히 일본인 서양 요리사를 채용했다. 이는 로웰이 대조선국 대군주의 초청을 받아 입국한 최초의 서양인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로웰은 조선정부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심지어 음력 설날에는 대군주로부터 푸짐한 선물하사품을 받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푸트 공사는 공사 관저에 숙식할 것을 제의했으나 로웰은 정치적으로 연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리아문 소속의 한 단독 한옥을 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로웰의 3개월 체한기간(1883. 12. 20.~1884. 3. 18.) 윤치호가 통역을 담당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를 안내하게 되었다.

로웰은 일본에서 조선 보빙사 서기관에 임명될 때부터 미국사행 그리고 내한 후 3개월 체한 중 홍영식과 행동을 같이했기 때문에 홍영식의 정치 성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 급진개화파 영수 홍영식의 정치 개혁 의지를 간파할 수 있었다. 로웰 체한 기간 중 민영익 보빙사 일행은 유럽 각국 순방 중이어서 귀국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조선에는 두 개의 민족적 정파national parties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다시피 어쨌든 간에 이 양파 간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했다. 극동에 나와 보니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사들이 주재국의 정치에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로웰은 급진개화파와 수구 사대파 간의 정치적 갈등과 반목, 그리고 강대국 주재 공사들의 대한 내정간섭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단독 한옥에서의 생활은 로웰에게는 신비감을 느낄 만큼 고적하고도 평온한 생활이었다. 그는 한옥의 가옥구조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거리로부터 한옥 안뜰로 들어서면 또 다른 안마당이 나오고, 안마당 끝에 담장이 꾸불꾸불 둘러 있는데, 이곳에 일단 들어오면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스스로 미궁에 들어온 기분이다. 앞에는 아담한 정원이 펼쳐있고, 그 뒤쪽으로는 주랑柱廊 현관이 둘러싸고 있다. 안뜰, 마당정원, 주랑현관, 온돌방, 회랑回廊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환상적인 미궁에 빠지고 만다.” 이어 온돌방에 대해 “방바닥 천장 벽 모두가 조선종이 한지로 발라져 있다. 방바닥에는 정사각형 석판石板, stone slabs, 장판을 깔아 놓은 듯 보였는데, 사람이 이 방바닥 장판을 밟고 다니면 발 딛는 소리가 마치 깃발 펄럭이는 소리가 난다. 방바닥에는 기름종이 장판을 깔아놓았는데 아주 단단했다. 두터운 밀창을 통하여 황금빛 찬란한 햇살이 방안을 비추고 있어서 한층 신비롭다.”라고 감탄하고 있다.

로웰은 전후 만 3개월간 체한했는데 주로 윤치호가 통역·접대를 맡아 로웰을 서울 근교까지 시찰여행을 안내했다. 로웰은 조선인의 생활양식mode of life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에는 3대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한국인은 ‘개성의 결여the quality of impersonality’라고 불릴 만큼 개성적 변화personal variation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가 한국의 가족제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의 삼강오륜三綱五倫 사회원리의 최고 덕목으로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 배제원칙principle of exclusion’이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 사실상 조선시대에는 여성은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갇혀 사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며, 심지어 자기의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하다. 로웰은 이상 3대 원리가 조선의 양반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로웰은 홍영식과 푸트 공사와 함께 경복궁으로 입궐, 대군주를 배알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대군주를 배알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셋이었다. 홍영식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미국 공사 푸트,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서서 일렬로 나아갔다. 우리 일행이 편전 계단 꼭대기에 대군주가 앉아 있는 용상龍床 앞에 들어가자, 홍영식은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대군주께 큰 절을 세 번 배례한 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인들이 대군주를 배알할 때 일상적으로 행하는 예법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연속되는 세 번의 절 가운데 첫 번째 절을 시작했으며, 그다음 교대로 절을 두 번씩 한 후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대군주 앞으로 나아갔다. 알현하는 동안 대군주와 우리 사이에 몇 마디 인사말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었을 뿐이다. 대군주와 자리를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는 것만이 최대의 효과는 아니다. 배알을 끝내고 나올 때도 똑같은 절차로 세 번 절한 후 뒷걸음으로 물러서 나왔다. 대군주를 향하여 등을 보이는 것은 왕가의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왕세자를 알현했다.

이날은 날씨가 지독히 추웠기 때문에 내 근육은 보통 상황하에서보다 더욱 추위에 움츠러들었다. 푸트 공사는 날씨가 너무나 혹독히 추워서 이미 걸린 감기가 더 심해질까 염려되어 왕세자 '알현 고역'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홍영식과 나 둘만이 왕세자를 알현했다. 우리는 알현의식을 끝내고 대기실로 나와 차 대접을 받았다. 이것으로 모든 배알의식은 끝난 것이다. 우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대기실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엄청나게 넓은 궁정 뜰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Lowell, Choson:The Land of the Morning Calm, pp.153~161)

홍영식은 푸트 공사와 로웰과 함께 대군주와 왕세자에게 배알한 후 로웰과 함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서울 근교에 걸친 관광 답사를 실시했다. 로웰은 채한 3개월 동안(1883.12.20.~1884.3.18.) 홍영식·최경석·윤치호 등 정부 고위 관리의 안내를 받으며 서울의 명승고적을 세밀하게 답사·관광하는 동시

에, 그 당시의 서울의 풍속·습관 등 일반 서민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했다. 특히 로웰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여행을 하면서 조선의 풍물風物을 담은 귀중한 개화기 사진자료를 남겼다. 이는 개화기 조선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로웰은 보빙사의 외교 서기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조선의 대미 자주외교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로 조선정부로부터 3천 원의 은사금恩賜金을 받았다. 1884년 3월 17일 윤치호의 안내로 대군주께 고별인사를 나누고, 민영익 전권대신의 귀국을 보지 못한 채 3월 18일 서울을 출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경유 일본으로 돌아갔다. 조선 체재 3개월 동안 로웰은 조선의 관습, 정치, 제도, 종교, 문화 등 광범위한 견문을 바탕으로 1886년 『조선: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견문기를 발간했다. 로웰은 묄렌도르프, 동문학 영어교사 헬리팩스 그리고 그의 개인비서 미야오카 등 3인의 조언과 자료제공을 바탕으로 하여 이 견문기를 저술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개화기에 있어서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라고 일컬어왔는데 이는 바로 로웰의 견문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로웰은 장장 10년간(1883~1893)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문화 연구에 몰두했다. 동양문화와 일본정신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 끝에 『극동의 정신』(Soul of Far East, 1888)를 저술했다. 허언L. Hearn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놓치지 말고 읽을 것이며, 독서를 미루지도 말아라. 왜냐 하면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로웰은 이어 일본문화 특히 일본의 전통사상인 신도사상神道思想, Shintoism에 심취, 연구 끝에 『일본의 신비』(Occult Japan, 1895) 등 무게 있는 저서를 남겼다.

1893년 귀국하고부터는 천문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대학 입학 전인 1870년 친구 맥퍼슨H. Macpher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화성 관찰에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귀국 후 로웰은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G. V. Schiaparelli, 1835~1910가 '화성 운하설(1877)'을 제창하자 이에 자극을 받고 본격적

인 화성탐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로웰은 화성을 관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시력good seeing'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 책이라고 확신하고, 물색한 끝에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 자비로 천문관측소Arizona Lowell Observatory를 세우고 24인치 망원경을 설치, 화성 관찰에 몰두했다. 여기서 화성을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는 운하형의 성군星群을 관찰한 후, 초인간super-beings의 종족기원론種族起源論을 정립했다. 이후부터 천문학자들은 로웰의 이론을 원용하게 되었다.

드디어 로웰은 화성에 '지능적 생명체 존재the abode of intelligent life' 가능성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자연계에 대한 수학적, 관측적 어프로치로 종합적 연구를 거듭한 끝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천체를 아홉 번째 발견하였는데, 그는 이 천체가 태양 궤도를 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리하여 1916년 그가 세상을 뜨기 직전에 우연히 해왕성海王星, Neptune 궤도의 관측값이 계산값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해왕성 바깥쪽에 또 다른 하나의 '미지의 X-행성Planet X' 즉 명왕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의 사후 14년 후 로웰 천문대원인 톰보C. W. Tombauch는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명왕성冥王星, Pluto을 발견하게 되었다. 별 이름의 첫 두 글자 P와 L은 바로 'Percival Lowell'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명명했다. 로웰의 명왕성 발견을 기념하기 위한 별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천문학에 관한 저서로는 『화성과 화성운하』(Mars and Its Canal, 1906), 『행성의 기원』(The Genesis of the Planets, 1916) 등이 있다.



아리조나주 로웰천문대 내 로웰 묘

여 백

p.115-116

Ⅳ. 주미 조선(대한제국) 공사관 파견과 활동

1.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2. 초대 주미공사관 참찬관 이완용

3.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하영

4.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5. 4대 주미서리공사 이채연과 부인의 미국 활동

6. 주미공사 수행비서 강진희

7.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참서관 박승봉

8.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서기관 이의담

9. 주미공사 조민희

10. 주미공사 서광범

11. 서리공사 김윤정

Ⅳ. 주미 조선(대한제국) 공사관 파견과 활동

1.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



박정양

박정양朴定陽, 1841~1905은 1841년 12월 24일 서울 돈의문 밖 근동芹洞, 충정로 3가 부근 외가에서 박제근朴齊近과 정경부인 한산韓山 이씨 사이에서 4대 독자로 태어났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출생한 지 4일 뒤 아명을 희증喜曾으로, 1855년 관례를 치르면서 이름을 회양晦陽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정양으로 개명하였다. 자는 치중致中이며 호는 죽천竹泉이다.

그의 본관인 반남박씨는 조선시대 노론의 명문거족으로 문과급제자를 200여 명 배출하였는데, 그중에 7명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역임하였다. 박정양의 부친 박제근은 1834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내외직을 맡으면서 청백리로 인정받았으며, 강화도조약 체결 시 강화부판관으로 발탁되어 활약하였다.

박정양은 1866년 문과 병과에 급제한 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온건한 성향의 실무형 개혁파 관료로서 정부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주서로 관직을 시작하여 한림·별겸춘추·부교리·종친부정·부응교·응교·승지 등을 거쳤다. 1874년에는 조선시대에 마지막으로 전국에 암행어사가 파견되었을 때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었고,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의 조사朝士로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한 뒤 통리기무아문 당상이 되었으며, 고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이후 1882년 성균관 대사성·이조참판·좌승지 등을 거쳐 한성부좌윤·기

기국총판機器局總辦·통리군국사무아문·사헌부대사헌·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도승지 등을 지내면서 자주 독립외교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고종은 청국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1887년 7월에 도승지 민영준閔泳駿을 주일판리공사駐日辦理公使로 임명하고, 1887년 8월 1일에 일본으로 부임시켰다. 민영준 주일본공사 파견의 예와 같이 조선 정부는 청국에 사전 보고 없이 주일공사를 임명·부임시켰음에도 청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고종은 자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1887년 8월 18일에 협판내무부사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주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전권공사로 내아문 협판 심상학沈相學을 임명한다. 고종이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할 전권공사를 임명하자, 청국은 조선이 원래 자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양 일행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또, 국내에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김홍집金弘集, 김병시金炳始, 민응식閔應植 등 친청 대신들도 반대에 나선다. 즉, 외교 고문관 데니와 민영익은 전권공사의 파견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심순택, 김병시, 김홍집, 민응식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 정부의 대신들이 반대하면서, 조선과 청국 관계를 중시하는 '친청' 세력과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연미聯美'가 충돌한 것이다.

여러 대신들이 반대한 이유로 청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의미하는 청국과의 관계 악화는 외교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고종이 미국과 '연미'를 모색하는 것을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로 상징되는 기존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신하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8월 7일 박정양, 이완용 등에게 사폐辭陛, 외국으로 떠나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하직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훈유訓諭를 내렸다.

> 짐은 경이 원래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일처리가 치밀하여 정성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도에 주차駐箚하는 전권대신으로

특파하는 바이다. 경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와 친목과 화호를 도모하는 데 힘쓸 것이며, 일을 논의할 때 모가 나지 않도록 하여 타협을 이룩토록 하고, 반드시 견문을 넓히되 우리나라 사정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라. 아울러 우리나라 상민商民 가운데 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자를 보호해주며, 특별히 통상을 일으키는 방도도 강구토록 하여라. 그 나라 정부와 인민의 정형情形도 수시로 설법說法, 채방採訪하며 그 나라에 주차하고 있는 중국 및 각국 공사·영사들과도 친밀히 교제하고, 또 각국의 사정을 자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라. 이것이 짐이 바라는 바이다.

청은 주미조선공사 파견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강경하게 저지하였지만, 고종의 강력한 파견의지와 미국 정부의 반박 등을 고려하여 9월 26일 박 공사가 임지에서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응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초대 주미 공사관 파견 인원으로는 전권공사 박정양을 비롯하여 참찬관 이완용, 서기관 이하영, 일등서기관 이상재, 번역관 이채연, 수원 강진희, 진사 이헌용, 무변 이종하, 종자 김노미, 종자 허용업, 참찬관 미국인 알렌Horace N. Allen 등 총 11명이었다.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는 주미공사 박정양 일행(1888.1.17.)

박정양 일행은 일본에 도착한 뒤 홍콩에 들러 민영익을 만나 공사파견에 대해 상의하고 자금을 요청했으며,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하와이를 거쳐 1888년 1월 미국에 상륙한 뒤 기차로 대륙을 횡단하여 1월 9일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1월 15일 그는 파미의 전제조건이었던 영약삼단을 어긴

채 이완용 등을 대동하고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였으며 공사관을 개설하였다. 공사관 건물 옥상에는 자주독립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박정양은 워싱턴주재 중 알렌의 도움을 받아 데이비스Robert H. Davis와 프레이저Everette Frazer를 각각 필라델피아와 뉴욕영사로 임명하고 각국의 외교관들과 교류하는 등 자주외교를 전개하였으며, 광산기술자를 초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미국으로 200만 불의 차관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의 횡포를 응징하기 위해 부산 등 3항구의 관세를 저당으로 미국의 차관을 얻어낸 다음 그 자금으로 미국에 청병하려 했던 것이다. 그가 조선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미국인과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그는 각종 공식 외교 행사와 연회에 참석하고 미국의 공공기관과 시설을 시찰함으로써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견문·시찰한 내용을 『미행일기美行日記』 등에 꼼꼼하게 기록하였으며,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미속습유美俗拾遺』(1888)를 집필하였다. 『서유견문』보다 1년 앞서 탈고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견문기로 평가받는 『미속습유』는 총 90쪽, 44개 항목에 걸쳐 미국의 역사와 문물·제도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개·논평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이 처한 국내외 상황과 연관지어 파악하였다. 『미속습유』는 귀국 후 국왕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 간에 읽혀져 미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초대 공사 박정양이 직접 경험한 미국의 다양한 법률, 제도, 관습 등을 살펴보자.

당시 미국의 주요 6대 경축일은 New Year's Day(1월 1일)를 포함하여 초대 대통령 화성돈(조지 워싱턴)의 탄생일(2월 22일), 알링턴安陵頓 국립묘지 조혼일弔魂日인 Memorial Day(5월 30일), 독립기념일인 Independence Day(7월 4일), 사식일賜食日인 Thanksgiving Day(11월 마지막 목요일), 마지

막으로 예수耶穌의 생일인 Christmas(12월 25일) 등이었다. 이 경축일 중에서도 1879년부터 미국 초대 대통령 화성돈의 생일인 2월 22일을 경축일로 지정해 존경과 함께 숭상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화성돈의 이름을 미국 수도 이름(Washington DC)과 기념비명(Washington Monument)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했지만 대통령의 생일을 경축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이 남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수도명은 초대 대통령 화성돈으로…

1월 4일 샌프란시스코만 오클랜드屋嵩에서 출발한 대륙횡단 열차는 조선 외교관 일행을 태우고 밤낮으로 달려 마침내 부임지인 화성돈華盛頓에 1월 9일 도착하는데, 박정양은 『미행일기』에 미국 수도 화성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화성돈은 미국의 수도이며, 컬럼비아주古倫飛亞州에 속한 지방이다. 서기 1800년에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多馬遮費孫(실제 당시 대통령은 제2대 존 애덤스John Adams임)가 필라델피아匹羅達皮阿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미국이 당초 독립할 때에 공을 세운 대통령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이름으로 이 수도의 이름을 붙였다.

박정양 공사는 화성돈 생일인 2월 22일자 『미행일기』와 『미속습유』에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 화성돈에 대한 인물평을 자세히 적고 있다.

"미국 평민으로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1775년에 원수元帥로 추대되어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독립한 1776년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라며 미국 독립전쟁을 매우 높게 평가했는데, 당시 박 공사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국서 봉정이나 신임장 제정 시 청국과 '영약삼단' 조항으로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하면 '영국과 전쟁을 벌여 독립한' 화성돈의 성과에 그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습 군위君位를 허락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민의民議에 따라 선거選擧하였다. 대개 미국이 민주·독립을 이룩한 것은 화성돈으로부터 비롯된다"라며 대통령 세습제 제한과 선거를 통한 대통령 임기제 정착에 대해 모든 공로를 화성돈에게 돌린다. 이러한 박정양의 화성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화성돈의 생가 Mount Vernon 및 화성돈 기념비Washington Monument 방문으로 이어진다.

1888년 4월 26일 박정양 공사는 서기관 이하영, 수원 강진희, 무변 이종하와 알렌 가족을 대동하고 화성돈의 생가인 마운트 버논馬隱浦을 방문한다. 참찬관 이완용은 4월 21일 병을 이유로 번역관 이채연과 진사 이헌용, 노자 허용업과 함께 화성돈을 떠난 상황이라 함께하지는 못했다.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출발한 일행은 포토맥강에서 기선Steamboat을 타고 마운트 버논까지 75리, 약 30㎞ 떨어진 거리를 방문한다.

> 워싱턴의 옛집을 보았다. 평소에 거주하는 곳인데, 방 안의 일용하던 기구에서 화원과 운동장까지 살아 있을 때 그대로 보존하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현재 사는 것처럼 만들었다. 또 서거할 때의 혼령자리靈筵 등도 끝내 철거하지 않았다. 집 앞에 묘가 있는데 흙으로 메우지 않고 별도로 작은 집 하나를 지어서 쇠창살을 둘렀으며 그 안에 두 개의 관을 안치하였다. 이는 부부의 묘인데, 돌로 관을 만들고 관 위에 꽃을 놓았으며, 꽃이 시들면 반드시 갈아놓는다. 지금으로부터 100년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금도 착오가 없다고 하니 오랫동안 추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수호한다. 또 그 집 밖에는 자손들이 잇대어 무덤을 썼으며, 후예들이 번성하여 그 근처에 살면서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조지 워싱턴 생가 방문(1888년 4월 26일)
왼쪽부터 무변 이종하, 주미공사 박정양, 수원 강진희, 서기관 이하영



조지 워싱턴 생가 방명록(1888년 4월 26일)

화성돈 기념비에 올라 가족과 고국을 그리워하다

주미공사 박정양은 10월 11일 본인의 병이 심각한 이유를 들어 고종에게 환국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낸다. 이틀 후 고국의 중양重陽을 맞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가족과 고국이 그리워 높은 곳에 올라 고향을 바라보고자 공사관 원들과 외교 참찬관 알렌을 데리고 공사관 밖으로 나들이에 나선다. 그는 화성돈의 거리를 보며 '낙엽이 길에 가득 찼고, 마른 풀이 한길에 줄지어 있으니, 눈에 가을빛이 가득하여 더욱 쓸쓸함을 느낀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데 적당히 갈 만한 곳이 없다'라며 당시 심정을 적고 있다. 알렌은 10월 9일에 공식 개관한 화성돈 기념비로 안내하는데 박정양은 인상 깊었는지 기념비 내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기록을 남긴다.



화성돈 기념비 내외부 5장의 모습(1889년 1월)
갓돌(Cap stone) 설치, 갓돌, 기념비 외관, 엘리베이트 내부, 기념비 입구

화성돈 기념비의 높이가 555피트(약 169m)이며 이집트埃及國의 피라미드三角塚와 높이가 비슷하다. 그 문의 넓이는 3칸이고 4면에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벽을 따라 50개 층과 898개의 철 계단을 돌아가며 소라껍데기와 같이 굽게 설치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정중앙에는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轆轤車를 설치하였는데 지하에서 출발하여 비 위까지 12분 정도 걸린다. 비 안에는 각국의 돌을 수집하여 쌓았는데 돌마다 모두 영문으로 작은 글씨로 그 돌을 생산한 지방을 기록해 놓았다. 중국과 일본의 돌도 있는데, 그 돌에는 한문으로 기록하였다. 최상층에 도착하니 한 방처럼 장엄하며, 네 모퉁이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여닫게 만들었다.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도로의 종횡縱橫이 바둑판같고, 가옥이 빽빽하게 겹쳐 있는 것이 조약돌을 쌓아놓은 듯하다.

이역만리 미국에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을 대표해 '자주외교'를 펼치고자 했던 주미공사 박정양은 화성돈을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겼다. 영국과 전쟁으로 자주독립을 이루고 대통령 임기제와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킨 업적은 일국의 외교관에게 많은 영감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치는 어려운데 옛날을 생각하며 객지를 떠도는 자가 되었다'라며 당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한양을 추억하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만 헛되이 하늘만 바라보니 아득하고 조각구름이 가득하다'라며 화성돈 기념비 나들이를 마친다. 그런데 약 한 달 후인 11월 19일에 심신의 쇠약으로 아쉽게도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박정양은 영약삼단을 이행하지 않고 자주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박정양을 귀국시키면서 알렌을 대리공사로 임명했지만, 그는 조선인 관원이 있음에도 외국인을 대리로 삼는 것이 매우 구차스럽고 다른 나라의 비웃음을 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알렌 대신 서기관 이하영을 추천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1888년 11월 박정양은 서기관 이상재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으며, 일본에 머물면서 정계의 동향을 살핀 다음 1889년 9월에야 비로소 국왕에게 복명하였다.

이후 그는 반청 자주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었고,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호조판서·내무부독판을 거쳐 전환국관리 겸 교환국관리를 겸직하면서 '신식화폐조례'를 제정하여 화폐개혁의 단행을 주도하였다.

이어 갑오개혁 기간 중에는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자 회의원이 되었으며, 학무대신·내각총리대신·내부대신·중추원의장 등을 맡으면서 친미 반일세력인 정동파貞洞派의 핵심인물로 활약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 후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동파 인사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박정양은 내부대신으로 총리대신·궁내부대신서리를 겸임하면

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서재필을 후원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하는 데 적극 지원하면서 근대적인 제도개혁을 주도해 나갔다.

1898년 3월 독립협회가 완전한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국운동선언상소'를 올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갔을 때, 그는 찬정·의정서리로서 개혁내각의 수반이 되었다. 그는 독립협회와 협조하면서 중추원개편을 통한 의회개설 등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사상 초유로 열린 관민공동회에도 참석해 〈헌의獻議 6조〉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파는 독립협회를 탄압하였고, 나아가 독립협회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모함함으로써 그는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민공동회의 격렬한 투쟁으로 그는 다시 내부대신이 되었지만, 결국 고종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정양은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로서 전국의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양지아문 총재관으로 다시 발탁되었으며,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901년에는 다시 주미특명전권공사로 발탁되었지만 사양하여 조민희가 대신 부임하기도 하였다.

1905년 11월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그는 신병 중임에도 늑약의 무효화와 매국 대신의 처형을 요청하는 상소를 두 차례나 올렸다. 하지만 이 상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분으로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12월 15일에 65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朴定陽 墓碑 〈박정양 묘비〉

大韓輔國議政府叅政 諡文翼潘南朴公 諱定陽墓
配 贈貞敬夫人 楊州趙氏 祔右
繼貞敬夫人 仁同張氏 祔左

光武乙巳 冬十一月 韓日新約成 我先考文翼公府君 方有疾在牀 聞之大驚 扶而起 亟封疏言不可疏再上不允 遂憂憤疾益劇 竟以是月十九日捐館 翌年二月十七日 葬于抱川 祝石嶺 間村 負申之原 嗚呼冤哉 大學士 金公鶴鎭 旣納銘于幽堂 李相公根命 亦請諡于太常 皆書其事甚悉 然顧隧道無顯刻 竊恐遺懿漸泯 敢抆涕先識于表 府君 諱定陽 字稚中 號竹泉 文正公 諱尙衷之十八世孫也 平度公 諱嵩之十七世孫也 文康公 諱紹之十二世孫也 高祖 諱胤源 監役不仕 贈吏判成均祭酒 諡文獻 道德冠儒林 尤嚴於尊攘之義 學者 稱近齋先生 曾祖 諱宗輿 府使 以繼述家學 初贈都憲祭酒 後加贈贊政 祖 諱雲壽 府使 贈叅政 考 諱齊近 牧使 贈議政 妣 贈貞敬夫人 韓山李氏 諱應在之女 府君 以憲宗 辛丑十二月二十四日生 先皇朝 中小大科積任 至正一品輔國勳一等 其間所踐歷 皆淸要 而戶判 學大 內閣總理大臣 內部 度支部 農商工部大臣 議政府贊政叅政 判敦寧 弘文館 奎章閣學士 乃晩年職也 元配 贈貞敬夫人 楊州趙氏 郡守 諱秉瑋之女 辛丑六月十三日生 壬辰正月二日卒 始葬于水原 梨木洞 後祔于府君墓右 夫人 四德 咸備治家 有洽育一男二女男勝吉文科 歷待敎春坊 至承旨而終 女長 適鄭雲晳 前郡守 有二子 龜澤元澤 一女 金善鎭 次適李文魯 早夭 取其弟 恊判 鳳魯子 容世爲子 繼配貞敬夫人 仁同張氏 學生 諱永植之女 育二男一女 男勝喆勝喜 女適金世顯 嗚呼府君 生於詩禮之門 濡染有素 自幼未嘗違親命 雖纖微之事 必告而行 及長 動止雍容 言辭安詳 以誠信不欺心爲心 不衒能 不伐功 不厭人勝己 不怨人害己 亦不言人過失 循循退讓 不欲與人相校 而於義之所在 挺然不少屈 曾使美也 事有至難者 存而剛毅不撓 遂使君命不辱 國權不墮 甲午以後 屢處機要 輒折衷新舊 善爲之彌綸 世皆許其識 時達權而其主學務 時有泮宮廢止之議 而力爭不已 事遂得寢 其有功於斯文 亦大矣 立朝四十年 一念憂國 不啻如家事 居家莊肅 無一毫惰容 見人書問 必立便卽答 至於哀慶吊賀 亦在人先 自奉儉約 疏衣淡食 如寒士樣座無一切玩好之物 尤篤於先事 自贊政公 至議政公 三世遺文 手自校讐編摩 刊佈於世 又三世宅兆不利 數十年積 心力求吉阡 以遷厝 以至丙舍祭田 幷爲之經紀 近齋公以下 屢世幽誌顯刻 及象設 未備者 亦爲之無遺 嗚呼 忠孝人所當爲 然

若其竭力盡瘁 孰有如我府君者乎 昔歐陽公 自爲瀧岡阡表 今不肖 竊自附是義而言行之可紀者 萬不盡一 痛矣痛矣 畧撮大略 恭竢立言君子之定論云
公歿後 十六年 辛酉五月 日立
男勝喆謹撰
勝喜謹書

〈박정양 묘비 번역〉

대한보국(大韓輔國) 의정부참정(議政府叅政) 시호 문익공(文翼公) 반남(潘南) 박정양(朴定陽)[1]의 묘
첫째 아내 증(贈) 경부인(貞敬夫人) 양주(楊州) 조씨(趙氏)는 우측에 합장하였다.
둘째 아내 정경부인(貞敬夫人) 인동(仁同) 장씨(張氏)는 오른쪽에 합장하였다.

광무(光武) 을사년(1905) 11월, 한일신약(韓日新約)을 맺자 우리 선고(先考)이신 문익공(文翼公)께서 당시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부축을 받고 일어나 급히 상소(上疏)하여 두 번이나 불가함을 말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자, 끝내 울분으로 병이 더욱 심해져 마침해 이달 19일 돌아가셨다. 다음해 2월 17일 포천(抱川) 축석령(祝石嶺) 간촌(間村) 부신(負申)의 언덕에 장례를 치렀다.
아! 원통하다. 대학사(大學士) 김학진(金鶴鎭)[2]은 이미 무덤에 명문(銘文)을 드

1) 박정양(朴定陽) : 1841년 ~ 1905. 온건개화파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반남. 자는 치중(致中), 호는 죽천(竹泉). 아버지는 제근(齊近)이다. 1866년(고종 3) 별시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으며 1879년 형조참판이 되었다. 1881년에는 조병직·조준영·어윤중·홍영식 등과 함께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정부기관은 물론 각종 사업기관과 조폐공장 등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개화정책 추진에 참가했다. 1887년 주미전권공사(駐美全權公使)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으나 청의 압력으로 1889년에 소환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김홍집이 살해되자 내부대신으로 수상을 겸했으며, 내각이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참정대신이 되었다. 1898년 만민공동회에 참석해 시정개혁을 약속했으나 수구파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그해 11월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탄압한 사건으로 개각이 될 때 다시 내부대신이 되었다. 저서로 〈죽천고 竹泉稿〉·〈해상일기초 海上日記草〉가 있고, 편서로는 〈일본내무성및 농상무성시찰서계 日本內務省及農商務省視察書啓〉·〈일본내무성시찰기〉·〈일본농상무성시찰기〉가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2) 김학진(金學進) : 1838년 ~ 1917년.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아호는 후몽(後夢)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 순조 대부터 철종 대의 집권 세력이던 안동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이조판서를 지낸 김교근이며, 아버지인 김병교는 안동 김씨를 몰아낸 흥선대원군도 배척하지 않고 이조판서로 중용한 인물이었다.

렸고, 상국(相國) 이근명(李根命)은 태상시(太常寺)에 시호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상세히 기록을 하였지만 묘도(墓道)에 비석이 없는 것을 돌아보고 그가 남겨놓은 훌륭한 일들이 세월이 갈수록 잊혀질까 걱정이 되어 감히 눈물을 뿌리고 먼저 표문을 기록한다.

부군(府君)의 휘(諱)는 정양(定陽), 자는 치중(稚中), 호는 죽천(竹泉)으로 문정공(文正公) 상충(尙衷)의 18세손, 평도공(平度公) 은(訔)의 17세손, 문강공(文康公) 소(紹)의 12세손이다. 고조는 윤원(胤源)으로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지만 벼슬하지 않고 이조판서(吏曹判書), 성균좨주(成均祭酒)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도덕은 유림(儒林)의 으뜸으로 더욱이 존양왕이(尊王攘夷)의 의리에 엄격하여 학자들은 근재선생(近齋先生)이라 일컬었다.

증조 종여(宗輿)는 부사(府使)를 지냈고 가학(家學)을 이어 비로소 도헌좨주(都憲祭酒)에 증직되었다가 뒤에 찬정(贊政) 벼슬이 더해졌다. 조부 운수(雲壽)는 부사를 지냈고 참정(叅政)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 제근(齊近)은 목사를 지냈고 의정(議政)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은 한산(韓山) 이씨 응재(應在)의 따님으로 헌종(憲宗) 신축년(1841) 12월 24일에 태어났다. 순종황제(純宗皇帝) 때 대소과에 급제하여 승진해 정1품 보국훈 1등에까지 올랐다. 그 사이에 역임한 벼슬은 모두 청요직(淸要職)으로 호판(戶判), 학부대신(學部大臣),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참정(叅政), 판돈령(判敦寧), 홍문관(弘文館)·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는 바로 만년의 직책이었다.

첫째 아내 증(贈) 정경부인(貞敬夫人)은 양주(楊州) 조씨(趙氏) 군수 병위(秉瑋)의 따님으로 신축년 6월 13일 태어나 임진년 1월 2일 돌아가셨다. 수원(水原) 이목동(梨木洞) 뒤에 부군의 묘 오른쪽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4가지 덕[四德][3]으로 집안을 다스렸고 1남 2녀를 두었다. 첫째 승길(勝吉)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교(待敎)와 춘방(春坊)을 거쳐 승지(承旨)에 올랐다가 죽었다. 장녀는 전

3) 4가지 덕[四德] :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이른다.

군수(郡守) 정운석(鄭雲晳)에게 시집을 가서 2남 귀택(龜澤)·원택(元澤)과 1녀 김선진(金善鎭)을 두었다. 둘째 딸은 이문노(李文魯)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요절하여 시동생 협판(協判)인 봉노(鳳魯)의 아들 용세(容世)를 양자로 들였다. 둘째 아내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인동(仁同) 장씨(張氏)이며 벼슬하지 않은 영식(永植)의 딸로 2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승철(勝喆)·승희(勝喜)이고 딸은 김세현(金世顯)에게 시집갔다.

아! 부군(府君)은 학문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나 평소 훈도를 받아 어려서부터 일찍이 부모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행동하였고 자라서는 행동거지가 점잖고 용모와 말투가 침착하여 성실과 믿음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으로 삼았다. 자신의 능력이나 공(功)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았다. 또한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천천히 물러나고 사양하여 남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찍이 주미공사(駐美公使)가 되어 매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매우 강직하여 마침내는 임금의 명이 욕되지 않게 하였고 국권(國權)도 추락하지 않게 하였다.

갑오년 이후 여러 차례 긴요한 자리에 처하였으나 번번이 신구(新舊)를 절충하고 두루 잘 다스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식견을 인정하였다. 당시 권도(權道)에 뛰어나 학무대신으로 있을 때 반궁(泮宮, 成均館)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있자 힘껏 다투어 잘 마무리하여 사문(斯文, 儒學)에 끼친 공 역시 매우 컸다. 벼슬한 지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집안일처럼 나라를 걱정하였다. 평상시 집에서는 엄숙하여 조금도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의 편지를 받고서는 인편을 세워두고 곧바로 답장을 써주었고 늘 남보다 먼저 남의 초상을 조문(弔問)하고 경사를 축하하였다. 스스로 근검절약하여 검소한 옷과 담박한 음식으로 생활하여 마치 한미한 선비처럼 지냈다. 앉은 자리에는 일체의

놀잇감이 없이 더욱 선사(先事)에 독실하여 찬성공(贊政公)부터 의정공(議政公)까지 3세(世)의 유문(遺文)을 손수 교정하고 편찬하여 세상에 펴냈다. 또 3세의 무덤이 좋지 않자 수십 년 동안 심력을 다하여 길지를 구해 이장(移葬)하였고 병사(丙舍, 墓幕)와 제전(祭田, 墓位土)을 모두 경영하여 근재공(近齋公) 이하 여러 세(世)의 무덤 가운데 지문(誌文)과 비석 및 상설(象設)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어 놓았다.

아! 충성과 효도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온힘을 다하는 사람으로 누가 우리 부군(府君) 같은 분이 있을까? 옛날 구양공(歐陽公)이 스스로 농강천표(瀧岡阡表)[4]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이 뜻에 부쳐본다. 언행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들 중에 만분의 일도 기록하지 못하였으니 애통하고 애통하다. 간략하게나마 대략적인 사실만을 가려 삼가 입언(立言) 군자의 정론을 기다린다. 공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16년 신유년 ○일 비석을 세운다. 아들 승철(勝喆)이 삼가 찬술하고 승희(勝喜)가 삼가 쓰다.

4) 용강천표(瀧岡阡表) : 송(宋)의 구양수(歐陽修)가 그 부(父)의 묘(墓)에 세운 묘표(墓表)를 말함.



박정양 묘지 전경



박정양 묘비 앞면



박정양 묘비 뒷면

2. 초대 주미공사관 참찬관 이완용



이완용(왼쪽 두 번째)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의 본관은 우봉牛峰이고, 자는 경덕敬德이며, 호는 일당一堂이다. 1858년 6월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이호석李鎬奭과 신씨 사이에서 2남으로 태어났다. 1867년 그는 먼 친척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호준李鎬俊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양부 이호준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그의 서자인 이윤용李允用이 흥선대원군 서녀와 혼인으로 이어졌고, 그의 사위가 당대의 세력 가문인 조성하趙成夏였던 만큼 정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입양은 향후 관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완용은 1882년 증광별시에 병과 18위로 급제했음에도 그의 양부 이호준의 후광을 입었기 때문에 정7품인 주서가 되었다. 특히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계기는 1887년 3월 근대적 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에 입학하게 되면서이다. 그가 접한 영어, 근대적 학문과 문물은 초대 주미공사관 개설과 운영을 위한 참찬관으로 발탁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887년 8월 이완용은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과 함께 참찬관으로 발탁되었으나, 청국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과 위안스카이는 청국과의 속방 체제를 내세우며 주미전권공사의 파견을 거부했다. 이에 우여곡절 끝에 '영약삼단另約三端'[5]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3개월 만인 11월에나 미국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제물포에서 배로 부산에 갔던 박정양과 달리 이완용은 번역관 이채연과

5) '영약삼단'은 "조선의 외교사절공사은 ① 주재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국공사를 찾아와 그의 안내로 주재국 외무성에 간다. ② 회의나 연회석상에서 청국공사의 밑에 자리를 잡는다.③ 중대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청국공사와 미리 협의한다." 라는 것이었다.

함께 육로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을 따라 홍콩으로 가서 민영익을 만났으며, 일본으로 되돌아와 하와이를 거쳐 1888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였고, 대륙횡단철도로 워싱턴에 부임한 뒤, 1월 15일 박정양 공사 등과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였다.

이완용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국의 정부 각처와 근대적 시설을 시찰하고 각종 외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워싱턴에 주재한 각국의 외교관들과 접촉하였다. 하지만 그는 병을 핑계로 귀국을 요청하여 4월 21일 번역관 이채연과 함께 워싱턴을 떠나 귀국하였다. 귀국 후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과 외부장관이 우리나라 공사를 다른 나라 공사와 똑같이 대해주었다고 우호적으로 미국을 소개하였다. 이후 그는 전보국 회판會辦·이조참의·외아무참의 등을 지내다가 다시 그의 부인 양주 조씨, 이채연과 부인 성주 배씨 등과 함께 1889년 1월 21일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리공사 이하영 후임으로 대리공사로 활약하였다.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온 조선 여성이 조선 전통 복식인 한복을 입고 미국에 도착해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매너로 어느 나라 부인들과도 뒤지지 않는 활동을 소개하였다. 조선공사관 동정을 소개한 미국 신문은 "조선 여성들이 전통 복식을 입고 최초 도미渡美 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 미국 땅에 첫 번째 발을 밟은 두 명의 조선 여인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의 조선공사에서 일하는 외교관 부인들이다. 알려지기로는 상당한 미인이며, 전통 의상을 착용할 예정이어서 사교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32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FEBRUARY 23, 1889.

THE COREAN WOMEN IN WASHINGTON.

WE give on this page portraits of the wives of the two Corean Secretaries of the Corean Embassy at Washington. These ladies are said to be the first who have ever ventured abroad from the Hermit Kingdom, and they are naturally objects of interest wherever they emerge from the seclusion in which they live at the national capital. It is not supposed that they will go into society there, but that is a point not yet fully determined. Perhaps no stronger proof of the influence of Western ideas upon this secular people could be given than is afforded by the modification which has taken place in their rigid social laws as to the position of women.

WAR VESSELS LAUNCHED LAST YEAR.

A CAREFUL estimate places the war ships launched by the naval Powers of the world in 1888 at 40, while more than 100 were building when it closed. England led with 15 vessels launched and 28 building. France launched 3 and laid down 15; Russia launched 3 and began 10; Germany put 6 vessels into the water and ordered or laid down 4; Italy launched 10 and laid down 18; Austria launched no vessel, but laid down or ordered 3; Sweden laid down 1; Denmark launched 1 and laid down another; China added 4 vessels to her navy and ordered or laid down 4 more; Japan ordered 3 and launched 3; Chili ordered a new cruiser in England; and the Argentine Republic contracted for a 4,500-ton ironclad; Brazil laid down a cruiser, and even Uruguay has contributed to the navies of the world, by launching a small iron gun-boat. The minor Powers, like Greece and Portugal, have either contracted for or launched small vessels. Turkey has begun the work of building up her navy, having down an iron-clad and several smaller vessels; the United States launched 6 and laid down 8.

DISTRICT OF COLUMBIA.—WIVES OF THE TWO SECRETARIES OF THE COREAN LEGATION, IN NATIVE COSTUME, AND FIRST TO VISIT AMERICA ON ART FOREIGN COUNTRY. FROM A PHOTO. BY M. B. B. CH, WASHINGTON.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땅을 밟은 최초의 조선 여성들(좌 이완용 부인, 우 이채연 부인)

미국으로 돌아온 참찬관 이완용과 서기관 이채연 부부는 1889년 1월 13일 새로 이사한 아이오아 서클Iowa circle 조선공사관에서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가량 입주at home 기념 파티를 개최했다. 당시 언론은 이완용 부인과 이채연 부인의 워싱턴 D.C. 사교계 등장으로 인한 호기심으로 1,000여 명이 조선공사관으로 몰려들었고 특히 '은둔의 나라'에서 온 조선의 작은 여성들이 개최한 입주 파티에 대해 'COREA'S COMING-OUT'(조선의 외부 세계로 등장)이란 기사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묘사했다.

> 조선의 이 작은 여성들은 미국의 환영회가 익숙한 듯이 침착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들의 적응력은 매우 눈에 띄었으며, 새로운 세상의 관습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아하게 진입하였다. 이완용 부인은 길고 쭉뻗은 짙은 파란색의 치마와 창백한 노란색 실크의 헐렁한 상의를 함께 입었다. 이채연 부인의 가운은 분홍색 실크였고, 비슷한 스타일의 옷차림이었다. 부인들의 빛나는 검정 머리는 매우 부드러웠으며 머리 뒤쪽의 끝에는 무거운 매듭을 달았다.

이완용 부인은 매우 예뻤으며, 친절한 성모마리아와 같은 모습에 그녀의 미소는 매우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혈색은 아이보리색을 띠었고, 얼굴은 섬세하고 정상적인 모습에 여린 얼굴 윤곽을 보였다. 그녀는 매우 똑똑했고, 영어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직감으로 칭찬을 알아듣고는 땡큐를 적합한 순간에 말할 수 있었다.

부인들은 이 행사를 즐기는 듯이 보였고,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편안해 보였다. 이완용 부인과 이채연 부인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 축복을 감상하는 듯이 보였다. 이 부인들의 남편들도 그녀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즐거워하는 듯이 보였다.



주미공사관 관원들 (1889년 5월 6일)

위 사진은 공사관이 피서옥皮瑞屋에서 당시 아이오아 서클(Iowa circle, 현 로건 서클) 15번지로 이전한 1889년 5월 6일(월), 참찬관 이완용과 서기관 이채연이 미국으로 1월에 돌아온 후 부인들과 함께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George Washington의 생가 마운트 버넌을 여행한 기록사진이다. 가장 왼쪽에는 흑인 하인이 있고, 오른쪽에 조금 떨어져서 대리공사 이하영, 서기관 이채연의 부인, 이채연, 가운데에 참찬관 알렌Horace N. Allen이 그의 딸과 함께 서 있고 그 옆에 참찬관 이완용과 그의 부인이 위치해 있다.

1890년 이채연에게 대리공사 자리를 이임한 후 이완용은 귀국하여 1895년 5월 친미 친러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박정양 내각이 성립되자 학부대신에 임명되었고 이채연李采淵 등 친미파와 함께 알렌의 이권 획득 요구에 적극 협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이윤용, 이하영 등 친미파 인사들

과 함께 미국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김홍륙金鴻陸, 이범진 등 친러파 인사들과 공모하여 '춘생문사건'을 일으켜 정권탈취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96년 2월 11일 알렌의 후원하에 이범진 등 친러파와 공모하여 '아관파천'을 성공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사건 주모자들은 친일파 세력을 몰아내고 내각의 요직을 장악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시작한 신내각에서 외부, 학부대신과 농상공부 서리와 군부대신 겸 경무사 등 5개 직책에 동시에 임명되었다.

1896년 7월부터 1898년 초반까지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장, 부회장 및 회장직을 맡았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자주독립을 외치며 신정치운동을 표방하는 데 앞장섰고, 고종의 환궁운동을 전개하여 실현시켰다. 이후 러시아 세력의 경계와 압력을 받고 학부대신에서 물러나 1897년 9월 평남 관찰사로 전임되어 외직으로 밀려났다. 1898년 2월 독립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동년 3월 11일 전북 관찰사로 전임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중지되었다. 또한 1898년 7월 17일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되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독립협회에서 떠났다.

1898년 3월 전북 관찰사 재직 시 직무태만으로 감봉 처분을 당하였고 거액의 민재民財를 착복하여 관찰사직에서 파면당할 위기에 몰렸으나 그해 12월 징계 특면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 후 계속 외직에서 지내며 시세를 살피다가 1901년 2월 궁내부 특진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관계로 복귀하였다. 이후 국내외 정세 변화와 함께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자 철저한 친일파로 변신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기 위해 대신들을 위협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을사5적'으로 1907년 7월 내각총리대신으로 있으면서 일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헤이그 밀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종황제의 강제양위를 주도하였다. 이어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정미7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탄을 받았다. 조약체결 직후에는 한국군대를 강제해산시켰다.

이러한 매국 행위로 인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1급 대상자로 지목되어 12월 17일에 사망한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1909년 12월 22일 서울 종현천주교회당鐘峴天主教會堂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하였다가 독립운동가 이재명의 피습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다.

1910년 8월 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와 '한일병합조약' 체결 협상을 벌이고, 동년 8월 22일 어전회의에서 순종황제를 압박하여 합병조칙을 받아냈다. 이에 마침내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고 '경술9적' 중 1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0년 10월 7일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합병에 관한 공로로 백작의 작위를 받았고, 1920년 12월 28일 후작으로 올라갔다. 사후 손자 이병길이 작위를 물려 받았다. 1910년 10월부터 1912년 8월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과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면서 총독의 자문에 응하였다. 1916년 8월 4일 〈매일신보〉에 왕세자의 혼인과 관련하여 "병합하여 한 국가가 된 후에는 황족 간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내선융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에 경고문을 게재하여 만세운동을 '망동'이라 비난하고 저항운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듬해 후작이 되고, 농림주식회사고문·교육조사위원·총독부산업조사위원·조선미술전람회심사·조선사편수회고문 등의 명예직을 두루 겸하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력하였다. 1924년 4월 항일운동에 대항하여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내걸고 결성된 친일단체 동민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 2월 11일 이재명 의사의 칼에 폐를 다친 후유증으로 앓던 해수병이 악화하여 사망하였다.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묻혔으며, 정치행적과는 달리 당대의 명필이었다.



이완용 묘지 흔적



이완용 묘지 주변

3.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하영



이하영

이하영李夏榮, 1858~1929은 1858년 8월 15일 경상남도 동래군현 부산광역시 기장에서 이유수李裕脩와 서산 서씨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琴山이다. 그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10대손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어렸을 때부터 찹쌀떡을 팔면서 끼니를 이었다고 전해진다. 부산이 개항한 뒤 그는 부산의 일본 거류지에서 매매를 중개하면서 일본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일본인이 운영하는 간산상회諫山商會의 점원으로 일하였다. 1884년 독립하여 무역을 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지만, 동업자가 밑천을 챙겨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무일푼이 되었다. 이해 9월 그는 나가사키長崎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선을 첫 방문하는 알렌을 만났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그는 서울로 올라와 미국공사관에 임시 취직한 알렌의 요리사로 일하면서 영어도 배웠고, 1885년 알렌이 제중원을 맡게 되자 1886년에 제중원주사로 관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1887년에는 사헌부감찰·전환국위원典圜局委員이 되었으며,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왕비를 진료하여 회복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부터 왕비의 총애를 받아 일약 초대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발탁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보다는 참찬관에 임명된 알렌이 자신과 친분이 깊은 이하영을 천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훗날 이하영은 도저히 자력으로 '청국의 패반覇絆'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일본 이외의 후원국을 물색하다가 조선과 거리가 멀어 우리나라 침입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을 것이며, '황금의 부국富國'이어서 물질적으로 덕을 볼 것이고, 종

교지상주의 국가로 도덕을 존중하므로 야심이 적을 것 등의 '달관적達觀的'인 이유로 주미전권공사를 파견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전권공사 박정양, 참찬관 이완용과 미국인 알렌, 서기관 이하영·이상재, 번역관 이채연 등으로 구성된 초대 주미전권공사 일행은 중국이 속방 관계를 주장하면서 파견을 반대하는 바람에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 등을 두려워한 중국이 '영약삼단'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허락함에 따라 1887년 11월 12일 박정양 일행은 서울을 출발할 수 있었다.

박정양 일행은 일본을 거쳐 1888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한 뒤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하였고, 1월 15일 미국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였다. 이하영은 그해 11월 영약삼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압력을 받아 귀국하게 된 박정양 공사의 추천으로 대리공사직을 맡게 되었다. 이미 이완용과 이채연이 귀국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리공사로 알렌을 임명하자, 박정양이 조선인 공사관원이 있음에도 외국인을 대리로 삼는 것은 매우 구차스럽고 다른 나라의 비웃음을 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하영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하영은 1889년 6월 다시 부임한 이완용에게 대리공사직을 인계하고 귀국할 때까지 공사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미국 체재 중 이하영은 영어를 점차 능숙하게 구사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춤 솜씨로 각종 연회에서 서양 여인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1889년 2월경 그가 조선공사관에서 개최한 연회에는 각계각층의 정부요인과 외교관들 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미국 풍속에는 다회茶會, Tea party라는 예가 있다. 매년 예수 탄생일인 12월 25일부터 이듬해 예수 사망일인 2월 16일까지를 '손님맞이 기간'見客期이라 한다. 매년 이 기간이면 각부 장관은 다회를 열어 그 나라 행정 관리와 상인 및 각국 공사를 초청하고 약간의 다과와 술, 안주를 탁자에 마련해 손님을 대접한다. 초청한 주인 부부는 문 앞에 서서 참석하는 손님에게 악수로 맞이하고 보내는

예를 취한다. 미국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위의 속례俗禮에 따라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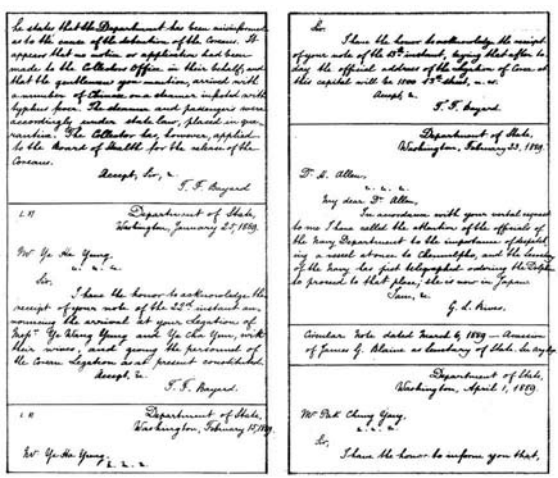
조선 외교관 중에는 외교관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도 유창하고 무도舞蹈에도 아주 능해 일제강점기에 유행하던 일명 '모던뽀이'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서리공사 이하영이다. 그는 어느 연회나 참석 안 하는 곳이 없고 또 누구나 그와 무도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상투를 틀고 조선의 버선에 서양식 구두를 신은 이하영 서리공사는 언제나 금발미녀들이 환영하는 표적이 되었다. 이하영 서리공사는 미국 어느 유명한 부호 딸의 청혼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국법상 외국인과 결혼은 금지되어 거절하였다. 그러자 부호 딸의 어머니는 자기 맏사위가 이탈리아의 장관이니 사위에게 부탁해 이탈리아 황제를 통해 고종에게 허락을 얻도록 하겠다고 자기 딸과 결혼을 졸랐다는 일화도 있었다. 이하영은 조선에 결혼한 부인이 있었으나, 미국 사교계에서는 총각행세를 했다. 결국 두 사람의 국제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하영은 미국주재 기간 동안 알렌을 도와 광산기술자 피어스Willard I. Pierce를 초빙하였으며, 미국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국왕으로부터 '대조선 해륙군 대도원수大朝鮮海陸軍大都元帥'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국왕은 부산 등 3개항장의 관세를 담보로 그가 차관을 얻어 20만 명의 미국 병사를 이끌고 환국하여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대리공사 시절 그는 뉴욕은행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차관을 얻는 데 성공하여 그 절반인 100만 달러를 받아 외교 활동 자금으로 썼지만,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다는 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16만 달러는 불문에 부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차관을 얻기 위해 힘썼으나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한 셈이 되었다.

1889년 2월에 그는 워싱턴 시내 북서北西 오가 1513번지1513 O St. NW에 있던 공사관을 북서 13가 1500번지1500 13th street NW, 현 Logan Circle 15번지의 건물을 임대하여 옮겼다.

공사관에 남은 외교관 중 제일 서열이 높은 서기관 이하영이 1888년 11월 16일자로 임시서리공사Chargé d'Affaires ad interim로 임명되는데, 임명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1889년 2월 13일자로 피셔옥에서 1500 13th Street. Iowa Circle현 로건서클에 있는 건물로 주미조선공사관1897년 이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옮겨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공사관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미국 동포사회 및 학계,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2012년 10월 18일 대한민국문화재청 정부가 매입하고 이후 활발한 조사·연구 및 복원 노력을 진행했다. 당시 학계에서는 주미조선공사관의 개설 및 운영 시점을 매매 등기Deed를 완료한 189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필자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가 소장한 〈미국무부문서〉(1889.2.15.),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공사관 외부 사진'(1889.5.8.)과 〈Washington Post〉(1889.1.27.)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 공사관 건물을 사용한 시점이 1889년 2월 13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새롭게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장관(T.F. Bayard)이 서리공사 이하영에게 보낸 미국무부문서(1889.2.15.)

위 공문은 당시 서리공사 이하영이 1889년 2월 13일자로 미 국무부장관 베이야드T. F. Bayard에게 통지한 문서인데, 피셔옥에서 새롭게 이전한 주미조선공사관 주소가 1500 13th Street N.W.로 미 국무부가 주미조선공사관의 공식 주소를 확인한 공식문서이다. 즉, 1889년 2월 13일부터 주미조선공사관으로 옮겨 개설·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공식문서다.

오른쪽 흑백 사진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주미조선공사관 외부 사진 중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특히 사진 앞면 왼편 상단에 '개국 ᄉᆞ백구십팔년 ᄉᆞ월초구일'이 적고 있어 당시 사진 촬영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개국한 1392년 이후 498년 되는 1889년 4월 9일(양력 1889. 5. 8.)에 외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일 오래된 사진으로 가치가 있다. 사진을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공사관 현관 계단에 좌로부터 참찬관(사진 뒷면에는 참무관으로 표시) 이완용, 서리전권공사 이하영, 서기관 이채연, 참찬관 미국인 알렌 등 4명이 찍은 기념사진으로 보인다. 그날 공사관 앞에서 4명의 외교관들이 기념 촬영한 이유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서리공사 이하영이 1889년 5월 8일자로 미국 국무성에 조선의 군비강화를 위해 군복과 군 장비 등을 주문해 미 국무부장관 블레인J. G. Blain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던 동일한 일자임을 감안하면 그 '기쁜 소식'을 기념하여 외교관들이 모여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재미국화성돈조선공사관지도
(在美國華盛頓朝鮮公使館之圖)

건물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옥상에는 국기게양대가 세워져 있고, 사진에 '국긔'라 적어 놨다. 또한 현지 고용인으로 추정되는 흑인 한 사람이 옥상 국기게양대 옆에 서 있는 모습도 보인다. 당시 공사관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했던 기록으로 보아 잡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진을 찍을 당시 태극기를 막 게양을 했거나, 하강할 시간이 되어 옥상에 올라간 상황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기념사진 뒷면에는 촬영 시기를 '大朝鮮 開國 四百九十八年 四月初九日대조선 개국 사백구십팔년 사월초구일'을 한문으로 표기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청국의 연호年號를 쓰지 않고 '대조선'이라는 조선 독자적인 개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1882년 시점부터 '대조선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에서도 조선이 '대조선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래에는 외교관들의 직위와 이름들을 표기한 한자가 보이는데, 사진 앞면의 외교관들을 뒷면에 비쳐 보이는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앞면 '국긔'를 적은 건물 옥상을 뒷면에는 '國旗국기'로 표기했다. 현재까지 주미조선공사관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등기 완료 시점인 1891년 12월 1일로 여겨 위 사진에 적혀있는 연도와 일치가 되지 않아 '모순'된 표기로 간주되어 왔다.

이 건물은 1891년 11월 이채연이 고종의 내탕금 2만 5천 달러로 매입하였다. 또 박정양 공사 재직 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미국인과 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는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1889년 귀국할 때는 미국정부로부터 철도의 모형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귀국 후 이하영은 기기국 사사司事와 웅천·흥덕 현감을 지냈으며, 초대 주미공사일행을 중심으로 정동파를 형성하면서 친미개화파로 활약하였다. 친미개화파는 미국을 부국강병의 모델로 삼음과 동시에 외세의 침탈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균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청일전쟁을 빌미로 갑오개혁이 추진되자 그는 신설된 외무아문의 참의를 거쳐 궁내부회

계원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삼국간섭 이후 일본의 세력이 약화되던 1895년 7월 503회 개국기원절을 제정했을 때, 그는 행사추진 사무위원장으로서 정동구락부의 인사들과 함께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이 세력 열세를 만회하려고 명성황후살해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는 이완용·이채연 등과 함께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아관파천 후 정동파가 집권하자 이하영은 한성부관찰사로 임명되었다가 곧 주일특명전권공사로 발탁되었다. 아관파천으로 더욱 악화된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 사정에도 밝으며, 외국과의 교섭 능력이 뛰어났던 점이 고려되었다고 여겨진다. 이후 그는 1900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일공사로 임명되어 도쿄에 주재하면서 명성황후살해범 처리 요구, 경인·경부 철도부설권의 일본 양여 반대, 일본인의 불법행위 처벌 및 단속 등 양국 간의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으며, 재일유학생을 관리·감독하고 근대식 기계와 재료를 구입하였으며,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중재 역할을 맡았다.

한편 이하영은 주일공사로 부임하는 바람에 독립협회의 창립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일시 귀국 중인 1897년 5월 23일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또 1898년에는 중추원부의장·귀족원경·중추원의장, 1899년에는 의정부찬정·정헌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00년 8월 그는 주일공사직을 사임하고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의화단사건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병력을 한국방면으로 이동하려 한다면서 이를 위기일발의 순간이라고 비분강개할 정도로 반일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귀국 후 그는 의정부특진관·찬정·외부대신서리 등을 거쳐 1904년에는 러일전쟁의 발발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압력과 간섭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외부대신이 되었다. 그는 일본에 통신원을 이양하고 연해항로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이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주차일본군사령관이 서울 내외 군사경찰의 실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1905

년 11월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려 했을 때에도 반대하였다. 일제의 정보망에 의하면, 그는 겉으로 일본당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옹호를 받으려는 운동을 시도하거나 일본배척의 언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파악될 정도로 친미·반일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을사늑약 후 그는 일제의 침략에 적극 반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을사6적에 포함되기도 하며, 1907년 3월에는 나인영羅寅永 등에 의해 처단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07년에는 중추원고문이 되었고, 한국병탄 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지냄으로써 친일파가 되고 말았다. 그는 고무로 만든 조선식 고무신을 개발하여 1922년 대륙고무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사장에 취임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으며, 1929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이하영 묘지 전경



이하영 묘비 앞면



이하영 묘비 뒷면

4.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이상재

이상재李商在 1851~1927의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계호季皞이며, 호는 월남月南이다.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아버지는 이희택李羲宅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1867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부패한 관리들의 매관매직 때문에 낙방거자落榜擧子가 되었다. 이를 개탄하고 낙향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고자 하였으나, 친족 이장직李長稙의 소개로 당시 승지였던 박정양朴定陽의 집에서 1880년까지 개인 비서일을 맡아 보았다.

1881년 박정양의 추천으로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유길준兪吉濬·윤치호尹致昊·안종수安宗洙·고영희高永喜 등과 함께 일본에 갔다.

이때 일본의 신흥문물과 사회의 발전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홍영식과 두터운 교분을 쌓고 귀국한 뒤 개화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1884년 신관제에 의해 개설된 우정총국郵政總局의 총판總辦 홍영식의 추천으로 주사로 임명되었으나, 그 해 12월 갑신정변의 실패로 낙향하여 농사를 지었다.

1887년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발탁된 박정양에 서기관으로 채용되었다. 이상재는 박정양을 수행하여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으로 갔다가 일본을 경유하여 홍콩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1888년 1월 미국에 도착하였다. 이어 1888년 10월 박정양이 미국 파견의 전제 조건인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항의를 받아 소환되자 함께 귀국하였다. 박정양이 귀국길에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는 정계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먼저 서울로 갔다가 1889년 2월에 다시 도쿄로 돌아와 박정양과 함께 귀국하였다.

귀국한 뒤 낙향하였으나, 박정양이 전환국관리가 되자 1892년에 전환국 위원, 1894년에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각 참찬, 학무아문참의學務衙門參議 겸 학무국장이 되었다. 이때 신교육령을 반포하고 사범학교·중학교·소학교·외국어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한때는 외국어학교교장을 겸하기도 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박정양이 총리대신임시서리가 되었을 때는 내각총서內閣總書에 임명되는 등 박정양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이어졌다.

1896년 독립협회가 창립되는 과정에서 정부대신인 박정양은 직접 관여하지 못했지만, 이상재는 이채연李采淵과 더불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독립협회는 이상재를 비롯해 이완용李完用·이채연 등 초대 주미전권공사 출신들이 중심이 된 정동파가 주축을 이루고 개혁 성향이 강한 친정동파 계열의 현직 관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관변단체였다. 독립협회는 독립관 현판식을 계기로 계몽단체로 전환하면서 매주 일요일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상재는 윤치호와 함께 토론회의 서기로 맹활약하였다.

1898년 2월 러시아의 내정 간섭에 대항하여 이상재 등 독립협회 회원 135명은 구국운동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리며 자주·자립을 촉구하였다. 이어 그는 독립협회의 회계로 선출되어 만민공동회를 주도한 끝에 러시아의 간섭을 좌절시켰다. 이후 독립협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재는 민권보장운동에 앞장섰으며,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정부 측 대표인 박정양과 함께 〈헌의獻議 6조〉를 의결하고 두 차례 상소를 올렸다가 경무청에 구금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는 독립협회에서 주도한 국권 자주와 민권보장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898년 12월 독립협회가 정부의 탄압과 황국협회의 방해로 해산된 후, 이상재는 모든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탐관오리의 부패와 실정을 비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02년 6월 그는 국체개혁國體改革을 음모하였다는 개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둘째 아들 승인承仁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1904년 2월 석

방되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이승만李承晩·이동녕李東寧 등을 만나 가까이 지냈다. 이승만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기독교를 접하고 신자가 되었다. 석방 후 그는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가입하고 초대 교육부장이 되어 민중 계몽에 투신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실질적인 국권이 상실되자, 그는 고종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의정부참찬을 맡았으며, 1907년 법부대신의 교섭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군대 해산이 있은 뒤 관계와 인연을 끊었다.

1910년 8월 일제가 결국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뒤 무단정치를 펼치는 와중에서 이상재는 YMCA를 근거로 계몽활동을 펼쳤다. 그는 1913년 YMCA 총무를 맡아 YMCA를 사수하는 데 온힘을 쏟았다. 1914년에 재일본조선YMCA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학생 YMCA를 망라한 조선기독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조직하고,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일에 전념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거물급 민족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이상재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나이가 많아 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탓도 있었지만, 운동이 전개된 이후 일제와 맞서 사후 수습을 담당할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는 3·1독립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투옥되었지만, 총독부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도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석방될 수 있었다.

이상재는 1920년부터 YMCA의 명예총무와 전국연합회회장으로 활약하였다. 1922년에 그는 YMCA 대표단을 인솔해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학생기독교청년연맹 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YMCA가 단독으로 세계 YMCA연맹에 가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지 말고 상하이로 가서 활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국내 동포들과 청년들을 위해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면서 해외망명을 거절했다고 전한다. 이 해에 그는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를 발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23년에 조선교육협회를 창립하고 임원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지만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이상재는 1924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의 전신인 소년척후단조선총연맹 초대 총재와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였고, 1925년에는 제1회 전국기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 2월에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의 단일 전선을 결성하여 일제에 투쟁하기 위해 신간회新幹會를 조직하고 그를 창립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는 신간회 회장직을 수락했지만, 4월 7일 서울의 전세방에서 사망하였다. 사망한 해인 1927년 4월 7일 사상초유의 성대한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한산 선영에 안치되었다. 1957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로 이장되었다. 신도비神道碑 비문은 정인보鄭寅普가 지었으며, 묘비墓碑의 비문은 변영로卞榮魯가 지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收錄)』

이처럼 바늘과 실처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상재와 박정양은 워싱턴의 주미공사관에 함께 근무하면서 자주외교를 펼치고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들의 활동 상황은 박정양의 『미행일기美行日記』와 『미속습유美俗拾遺』에 잘 담겨 있는데, 이와 짝을 이루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련 문서들이 실려있는 것이 바로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收錄』이다. 『수록』은 주미공사관에서 사용한 공무용 용지를 사용했는데, 세로로 된 총 11칸의 양쪽 끝에 '대조선흠차 주미공사관大朝鮮欽差駐美公使館'이라고 쓰여 있다. 또 본문의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적어 놓았다.

『수록』은 표지를 제외하고 총 144쪽이다. 『수록』에 맨 처음 기록된 문서인 「미국 답서역한문美國答書譯漢文」(1883년 2월 6일)을 제외하면, 그 시기는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인 1887년 11월 27일부터 귀국 후 2년이 지난 1891년 7월까지 3년여에 걸쳐 있다. 또한 영문 문서들은 한문으로 번역해 두었다. 『수록』에 있는 문서들은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공문서, 공사가 추진했던 사업에 관련된 문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망록, 그리고 '부附'에 해당되는 일본공사관 등에 관련된 문서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문서이다. 우선 첫 문서인 「미국답서역한문」은 1883년 2월 6일 미국 대통령 아서Chester Alan Arthur가 초대 조선주재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파견하면서 고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미조약 체결 후 조선이 보낸 속방조회에 대해 조선은 내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제6조의 일부분만 제외하고 이 조약을 비준하고 준수·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미국 답변서이다. 이상재는 이 답변서에 미국이 조선을 자주국가라고 명시한 내용을 중시해서 주미전권공사의 업무를 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여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는 박정양이 파견의 전제 조건이었던 영약삼단을 무시하고 중국 공사를 먼저 방문하지 않은 채 미국 국무장관 베이야드Thomas F. Bayard를 방문하겠다고 국무부에 직접 보낸 「송미국외부조회送美國外部照會」(1887년 11월 27일)부터 조선인 관원이 있는데도 외국인을 대리로 삼는 것이 매우 구차스럽고 다른 나라의 비웃음을 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알렌Horace N. Allen 대신 그보다 직위가 낮은 서기관 이하영을 추천하여 허락을 받아냈던 「송외부조회送外部照會」(1888년 10월 13일)까지 미국 정부 혹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이다.

이 중에는 필라델피아 하원 의원 오닐John Henry O'Neall이 박정양 공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친구인 데이비스Robert H. Davis를 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추천한 「내민선원동사원온의일서來民選院董事員溫宜日書」(1888년 1월 12일)가 있다. 또 참찬관 알렌이 워싱턴을 떠나 도쿄에 머물고 있는 박정양에게 자신의 권유로 영약삼단을 어겼음을 입증해주는 편지인 「내안련찰역본來安連札譯本」(기축 2월 초5일 도쿄에서 접수)과 편지의 한문 원본 「안련찰安連札」(1889년 1월

25일 발송)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조선이 속방임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려고 영약삼단을 요구했으나 박정양이 이를 거부하고 자주외교를 펼치자 소환했는데, 알렌은 박정양이 귀국 후 중국의 처벌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서 영약삼단의 위반 과정을 적으면서 자신이 주도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알렌 자신이 위반의 책임을 지겠다는 선의도 있지만, 이를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둘째, 박정양 공사가 재임 중 참찬관 알렌의 주도와 알선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관련된 문서이다. 「미국인약초美國人約艸」(1888년 10월 10일)는 미국인 뉴욕법관 '달 능돈' 등이 '조선기계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 철로 및 양수기, 가스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 등이다. 특히 그들이 경인선 설치를 제안한 사실은 아직 알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미국인의 제안에 대해 알렌은 "규약 초안은 매우 좋다.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이것에 의거해서 시행하면 경성의 번화스럽기가 세계 각국과 서로 상동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양이 「철도약장鐵道約章」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보고한 내용이 최근에 밝혀졌을 뿐이다. 즉, 그는 미국에서 한국을 보호하느냐 여부는 철도를 윤허하느냐 여부에 있지 않는데, 만일 우리가 스스로 처리한 것을 윤허하고 15년을 약정하면, 저들이 전적으로 수세收稅할 것이므로 뒷날에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약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고종에게 일본철도회사에 탐문하여 그 이해를 비교하여 보고 사리에 맞게 작정하더라도 늦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결정을 조금 늦출 것을 건의했다. 「철도약장」의 원본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는데, 「미국인약초」를 통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철도 전사前史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광산에 관련된 「광사미국인피어서규칙礦師美國人皮於瑞規則」(1889년 5월 19일)도 있다.

셋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상재는 공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주요 사항을 적어 두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Stephen Grover Cleveland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미국각부장관직성명美國各部長官職姓名」, 「대심원두등장관大審院頭等長官」, 「주차미국각국공사駐箚美國各國公使」, 「미국파송각국공사美國派送各國公使」, 자신이 만났던 주요 「미국인美國人」, 「각부장 관소견일各部長官所見日」, 「각처신문사各處新聞社」, 「화폐층수貨幣層數」, 「상항소견인桑港所見人」, 「아국인재미국자我國人在美國者」, 「아국인재일본자我國人在日本者」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록』의 "부附 일본관日本館 덕공관德公館 해지관海地館"에 해당되는 미국 이외의 각국 공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내일본서리공사적우 사랑서來日本署理公使赤羽四郎書」(1887년 12월 9일)와 그 답신, 「내덕국공관조회來德國公館照會」(1888년 2월 1일), 「내불국공관조회來佛國公館照會」(1888년 5월 7일), 「내해지국공관조회來海地國公館照會」(1887년 12월 2일, 1888년 5월 7일) 등이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박정양은 1887년 8월 18일 주미전권공사로 임명된 후 청국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1월 12일 서울을 출발, 1888년 1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한 다음 1월 9일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1월 17일 그는 파미의 전제조건이었던 영약삼단을 어긴 채 이상재 등을 대동하고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국서를 봉정하였으며 공사관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박정양은 삼단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월 19일 서기관 이상재와 함께 귀국길에 올랐으며, 일본에 3개월 넘게 머물면서 이상재를 먼저 귀국시켜 정계의 동향을 살폈고, 1889년 2월 일본을 출발해 8월 20일에야 비로소 국왕에게 복명하였다.

『수록』은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업무와 활동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수록한 귀중한 사료이다. 따라서 『수록』은 주미전권공사 혹은 주미공사관의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공사관원이 직접 기록한 귀중한 문서일 뿐 아니라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月南李先生 諱商在 神道碑銘幷序 〈월남이선생 휘상재 신도비명병서〉

歲丁卯二月二十七日 月南李公商在 以疾終于漢城齋洞齋洞 年七十有八 於是故推公爲長如新幹會 敎育協會 朝鮮日報社 墅公所主持中央靑年會等 二百四十團體 分部治喪 用社會葬禮 擧窆于韓山先塋 夫人劉氏之墓(後二十一年丁酉五月移窆于楊州郡長興面三下里 夫人亦合祔于左)

旣襄事 衆謂公風槩昭著 表臬震方 宜有記纂 以訊於後 乃胥錄公行事辜較 屬寅普爲銘 將以鋟之貞石 寅普後生也 從公游處之日淺 然竊觀公 生平之意 亢爽擧帆區區錄錄 營己苟求 時俗之榮辱得喪 常人之憂愉 小智曲度 朝計而夜稽 暮爲而曉復 悉百骸九竅六臧 而樵悴愁思 弊諸齷齪之區 而不悔者 公於是槪絶焉 故氣以直放 浩乎若循 太虛而行 公之所以爲公者 其在是與 公終身居貧甚 或日不得一食 而意常夷然 公故人某常言 與公徃還數十年 竟不聞一語及家居狀 公非勉爲是忍默米鹽淩雜氣空之矣

隆熙丁未 李完用用事故 重公欲推轂 公爲法部大臣 屢介人請公 公以詼調拒焉 公非勉爲 是偃郤腐鼠蟲蛆 氣格之矣 方己未獨立運動之起也 公被執繫獄 問某事輒對 以謀爲之者我也 問某言輒對 以始發之者我也 徃徃茫然莫曉其爲誰 而公自以身承之如響 旣出或咎之曰 何不少自辨乎公歎曰 子爲我固善顧 是時早夜罣捕匈匈不止 滿獄皆是也死生不可測 吾即辨事 將有所歸 寧悉自承 而身代之耳 知其事者 皆推公以爲難 然公非勉爲 是蒙任種族急難 氣有所不能忍矣

公晩節 崇信基督敎 爲皇城中央靑年會總務 國變苟媚之徒 受有勢者約束 謂靑年會 當由朝鮮人獨制冀假 是以排拫西洋敎士 俾勿與而後 安收其權 數徃來通言外廷緣無賴 突入會館歐辱人 公不爲動 持之益力 或密語公曰 公老矣棲棲東西無一瓦之庇 請以金五萬版奉公矣 公擧手搔頭笑曰 窮空吾分也 一朝暴富 子祈吾死耶 其人不敢復言 當是時微公支拄 靑年會幾解 世多以此稱公 然公非勉爲 是堀强義在必拒 氣有所不可屈矣

高宗丙申 朴定陽爲首輔引公 總內閣文書 持大體多所匡正 一日有命 復置轉運司

公執不宣 帝命度支大臣閔種默 招公諭之 公附奏曰 轉運司初置 掊克溢尤 民不堪命 亂之始生 職此之故寧可復耶 公還廳夜二鼓矣 叅政沈相薰 退自見上色 慘然曰 李局長何戇也 上方震怒 殿上下趨走惴惴 吾輩恐不能爲地奈何 時叅贊閔丙奭在坐 相薰謂丙奭 公可更入稟 萬一猶可回也 會有命召叅贊丙奭入 旣入久不出 相薰 彷徨廳上獨語曰 死矣 可惜好人才如是者屢 迫曉丙奭出 相薰曰何如 丙奭曰 促召李局長來 上意大悟 亟稱李局長忠 轉運司今罷矣 公時待罪旁軒 感帝悟遽泣下曰 有君如此 而輔之不以其道 致國家僨誤至此 凡北面者 皆可誅也 轉運司竟罷 公卿間久載其言 咸以爲無愧古名臣之節 然公非勉爲 是爭執賭國利害氣有所不可奪矣 夫是五者 或近於達 或近於介 或近於仁 或近於貞固 或近於讜直 然謂公爲達 爲介 爲仁 爲貞固 爲讜直 轉不若蔽諸浩浩之一 氣爲愈得公之眞而欲知公之氣 又不可不知 公天性不苟傲岸人世 私算絶於意慮 故無物焉以妨 其易直 而氣由之充也

嗚呼 以公之生平爲氣 一靑年會死咋 而不以與人 而況國乎 一官司之罷置 委性命而爭之 況大政乎 顧乃事權 不屬回皇 庶僚視國家之覆敗 而無如之何 氣不自持 亦嘗聯貞士 叫號痛哭 獨立協會初立 公崎嶇其間 心血盡矣 逮牽連入獄 而時事已大謬 自是齎志莫展 鬱鬱而終 又何忍稱述緖餘 以重戚公魂魄九原哉 顧是則然矣 而天下之事 運於著者 其功小而近 運於隱者 其功大而遠 原國家之敗 由於習尙之壞 而各封其私 義毁而氣餒 今以公浩浩之氣 不沮不懾 皎然獨峙 以一身標三韓古宗愛類之風 而蚊蝱敖暴 曾不足以游其一睨 以是爲蘭湯 以是爲芳薰 沐浴民萌之 志於微眇之先 而爲之菌桂 爲之辛椒 以郁烈之 爲之焌爟 以昭耀之 爲之鐏于丁寧 以振動之 如公又何恨於不展哉

公字季皓韓山人 牧隱先生之後也 父羲宅監役 母朴氏 公少憙從俠 少爲紙牌戲 監亦公怒之 旣而折節爲士人 行入漢城 客朴定陽家 前後十數年 屛絶干囑 操履嚼然 始任爲郵政局主事 丁亥充公使館書記官赴美 還歷右副承旨 學務衙門叅議 外國語學校長 辟內閣總書 官制改易 又爲議政府總務局長 丁未 授議政府叅贊 未幾國變 公顓委身社會 每登壇宣說 感憤旁溢 公狀貌英偉善談笑 以早涉宦塗

親見佻達庸陋之徒 據勢顧眄意侮之 由是 發辭多宕 性且骯髒喜把弄 重以數投獄 厭對持簿吏 詼嘲益甚 己未之役 日法吏 問朝鮮謀獨立何居 公遽瞬目 謂日法吏可伸手向我 日法吏故知公善諧 且爲其老 强忍伸手向之 公徐以手就合焉 左右觀者皆怪笑 頃之收手而退曰 如是已如是已言 合其所不當合則合必離 以兩人手狀之 其臨時取譬 聞者解頤 如此類甚衆 或以諸古滑稽之雄 不知公之爲是實所遇使之然 而其意益可悲也

樂育年少其游 如儕伍騃者 或恃愛發不遜語 公與爲慢詈益歡 夏夜不冠徒跣 出巷陌間 共車夫販翁 坐菸烟交 拂笑局局不止 或以其混俗無忤 游處易狎 怪磈磊之氣 何所柢而時發而不知 氣矜不循於一己 故處種族 而白刃不畏 慮公家而雷霆斧鉞之威不懾也 前卒之夜 兪鎭泰洪命憙候問 公强起坐與語慨然曰 吾自分委尸 西間島北間島厓谷中 語未了而歎 二人者出 公體已變矣

子男女五人 男長承倫 次承仁 獨立協會之解也 公繫獄久乃得釋 而李根澤驟幸 甚閔公泳煥 甚以公閔公所善 欲誣公以連閔公 復逮公父子繫獄拷掠 承仁幾死卒不服 後官至郡守 次承侃 皆先公卒 次承俊 女適尹公燮 承倫子宣稙 女趙南鵬 姜錫敏 金東連 宣稙子鶴珪 郡守子翰稙 鴻稙 女金南洙 朴源命 承侃子安稙 女趙南洙 趙誠壽 趙東顯 承俊子冏稙 餘幼 銘曰

聖有明訓 人生也直 蜎蜎智巧 乃蠱乃蝕 自詑其壽 昧腹已胞 甘亟糞溲 謂工謀已挺挺惟公 天與鬚眉 率性慷慨 兒女當時 貧不吾愁 死不吾畏 五毒號譽 直前不避 輦金穰穰 曾不給視 金縷盤花 髹輪雙驪 亦不怒嗔 詼調却之 何突何度 何諏何咨 惟私不梗 我道自恢 浩氣返虛 咳唾倏古 無謂公遠 公志在汝

檀君紀元四二六一年(一九二八)戊辰十月 日

東萊 鄭寅普 撰

〈월남이선생 휘상재 신도비명병서 번역〉

정묘(丁卯, 1927)년 2월 27일에 월남 이상재(月南 李商在) 공께서 한성(漢城)의 재동 우사(齋洞寓舍)에서 병환으로 생애(生涯)를 마치셨으니, 나이 78이었다.

이 때에 있어서, 전에 공(公)을 장(長)으로 받들었던 신간회(新幹會)·교육협회(敎育協會)·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및 공(公)께서 주관(主管)했던 기독교 황성 중앙청년회(基督敎皇城中央靑年會) 등 240단체(團體)가 부서(副署)를 각각 나누어 맡아 치상(治喪)해서 사회장(社會葬)의 전례(典禮)로써 한산(韓山) 선영(先塋) 부인 유씨(劉氏)의 무덤에 합장(合葬)했다. 〈31년 후인 정유(丁酉, 1957)년 5월에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楊州郡 長興面 三下里)에 이장(移葬)했으며, 부인도 또한 왼편에 합장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공(公)께서는 풍격(風格)이 높으시어 우리 동방(東方)에서 표준이 되셨으니 마땅히 사적(史蹟)을 기록하여 후세(後世)에 전해야 할 것"이라 하고 공의 행적의 대강을 추려 써서 인보(寅普)에게 주고 비명(碑銘)을 청했으니 이는 장차 돌에 새기려는 것이다.

인보(寅普)는 공(公)보다도 뒤늦게 낳아서, 공을 좇아 교유(交遊)한 것이 별로 많지 못하다. 그러나 공께서 살아 계실 때의 의지(意志)를 살피건대, 높이 뛰어나시고 시원스러워서 무리에서 벗어나셨다. 사람들은 잣달고 용렬하여 자기를 위하는 일은 구차스럽게 구하여 시속(時俗)의 영욕(榮辱)과 득실(得失)을 가지고 기뻐하고 근심하며, 잔꾀와 그릇된 판단으로 아침에 일은 계획했다가 저녁에 중지하고, 밤에 한 일을 새벽에 번복(翻覆)하여, 온갖 정력(精力)을 기울여서 애태우다가 파멸(破滅)의 지경에 이르러도 이를 뉘우칠 줄 모른다. 그러나 공께서는 이런 것을 완전히 끊고 뚜렷이 뜻이 높으셨으니, 그 호연(浩然)의 기운을 발(發)하심이 마치 태허(太虛, 하늘)를 좇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공(公)의 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랴!

공(公)께서는 한 평생을 통하여 가난함이 심해서, 어떤 때는 하루 한 끼의 밥도 얻지 못했지만 뜻이 오히려 태연(泰然)하셨다. 공의 옛 친구인 모씨(某氏)가 언제나 말하기를, "공(公)으로 더불어 왕래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일찍이 한마디 집안 살림 형편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했다. 이것은 공(公)께서 애써 이처럼 양식이나 반찬 따위의 자질구레한 것을 찾아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公)은 마음 속에 이러한 잡된 기운이 하나도 없었던 때문이다.

융희(隆熙) 정미(丁未, 1907)년에 이완용(李完用)이 당로(當路)했을 때, 공(公)을 소중히 여겨 공을 법부대신(法部大臣)으로 추천하려 하여 여러 번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청했으나, 공은 농담으로 이를 거절했으니, 공이 애써 비천(卑賤)한 자의 청하는 것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기개(氣槪)가 곧았기 때문이다. 기미(己未)년에 독립운동(獨立運動)이 일어나자 체포되어 옥(獄)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이 계획했는가를 물으면 공(公)은 문득 "그 일을 계획한 것은 바로 나다."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말한 내용을 물으면 또한 "그 말을 처음 꺼낸 것은 바로 나다." 하여, 이따금 막연(漠然)히 그 누구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내몸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 했다.

감옥에서 풀려 나오자 어떤 사람이 탓하기를, "왜 조금도 자기 변명(辨明)을 하지 않았는가?" 하니, 공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때를 당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정탐(偵探)하고 체포해서 인심이 흉흉하여 그칠줄 모르고, 감옥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동포(同胞)들로서 이들의 사생(死生)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변명한다면 반드시 허물이 돌아갈 곳이 있기 마련이니, 차라리 승복(承服)하여 이 몸으로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 했다. 이 일을 아는 자들이 모두 공을 추앙(推仰)하여 어려운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이는 공께서 애써 겨레의 위급(危急)함과 환난(患難)을 도맡으려 한 것이 아니라, 기개(氣槪)가 참지 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公)께서는 만년(晩年)에 기독교(基督敎)를 신봉(信奉)하여 황성중앙청년회(皇城中央靑年會) 총무(總務)가 되었다. 나라 일이 변하자, 아첨하는 무리가 권세있는 자의 약속을 받고 말하기를, "청년회(靑年會)는 마땅히 조선 사람이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고 외세(外勢)를 빌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西洋)의 교직자(敎職者)를 배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여치 못하게 한 뒤에야 그 권한을 편안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자주 왕래하면서 말을 전하고, 그 밖에 또 무뢰배(無賴輩)를 끌어들여 회관(會館) 안으로 돌입(突入)하여 사람을 때리고 욕보였다. 그러나 공은 추호(秋毫)도 흔들림이 없이 이를 유지(維持)하기에 더욱 힘썼다. 이때 어떤 사람이 비밀히 공에게 말하기를, "공(公)은 늙으셨건만 동·서로 전전(轉轉)해 살면서 몸을 의지할 집 한 채도 없으시니, 5만 원(圓)을 공에게 드리기를 청합니다." 했다. 그러나 공은 손을 들어 머리를 긁으면서 웃고 말하기를, "궁핍(窮乏)한 것은 나의 천분(天分)인데, 하루 아침에 졸부(猝富)가 되라니, 그대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인가?" 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감히 돈에 대한 말을 되풀이하지 못했다. 이 때를 당하여 공(公)의 버티는 기운이 아니었다면 청년회(靑年會)는 거의 해산(解散)될 뻔했으니, 세상에서 이 일을 가지고 공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께서 애써 이처럼 굳세어서 의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절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공의 기개(氣槪)가 남에게 굽히지 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高宗) 병신(丙申, 1896)년에 박정양(朴定陽)이 수상(首相)이 되어 공(公)을 인진(引進)하여 내각의 문서(文書)를 도맡게 하니, 대체(大體)를 유지하여 바로잡힌 바가 많았다. 어느날 다시 전운사(轉運司)를 설치한다는 명령이 있었지만 공(公)께서 고집하여 선포(宣布)하지 않았다. 이에 황제(皇帝)께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종묵(閔種默)에게 명하시어 공을 불러 효유(曉諭)케 했으나 공은 아뢰기를, "전운사(轉運司)를 처음 설치했을 때에 가혹(苛酷)하게 재물을 거두어 들여서 백성이 견디지 못했으니, 이것이 바로 혼란이 빚어지는 원천(源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어찌 전운사를 다시 설

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사(廳舍)로 돌아왔을 때는 밤2경(更)이었다.

뒤 미처 참정(叅政) 심상훈(沈相薰)이 승후(承候)하고 물러나오면서 주상(主上)의 안색(顔色)을 살펴보고 참담(慘憺)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이국장(李局長)은 왜 그다지도 고지식하오. 상(上)께서 방금 진노(震怒)하시어, 대궐 안에서 시종(侍從)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행동하면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소." 했다. 이때 참찬(叅贊) 민병석(閔丙奭)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상훈(相薰)은 병석(丙奭)에게 이르기를, "공(公)이 다시 들어가 상(上)께 아뢰면 만(萬)에 하나라도 돌이킬 수 있을 것이요." 했는데, 때마침 참찬(叅贊) 민병석(閔丙奭)을 부르는 명령이 있어서 대궐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지 오래 되어도 나오지 않자 상훈(相薰)은 대청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혼잣말로 "이제는 죽는구나. 아깝게도 훌륭한 인재(人才)가……" 하기를 여러 번 했다. 새벽에 가까워서야 병석(丙奭)이 대궐로부터 나오자, 상훈(相薰)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병석(丙奭)이 말하기를, "이국장(李局長)의 충성을 칭찬하시고 이제 전운사(轉運司)의 설치를 정지(停止)하셨오." 한다.

이때 공(公)께서는 옆 방에서 대죄(待罪)하고 있다가 황제(皇帝)의 깨우치심에 감격하여 문득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같은 밝으신 군주(君主)가 계신데도, 신하들이 바른 도리로 보필(輔弼)하지 않아서 정사를 그르쳐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모든 북면(北面)①해서 신하노릇하는 자가 모두 주벌(誅罰)을 받아야 할 것이다." 했다. 전운사(轉運司)가 마침내 혁파(革罷)되었으니, 공경(公卿)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그 말을 입에 올려서, 옛날의 명신(名臣)의 절의(節義)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께서 애써 나라의 이해(利害)를 계교하여 다루고 고집(固執)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개(氣槪)가 남이 빼앗을 수 없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위에 말한 다섯 가지는 혹 달관(達觀)에 가깝고, 혹 개결(介潔)에 가깝고, 혹 인애(仁愛)하고, 정고(貞固)하고, 당직(讜直)②에 가깝다. 그렇지만 공(公)께서 달관(達觀)하고, 개결(介潔)하고, 인애(仁愛)하고, 정고(貞固)하

고, 당직(讜直)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저 한 마디로 '호연(浩然)의 기(氣)'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공(公)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 또 공의 호연(浩然)의 기(氣)를 알려면 또한 공의 천성(天性)이 구차(苟且)하지 아니하여 세상에 우뚝 솟아 나시어 한 개인(個人)을 위한 타산(打算)을 염두(念頭)에 두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외물(外物)이 그 이직(易直)③함을 방해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氣)가 가슴 속에 충만(充滿)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아! 공(公)의 평상(平常) 기개(氣槪)가, 한 청년회(靑年會)조차도 죽기를 결단하고 남에게 주지 않았거든 하물며 나라이겠는가! 또한 관청의 설치 여부(與否)도 목숨을 걸고 다루었거든 하물며 대정(大政)이겠는가! 맡은 직무(職務)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혹(迷惑)하거나 방황(彷徨)하는 일이 없으셨던 것이다. 관료(官僚)들이 나라의 기울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니, 그 기개(氣槪)를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또한 일찍이 정사(貞士)④들로 더불어 부르짖으며 통곡하기도 했다. 독립협회(獨立協會)가 처음 설립(設立)되자, 공(公)은 거기에서 애써 활약하시어 심혈(心血)을 기울이셨다. 일에 연루(連累)되어 붙잡혀서 옥(獄)에 들어가시니 세상 일이 이미 크게 어긋났다. 이 때로부터 뜻을 펴지 못하시고 울분(鬱憤)한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생애(生涯)를 마치셨다. 어찌 차마 나머지 일들을 서술(敍述)해서 구원(九原)⑤에 계신 공의 혼백(魂魄)을 거듭 슬프게 하랴! 참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 나타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공적(功績)이 작고도 비근(卑近)한 것이며, 그 은미(隱微)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공적이 크고도 먼 것이다. 원래 나라가 패하고 망하는 것이 미속(美俗)이 무너져 사람이 저마다 사리(私利)를 취하면서 의리가 파괴되고 정기(正氣)가 없어지는 데에 인연하는 것이다. 공(公)의 호연(浩然)의 기(氣)는 저상(沮傷)되지 않고 위축(萎縮)되지 않아서, 해와 달처럼 빛나 우뚝 솟아나셨다. 고대(古代) 우리 선조(先祖)의 겨레 사랑하는 기풍(氣風)을 한 몸에 간직하시어, 소인배(小人輩)

의 오만(傲慢)과 횡포(橫暴)를 곁눈질조차도 않으셨으니, 이것을 난탕(蘭湯)⑥으로 삼고 방향(芳香)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醇化)시켰으며, 균계(菌桂)⑦로 삼고 신초(辛椒)⑧로 삼아서 향기를 더욱 높이고 준관(焌爟)⑨으로 삼아서 빛나게 하였으며, 순우(錞于)⑩ 정녕(丁寧)⑪으로 삼아서 진동(振動)시키셨으니, 공(公) 같은 분이 또 어찌 뜻을 펴지 못한 것을 한(恨)하랴!

공(公)의 자(字)는 계호(季皓)이니 한산(韓山) 사람으로서 목은선생(牧隱先生)의 후예(後裔)이시다. 아버지는 희택(羲宅)이니 감역(監役)을 지냈고, 어머니는 박씨(朴氏)이다. 공(公)은 소시(少時)에 협객(俠客)을 좇아 놀기를 좋아했다. 또 투전놀이를 하다가 아버지 감역공(監役公)의 노염을 사기도 했다. 이에 행동을 고쳐 선비가 되고, 한성(漢城)으로 올라가 박정양(朴定陽)의 집에 객(客)으로 있은 지 전후 십수 년에 모든 청탁(請託)을 물리쳐 끊어서 지조(志操)를 지킴이 확고(確固)했다. 처음 벼슬하여 우정국 주사(郵政局主事)가 되고, 정해(丁亥, 1887)년에 공사관 서기관(公使館書記官)에 임명되었다가 미국(美國)에서 돌아와서 우부승지(右副承旨)·학무아문 참의(學務衙門 叅議)·외국어학교장(外國語學校長)을 거쳐 내각총서(內閣總書)에 선임(選任)되었으며, 관제(官制)가 고쳐지자 다시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이 되었다. 정미(丁未, 1907)년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叅贊)이 되고, 얼마 안 되어 나라가 변혁(變革)되자 관직(官職)을 떠나 사회사업(社會事業)에 몸을 맡겼는데, 단상(壇上)에 올라 연설(演說)할 때마다 강개(慷慨)와 분노(憤怒)가 고조(高調)되곤 했다.

공(公)은 상모(狀貌)가 훤칠하고 담소(談笑)하기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관계(官界)에 발을 들여 놓았을 적에 경박(輕薄)하고 용렬한 무리들이 권세(權勢)를 배경(背景)으로 사람들에게 과시(誇示)하는 것을 보면 경멸(輕蔑)하는 뜻이 있었다. 이런 때문에 자연 언사(言辭)가 호탕(浩蕩)한 경우가 많았다. 성품이 강직(剛直)하고 농담(弄談)을 매우 좋아하셨으니, 여러 번 투옥(投獄)되었을 때에도 기록을 맡은 벼슬아치로 더불어 친숙해져서 농담이 더욱 심한 적도 있었다.

기미(己未, 1919)년 독립운동(獨立運動)때 일인(日人) 법관(法官)이, “조선(朝鮮)이 독립을 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묻자, 공(公)은 갑자기 눈을 깜빡거리시더니 법관에게, “손을 펴서 내게 내밀라.” 하셨다. 그 일인 법관은 공(公)이 본래 농담(弄談)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늙으신 것을 생각하여, 억지로 참고 하라는 대로 손을 펴서 공에게로 내밀었다. 공은 천천히 그 손을 가져다가 자기 손바닥과 합치니, 보는 사람들은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웃었다. 그러나 공은 곧 자기 손을 거두어 가지고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기를, “이같을 뿐이다.” 하셨다. 이것은 합쳐서 안 될 것을 합치면 반드시 멀지 않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의 손을 가지고 비유해서 보인 것이니, 그 임시변통(臨時變通)으로 비유를 든 것을 듣는 자들은 모두 감탄(感歎)해 마지 않았다. 이 같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公)을 옛날의 골계(滑稽)의 대가(大家)에 비유하는데, 이는 공(公)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처지(處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니, 그 뜻이 더욱 높도다.

나이 젊은 사람들을 북돋아 기르기를 좋아하시어, 그들과 함께 놀기를 마치 같은 연배(年輩)의 친구처럼 하셨으며, 어리석은 자가 혹 공(公)이 사랑해 주는 것을 믿고 불손(不遜)한 말을 꺼내기도 했지만, 공께서는 조금도 개의(介意)치 않고 더욱 즐기셨다. 여름 밤에 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로 거리에 나가시어, 차부(車夫)·장사꾼들로 더불어 함께 앉아서 담배를 주고 받으며 쿡쿡 웃기도 하셨다. 그 세속(世俗)에 혼동(混同)하여서 거슬림이 없고, 사람들과 상종(相從)하여서 쉽게 친압(親狎)하심을 볼때 저 뇌락(磊落)한 기상이 어디로 좇아 나와서 때로 발현(發現)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의기(意氣)가 왕성(旺盛)하시고 내 한몸을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족(種族)을 위해서는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사(公事)를 근심하는 데에 있어서는 뇌정(雷霆)·부월(斧鉞)의 위세(威勢)도 겁내지 않으셨다.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유진태(兪鎭泰)·홍명희(洪命憙)가 가서 문후(問候)했는데, 공(公)께서는 억지로 일어나

앉으시어 말씀을 나누셨으며 개연(慨然)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신(屍身)은 서간도(西間島)나 북간도(北間島) 산골짝 속에 버려야 할 몸이다." 하셨다. 찾아간 두 사람이 문을 나서자 공의 몸은 이미 변했었다.

자녀(子女) 다섯이 있으니, 장남은 승륜(承倫), 차남은 승인(承仁)이다. 독립협회(獨立協會)가 해산되고 공(公)께서 옥(獄)에 갇히셨다가 오랜 뒤에야 풀려났었다. 이근택(李根澤)이 별안간 은총(恩寵)을 받게 되자, 민영환(閔泳煥)을 미워함이 심하여, 공(公)께서 민공(閔公)과 친밀한 것을 기화(奇貨)로 공을 무함(誣陷)하여 민공(閔公)에게 연루시키려 하여, 다시 공의 부자(父子)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拷問)을 가하여 승인(承仁)은 거의 죽을 뻔했으나 끝까지 불복(不服)했고, 뒤에 벼슬이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그 다음 아들은 승간(承侃)이니, 모두 공(公)보다 먼저 죽었다. 또 그 다음 아들은 승준(承俊)이며, 사위는 윤공섭(尹公燮)이다. 승륜(承倫)은 아들이 선직(宣稙), 사위는 조남붕(趙南鵬)·강석민(姜錫敏)·김동련(金東連)이다. 선직(宣稙)의 아들은 학규(鶴珪)이다. 군수(郡守) 승인(承仁)의 아들은 한직(翰稙)·홍직(鴻稙)이요, 사위는 김남수(金南洙)·박원명(朴源命)이다. 승간(承侃)의 아들은 안직(安稙), 사위는 조남수(趙南洙)·조성수(趙誠洙)·조동현(趙東顯)이다. 승준(承俊)의 아들은 경직(冏稙)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명(銘)에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밝은 가르침 있으니,
인생(人生)이란 오직 곧아야 하네.
간교(奸巧)한 지혜는 본성(本性)을 좀먹고,
안일(安逸)을 탐하고는 의리를 저버려,
온갖 술수(術數) 다해서 제 몸의 영화(榮華)만 구하는 법.
그러나 강직(剛直)한 공(公)은 하늘이 낸 사람,
소인배(小人輩)가 판치는 세상에,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네.
오독(五毒)⑫ 앞에 사람들은 죄 없음을 부르짖건만,
공(公)은 앞으로 나가서 피하지 않으셨네.

거마(車馬)도 황금도 거들떠 보지 않으셨고,
수 놓은 화려한 비단, 두 필 말이 끄는 찬란한 수레도,
성내지 않고 농으로 물리치셨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교하며,
오직 사리(私利)를 배격하시어 인간의 길 밝히셨네.
호연(浩然)의 기상은 하늘로 돌아가고,
기침 소리 영영 들을 길 없네.
공(公)이 멀어지신 것 말하지 말라.
오직 공의 뜻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네.
했다.

단기(檀紀) 4261(1928)년 무진(戊辰) 10월 일

동래(東萊) 정인보(鄭寅普) 지음

〈 註 〉
① 北面 : 북쪽을 面함. 臣下가 됨. 臣下의 座位
② 讜直 : 마음이 곧음.
③ 易直 : 음이 「이직」. 곧은 것을 말함.
④ 貞士 : 지조(志操) 있는 사람
⑤ 九原 : 저승
⑥ 蘭湯 : 난초를 다린 물. 향기 있다는 것을 뜻함. 여기에서는 공(公)의 겨레를 사랑하는 인간(人間)의 향기를 표현한 것임.

⑦ 菌桂 : 육계(肉桂)를 말하는 것으로서 역시 향기가 있음.
⑧ 辛椒 : 산초를 말함. 잎에 특이한 향기가 있다.
⑨ 焌爟 : 불태워서 강렬하게 발산(發散)시키는 것을 말함.
⑩ 錞于 : 북에 맞추어 울리는 쇠로 만든 악기(樂器)
⑪ 丁寧 : 징과 비슷한 악기(樂器)
⑫ 五毒 : 다섯 가지 형구(形具)를 말함.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인에게 체포 투옥(投獄)되어 갖은 형벌을 당한 것을 말함.

月南李先生 追慕碑文〈월남이선생 추모비문〉

先生의 諱는 商在요 字는 季皓요 月南은 그의 號이시니 韓山李氏 牧隱선생의 후손이시다. 西紀一八五〇年 十月二十六日 忠淸南道 舒川郡 韓山面 種芝里에서 부친 羲宅公과 모친 密陽 朴氏의 맏아드님으로 태어나셨다.

先生은 風雲짙은 韓末에 나시어 韓日合邦의 國恥를 당하시고 날로 악랄해가는 日帝의 혹독한 植民地 탄압정치 아래서 오로지 祖國 光復을 위하여 不屈의 氣慨와 항상 푸른 젊음과 高邁한 人格을 諧謔과 熱辯속에 담으시면서 이 民族의 갈길을 인도해주신 이 땅의 鉅人이시다.

先生은 政治家로서 敎育家로서 言論人·宗敎家로서 온 生涯를 그대로 民族의 獨立을 위해서 바치셨다. 混沌과 腐敗로 어지러운 世態에 剛直하신 성품과 뛰어난 力量으로 不正과 不義를 꺾고 外勢依在의 痼病的 事大風潮를 果敢하게 물리치기에 心血을 기울이셨다.

三十八世 때 駐美公使館 書記官으로 渡美하여 淸國의 온갖 阻害를 막고 美國과 國交를 맺어 우리 나라 外交史上 처음 있었던 盛事를 이룩하셨고 그 뒤로 여러 벼슬을 거쳐 承政院右副承旨 겸 經筵閣 叅贊의 重任을 맡으시어 政治的 力量을 발휘하시기도 했으나 옳지 못한 制度나 法令은 設使 그것이 王命

에 의한 것일지라도 끝내 眞實을 밝혀 民衆의 살 길을 열어 놓고야 말으셨다.

日帝의 魔手가 이 江山을 점점 조여오자 獨立協會의 指導者로서 獨立運動의 第一線에 몸을 던지셨다. 民衆을 向해서는 大河의 흐름같은 熱辯을 吐하셨고 젊은이를 만나시면 뼈있는 諧謔으로 그들에게 民族魂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나 그 熱辯속에는 항상 忿鬱한 心事가 숨어 있었고 諧謔 속에는 언제나 慷慨한 회포가 서려 있었다.

乙巳의 國恥를 당하자 皇城基督敎靑年會의 指導者로서 靑年 學生들을 인도하여 組織的인 排日運動을 펴나가셨고 또 朝鮮敎育協會를 創立하고 그 會長에 被任되어 靑年敎育에 힘쓰셨다. 高齡과 老衰를 돌아보지 않고 朝鮮日報社長에 취임하시어 活躍하신 業績은 또한 크셨다. 臥病中에도 新幹會長의 職을 맡으시어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두 陣營이 한데 뭉쳐 共同의 敵인 日帝와 투쟁하도록 指導하셨다. 大多數의 指導者들이 殺戮을 主張할 때 先生은 홀로 非暴力·非武裝을 提唱하시어 三·一 운동의 方向을 잡아주신 일은 人類史上 처음 있었던 達觀이었다.

先生은 이 땅의 鉅人이시다. 貧窮이 끝내 그 뜻을 옮기지 못했고 貴育이 그 지조를 뺏지 못했다. 氣慨는 하늘처럼 높으셨고 度量은 바다와 같이 넓으셨다. 志操는 바위처럼 굳으셨고 信念은 松栢과 같이 변치 않으셨다. 그 精神은 한없이 맑으셨고 去就는 항상 분명하셨다. 態度는 確實하셨고 生活은 지나치리만큼 儉素하셨다. 가장 平民的이면서도 進步的인 民衆의 先驅者이셨다.

一九二七年 三月 二十九日 七十八歲를 一期로 夢寐에도 그리시던 祖國光復의 밝은 날을 보시지 못한 채 서울 齋洞에서 易簀하시니 國民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더 많은 눈물을 뿌리고 이나라에 처음 있는 社會葬의 行列을 따라 沿道마다 모여들어 嗚咽을 그칠 줄 몰랐다.(當時 韓山에 모셨던 先生의 墓所는 一九五七年 五月에 京畿道 陽州郡 長興面 三下里로 移葬하고 墓碑를 세웠다.)

이제 光復 三十周年을 맞는 이 光明된 하늘 아래에서 先生의 遺志를 追慕하는 舒川郡民들이 뜻을 모아 여기에 先生을 기리는 紀念碑를 세우는 바이다.

※ 선생의 자세한 行蹟은 앞에 있는 爲堂 鄭寅普氏의 神道碑文에 실려있다.

一九七五年 月 日
傍孫 奭求 謹識

月南 李商在先生 行狀 〈월남 이상재선생 행장〉

公諱商在 子季皓 號月南 姓李系出韓山大姓 有諱穀 高麗修文殿大提學 諡文孝 公號稼亭 生諱穡 高麗門下侍中 諡文靖 公文章節義 爲世大賢 學者稱牧隱先生 生諱種德 高麗知密直司事 諡文襄 公生諱孟畛 始仕本朝 官判中樞院事 寔爲公十四世祖也 屢傳至公高祖諱德漢 配慶州李氏 父萬載 曾祖諱東桓 配錦城羅氏 父世緯 祖諱慶萬 配扶安金氏 父安耆 考諱羲宅 繕工監假監役 配密陽朴氏 父道淳公於哲宗元年 庚戌十月 二十六日生 其品性强毅 又濟之以寬弘 識者期以遠大 十五歲時 王考學生公 墓有誣訟官司枉決 監役公被拘禁 公願以身代之 數日後得放 然枉固自如也 官適還家 遂抱狀追往 連三晝夜席藁苦懇 官乃感悟而申之 盖公之積誠感物 自幼然也

監役公 治家勤儉 教課嚴督 公又承順篤工 文藝夙就 弱冠時游京師 始與竹泉朴公定陽甚善 高宗帝辛巳 選名官幾人 送日本視察 其維新情形 朴公亦被選要公伴往 公强許之 乃同往東京滯留數朔 周察各省制度 及民間風俗以歸

其後朝廷 因科弊滋甚 特設別試 上臨殿策問 詩政得失 公因道薦應試 被選常附 直赴初試 一時文學之士多預焉 甲申倣西制 新設郵政局 公筮仕爲主事 親務於仁川港分局 多有効能 後値政變革罷 識時務者多惜之

戊子春 拜駐箚美國公使館書記官 公使即竹泉朴公也 時淸國政府 聞我國派送公使於美國 極力阻遏 駐美淸公使張蔭桓 態度甚苛刻 國書奉呈時 彼欲帶同其威脅侮辱 不可忍也 不擾不屈 終乃嚴却 克竣使事 無損國體 不辱君命 盖我國外交史上 初有之盛擧 公於其間 贊劃實多 而公使還朝後 自彼中尙 屢屢督責

危機甚迫向使罷 軟無脊骨者當之 誰能辨此哉 公之功 於是乎亦大矣

其後歷任 典圜局司事 統衛營文案等職 甲午夏陞拜 承政院右副承旨 通政階也 因差軍國機務處會議員 八月丁外艱 有起服命出 爲學務衙門叅議 時新設外國語學校 將雇聘外國人教師 駐京日本公使井上馨 强要純用日本人 公乃駁之曰 日本人雖多有 精通各國語者 豈自國人之 通自國語比哉 是不可從也 遂牢拒不聽 日使亦直其言而止之

乙未春 官制改正後 叙任學部叅書官 八月移法部叅書官 旋即辭免 翌年正月陞內閣總書 時政府猝然換局 朝野鼎沸憂危多端 公屹然於閣僚之間 主張公論 嚴防私門 時義多賴焉 因內閣官制改正 九月拜中樞院一等議官 十月移拜議政府總務局長

時有通典徑輩 熒感上聽 欲復轉運司舊制 盖更張後 一切國稅 使各郡郡守兌錢京納 這間頗有剩餘 漁利輩看作市門 欲榷取而做此奸計 不有閣議使即頒諸朝報若此制復行 將毒流生民 未知何樣 禍機伏在何地 此前鑑昭然 向在甲午東學亂之煽動於三南地者 轉運司之橫暴 亦一其因也

公是以堅執不布 近一朔之久 自上屢屢有促命 終乃天怒震疊 禍將不測 沈公相薰 爲公危之曰 事機至此 君豈能隻手扶持耶 無寧頒布 而得保身命也 公勵聲曰 乙未禍變 丙申播遷 皆由於甲午之亂 而甲午之亂 未必不由於彼 所謂轉運司則 爲今日臣子者 雖萬被誅戮 不敢將順也 吾則惟死而已 一座竦然 沈公欽歎以其言入奏上聽罷 忽然天顔開霽 玉音朗然曰 是哉是哉 亟今還入 轉運司官制仍命沈公曰 卿以予言 慰解總務局長 沈公以聖旨出諭于公 公承命惶感 不覺涕泗被面歎曰 吾皇聖德如天 恨延臣不能匡輔 每語到于此 未嘗不滿目泫然 自謂數十年立朝 未有如此日之榮耀也

戊戌春 與徐博士載弼 組織獨立協會 入會者甚衆 因朝像不靖 衆情憤慨 一日衆會員開會於獨立館 皆書死字同盟 公獨不書曰 從書無益 同年秋 以獨立協會事 被囚於警務廳 經十餘日後得放 其時一邊人搆誣協會 以謂密通 在日本亡命者 改革國政 謀爲共和制度 恐動至尊 猝有是擧盖自春至秋 協會之禪覈 當國

非政 不止一再 當局群奸 蚯結傴應 以撲滅協會爲功 獵官輩伺隙附從做出 所謂皇國協會者 以擁護君權爲話欛 而嘯聚無賴 棍棒亂起 將獨立協會 一網打盡

噫自來壓制之下 始萌之民氣 如稺陽可愛 而雷霆以震之 風箱以摧之 嗚呼獨立協會一散 而我大韓獨立 亦隨而去矣 公以主腦人物 烏能獨立免哉

是年冬 辭總務局長 自是厥後 公之危踪 彷徨於窮山僻地 而壬寅春 又爲被因於警衛院 時則閔忠正公泳煥 向自歐美還朝 自見國政日非 不勝痛恨 每犯顔苦諫 群奸側目 有將心之徒 謀去皇儲羽翼 先欲甘心於閔公 流言閔公 締結獨立協會餘黨 及在日本亡命者 欲爲顚覆政府 閔公乃肺腑貴戚 亦難率爾着手 先拘名士數人 誣成獄案 將延及于閔公

彼輩亦以公爲奇貨 而素知公堅確 難以誣服 乃逮捕公次子承仁 百方威脅 經十餘次惡刑 幾至肉綻骨碎 而一向底死峻拒 可謂是父是子也 雖如彼鬼蜮之善爲羅織者 竟不得端緒 仍爲因者 居然改三個星霜 漢東京黨錮之禍 亦豈甚於此哉

甲辰春 有日露之役 時像稍變 於是乎放出公父子 而公於在獄之日 始信基督教 此爲乃豫備 公晩年入場者歟 公還家 有外館通譯者來言 公今日之蒙放 即我公使之爲公斡旋者 公當往謝 公正色曰 我政府諒我無罪 由此釋放 豈有聽貴使之言 而左右之理哉 言者憮然而退 於斯亦可以 見公之正大 而不可以 勢利誘者也 豈不卓然哉

公素貧寒 性又淡泊 不事家人産業 中身以後 尤益困阨 居京師數十年 不能得玉川子數間 東西樓遑 至老無定所 而處之晏知也 乙巳冬 拜議政府叅贊 翌年夏 以無根之嫌 又爲被拘於警務廳 未幾放還 時日本人 丸山重俊 爲該廳顧問 公以謂不爲奏請 拘留勅任官 大是法外 不逐送重俊 决不出仕 政府屢謝未安 而終至辭免 是歲陞嘉善 此乃公官歷之始末 而逮至庚戌以後則 全然獻身於教會及社會之間 指針於迷海 明燭乎昏衢 曰宗教 曰科學每不絶于口 而嘗稱吾民族 一線生路 只在於教育 然若無道德以基本之則 是教育反爲害也 此實出於公有體有用之學問 而誠百世以俟聖人而不惑者也

盖公之信仰 能透其骨髓 不屑屑於儀式 有異於執迷而齷齪者 此可與知者 道

不可與不知者言也 在基督靑年會 宣揚眞理 誘掖後進者 近二十年于玆而盡得歡心 公之親少年如子弟 少年之親公如父兄 其親叮寧 渾然春風果不賢而能如是乎

己未春 有民衆運動 公又不免於囹圄之苦 則其白首老軀 尤非已有 如有益於民族 亦不關乎利鈍生死 向前武壓苦回避之態 而敎育集團 言論機關 皆莫不推戴公爲首 隱然爲社會元老 民衆先驅則公之高齡 已近八十大耋矣 祁寒盛暑 朝往暮歸 奔走汨沒於左右酬應 有時不遑暇食 而自然疲勞呻吟床第 已跨數朔竟以丁卯二月 二十七日卯時 考終于齋洞就屋 春秋七十有八 嗚呼 鞠躬盡瘁死以後已者 非公之謂歟

訃出擧世驚悼 皆有不慼遺一老之歎 而詢謀僉同 越三月七日 用社會葬式葬于忠淸南道 舒川郡 韓山面 芝峴里乾芝山 壬坐之原 即合祔于夫人之墓也(後三十一年丁酉五月 移窆于楊洲郡長興面三下里 夫人亦合祔于左) 夫人江陵劉氏 學生漢輔之女也 柔順貞淑婦德咸備 先公三年 丁未九月十一日生 先公二十年 丁未二月十七日卒 其周甲之年也

擧四男一女 長承倫 次承仁郡守 次承侃 女尹公燮 次承俊 承倫子宣稙 女趙南鵬 女姜錫敏 女金東連 宣稙子鶴珪 餘幼 郡守子翰稙 鴻稙 女金南洙 女朴源命 承侃子安稙 女趙南洙 女趙誠壽 女趙東顯 承俊子冏稙 餘幼 公之靈柩啓行之際 自京至山下 四五百里 途程左右 勿論遠近 一般社會之相率送迎者 殆불하수십만중 이비애여親戚 猗歟盛哉 猗歟盛哉 公果何修而能致此哉

竊惟 爲子而事父母 如公之孝順者 不患無其人 爲臣而事君 如公之正直者亦不患無其人 進而處乎社會 盡心竭力 如公之爲者 亦不無其人 而至若滿腔子一片丹衷 只有朝鮮二字 而賁育不能奪其操 貧窮不能移其心者 如今叔季混沌之世 實所罕覯 公豈有他術哉 惟平生 不失朝鮮之心 而生爲朝鮮之人 死爲朝鮮之鬼而已 如公者 眞可謂朝鮮人也 是豈非牧隱先生之肖孫也歟

既葬 葬儀委員諸氏 將請銘于當世立言之君子 囑不佞以狀德之文 不佞於平日 亦愛慕公甚者義不敢辭 玆先敍公本末如右 謹狀

潘南 朴勝鳳 謹狀

〈월남 이상재 선생 행장 번역〉

공(公)의 휘(諱)는 상재(商在)요, 자는 계호(季皓)요, 호(號)는 월남(月南)이요, 성(姓)은 이(李)이니, 가계(系出)는 한산 대성(韓山大姓)에서 나왔다. 휘(諱) 곡(穀)은 고려에서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을 지냈는데, 시호(諡號)는 문효(文孝)요, 공(公)의 호(號)는 가정(稼亭)이다. 그분이 휘(諱) 색(穡)을 낳았는데, 고려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으니,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공은 문장(文章)과 절의(節義)를 세상에서 크게 어질게 여겨 학자(學者)들이 목은선생(牧隱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이분이 휘(諱) 종덕(種德)을 낳았는데, 고려에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지냈고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이분이 휘(諱) 맹진(孟畛)을 낳았는데, 비로소 본조(本朝)에 벼슬하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으니, 이분이 월남공(月南公)의 14대조(代祖)이다. 여러 대(代)를 내려와서 공의 고조(高祖)의 휘는 덕한(德漢)이요, 그 부인은 경주 이씨(慶州李氏)로서 아버지는 만재(萬載)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동환(東桓)이요, 부인은 금성 나씨(錦城羅氏)로서 아버지는 세위(世緯)이다. 조부의 휘는 경만(慶萬)이요, 부인은 부안 김씨(扶安金氏)로서 아버지는 안구(安耉)이다. 아버지의 휘는 희택(羲宅)이니 선공감 가감역(善工監假監役)을 지냈고, 부인은 밀양 박씨(密陽朴氏)로서 아버지는 도순(道淳)이다.

공(公)은 철종 원년(1850) 10월 26일에 탄생했는데, 그 품성(品性)이 강하고 굳세었으며 그 위에 너그럽고 도량(度量)이 넓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의 원대(遠大)한 앞날을 기약했다. 15세 때에 공의 조부 학생공(學生公)의 묘소(墓所)에 잘못된 송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사(官司)에서 잘못 판결(判決)하여 공의 아버지 감역공(監役公)이 구금(拘禁)당하자, 공은 자기 몸이 대신 갇히겠다고 청해서 수일 후에 감역공(監役公)이 석방되었으나, 잘못 판결된 송사는 그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이때 마침 송사를 맡은 관원이 집에 돌아와 있는데, 공은 소장(訴狀)을 껴안고 그를 좇아가 3주야(晝夜)를 계속하여 짚자리를 깔

고 호소하자, 관원은 비로소 깨닫고 판결을 뒤집었으니, 이는 대개 공의 가슴에 쌓인 정성이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감역공(監役公)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다스리고, 공부시키는 것을 엄하게 보살폈으며, 공은 또 그 뜻을 승순(承順)해서 독실히 공부하니 문예(文藝)가 일찍 이루어졌다. 약관(弱冠) 때에 서울에 와서 비로소 죽천(竹泉) 박공 정양(朴公定陽)과 몹시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다. 고종황제(高宗皇帝) 신사(辛巳年, 1881)년에 이름있는 관리 몇 사람을 뽑아 일본(日本)에 보내어 그들의 유신(維新) 정형(情形)을 시찰하게 했는데, 박공(朴公)도 또한 여기에 뽑혀, 공(公)을 보고 동반(同伴)할 것을 요청하자, 공(公)은 마지못해 허락하고, 함께 동경(東京)에 가서 몇 달 동안을 체류(滯留)하면서 각 성(省)의 제도(制度)와 민간(民間)의 풍속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다.

그 뒤에 조정에서 과거로 인한 폐단이 몹시 심하다해서 특별히 별시(別試)를 마련하여 임금이 친히 대궐에 거둥해서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책문(策問)하는 과거를 보였는데 이 때 공(公)이 도(道)의 천거를 받아 응시(應試)해서 여기에 합격되어 바로 초시(初試)에 나가니 일시의 문학(文學)하는 선비가 많이 공을 따랐다. 갑신(甲申, 1884)년에 서양(西洋)제도를 모방하여 새로 우정국(郵政局)을 설치하게 되자 공이 주사(主事)가 되어 인천항 분국(仁川港分局)에 근무하여 많은 성적을 올렸으나 뒤에 정변(政變)으로 인해서 우정국(郵政局)이 없어지게 되니 아는 자들이 모두 아깝게 여겼다.

무자(戊子, 1888)년 봄에 주차미국공사관(駐箚美國公使館)에 서기관(書記官)에 임명되었으니, 당시의 공사(公使)는 죽천 박공(竹泉朴公)이었다. 이때 청국정부(淸國政府)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美國)에 공사(公使)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극력 이를 방해하여, 미국에 주재하는 청국 공사 장음환(張蔭桓)의 태도가 몹시 까다로와서, 우리가 국서(國書)를 봉정(奉呈)할 때에도 저들이 대동(帶同)하고 가려는 등, 그 위협과 모욕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서 끝내 엄격히 저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공

사(公使)로서의 일을 성공시켜, 국체(國體)를 손상시키지 않고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우리나라 외교사상(外交史上)에 있어서 처음 있는 장한 일이었다. 이 일에 있어서 공(公)이 계획하고 주선한 것이 실로 많았는 바, 공이 조정에 돌아온 후에도 저들은 여러 번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여 위험스러운 고비를 몹시 겪었으니, 만일 유약하고 기골(氣骨)이 없는 자가 당했다면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공의 공(功)이 여기에서 또한 컸던 것이다.

그 뒤에 전환국 사사(典圜局司事)·통위영 문안(統衛營文案) 등 직(職)을 역임(歷任)한 뒤에, 갑오(甲午, 1894)년 여름에는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에 승진되었으니, 이는 통정(通政)의 품계(品階)이다. 이내 군국기무처 회의원(軍國機務處 會議員)이 되었고, 이해 8월에는 아버님 상사를 당했으나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학무아문 참의(學務衙門叅議)가 되었다. 이때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를 새로 설치하고 장차 외국인 교사(外國人敎師)를 고빙(雇聘)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주재하고 있는 일본 공사(日本公使) 정상형(井上馨)이 순전히 일본 사람만 쓰라고 강요(强要)하는 것이었다. 이에 공(公)은 이를 반박하여 말하기를 "일본 사람이 비록 각국어(各國語)에 정통한 자가 많다고 하지만, 어찌 자기나라 사람이 자기나라 말에 능통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따를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굳게 거절하고 듣지 않았으니, 일본 공사도 또한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만 두었다.

을미(乙未, 1895)년 봄에 관제(官制)가 개정(改正)된 뒤에 학부 참서관(學部叅書官)에 임명되었다가, 8월에 법부 참서관(法部叅書官)으로 옮겼으나 즉시 사면(辭免)했다. 그 이듬해 정월에 내각 총서(內閣總書)가 되었는데, 이때 정부(政府)가 갑자기 환국(換局)되어 조야(朝野)가 물끓듯하여 근심스럽고 위태로운 일이 많았으나 공(公)은 각료(閣僚) 사이에서 뚜렷한 모습으로 공론(公論)을 주장하여 사사로이 일을 꾸미려는 것을 엄격히 막으니 당시 의논들이 공에게 의뢰하는 바가 많았다. 계속하여 내각의 관제(官制)가 개정(改正)되

어 9월에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명되고, 10월에는 의정부 총무국장(議政府總務局長)으로 옮겼다.

이때 옛날 제도를 안다는 자가 있어 임금의 이목(耳目)을 현혹시켜서 전운사(轉運司)의 옛 제도를 복구시키려 했다. 대개 갑오경장(甲午更張) 후에 일체의 국세(國稅)는 각 군(郡)의 군수(郡守)로 하여금 돈으로 바꾸어서 납부(納付)하게 했던 것인 바, 그 중간에 자못 이익이 있는 것을 보고 모리배(謀利輩)가 그 기회를 엿보고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이러한 간사한 꾀를 내어 각의(閣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조보(朝報)에 반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보면 장차 생민(生民)들에게 그 해독(害毒)이 흘러 들어가서 어떠한 화(禍)의 기틀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를 모르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날의 거울이 분명한 것이니 저번 갑오(甲午)년 동학란(東學亂)이 삼남지방(三南地方)에서 일어난 것도 전운사(轉運司)의 횡포(橫暴)가 역시 한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공(公)은 이것을 굳게 잡고 반포(頒布)하지 않은 채 한 달이 가까워오자 임금은 여러 번 재촉하는 명령이 있다가 끝내는 몹시 노하여 화(禍)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때 심공 상훈(沈公相薰)이 공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겨 말하기를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대가 어찌 한쪽 손으로 이를 붙들겠는가? 차라리 반포(頒布)해서 신명(身命)을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했다. 그러나 공(公)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을미(乙未, 1895)년의 화변(禍變)이나 병신(丙申, 1896)년에 파천(播遷)하신 것이 모두 갑오(甲午, 1894)년 난리 때문이요, 갑오년 난리는 반드시 저들이 말하는 전운사(轉運司)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오늘날 신자(臣子)가 된 자는 비록 만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감히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나는 오직 죽을 뿐이다." 하니, 일좌(一座)가 모두 엄숙해졌다. 심공(沈公)도 이 말을 흠탄(欽歎)하고 들어가 임금께 그대로 아뢰자 임금은 갑자기 웃는 얼굴을 짓고 목소리도 명랑하게 말하기를 "옳은 말이다." 하고 급히 명령하여 전운사(轉運司)의 관제(官制)를 도루 거두라 하고 한편 심공(沈公)에게 명령하기를

"경(卿)은 내 말로 총무국장(總務局長)을 위로해달라." 했다. 심공(沈公)이 임금의 뜻을 가지고 나와 공(公)에게 말하자 공은 명령을 듣고 황공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탄식하기를 "우리 임금의 성덕(聖德)이 하늘과 같은데 조정 신하들이 돕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도다." 하고 매양 이 말을 하노라면 눈에 가득히 눈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수십 년 동안 조정에 섰어도 이날 같은 영광을 받은 적이 없었다." 했다.

무술(戊戌, 1898)년 봄에 서박사 재필(徐博士 載弼)과 함께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조직하니 입회(入會)하는 자가 몹시 많았는데, 당시 조정 일이 깨끗지 못하므로 모든 회원(會員)들이 이를 분개하게 여겼다. 어느날 여러 회원(會員)들이 독립관(獨立館)에서 회의(會議)를 열고 모두 죽을 사(死)자를 써서 동맹(同盟)하는데 공(公)은 홀로 쓰지 않고 말하기를 "공연히 글만 쓰는 것이 유익할 것이 없다." 했다. 이해 가을에 독립협회(獨立協會) 사건으로 경무청(警務廳)에 구속되어 10여 일이 지나서야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때 한쪽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무함(誣陷)하여 협회가 비밀히 일본에 있는 망명자(亡命者)들과 내통해서 국정(國政)을 개혁(改革)하여 공화제도(共和制度)를 실시하려고 계획한다 하여 임금을 충동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대개 그 해 봄으로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협회(協會)에서 당국(當局)의 잘못된 정치에 대하여 탄핵한 것이 한두 번 뿐이 아니었는데, 이에 당국(當局)의 여러 무리들이 지렁이처럼 결탁하고 부엉이처럼 호응(呼應)해서 협회(協會)를 때려 없애는 것으로 공을 세우려하고, 한편 엽관배(獵官輩)들은 이 틈을 타서 소위 황국협회(皇國協會)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권(君權)을 옹호한다는 핑계로, 권리를 잡아서 무뢰배(無賴輩)들을 불러 모아 곤봉(棍棒)을 마구 휘둘러 장차 독립협회를 일망타진(一網打盡)하려는 것이었다.

아아! 그동안 압제(壓制)받는 밑에서 비로소 싹틀 백성의 기운은 마치 얇은 햇빛과도 같이 사랑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것을 천둥과 번개로 위협하고 바람과 서리로 쓰러뜨리니 아아! 이 독립협회(獨立協會)가 한번 흩어지자 우리

한국(韓國)의 독립(獨立)도 또한 따라서 가버리고 말았도다. 당시 공(公)은 협회를 주동(主動)하던 인물이었으니 어찌 홀로 면할 수 있었겠는가?

이해 겨울에 총무국장(總務局長)을 사임하고 이로부터 공의 위태로운 발자취는 깊은 산과 궁벽한 땅에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임인(壬寅, 1902)년 봄에 또 경무원(警務院)에 체포되었다. 이때는 민충정공 영환(閔忠正公泳煥)이 구미(歐美)로부터 돌아와서 국가의 정치가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통한(痛恨)함을 이기지 못하여 매양 임금을 뵙고 간절히 간했었다. 이때 여러 간사한 무리들은 이것을 옆에서 곁눈질해 보고서 장차 저희들의 계획을 위하여 황실(皇室)의 우익(羽翼)을 없애고자 하여, 먼저 민공(閔公)부터 없애려고 유언(流言)을 퍼뜨려 민공(閔公)이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여당(餘黨)과 일본에 망명(亡命)한 자들과 결탁해서 정부(政府)를 전복(顚覆)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공은 곧 황실(皇室)의 귀척(貴戚)이기에 또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으므로 이에 우선 명사(名士) 몇 사람을 구속해서 억지로 거짓으로 옥안(獄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장차 민공(閔公)에게까지 미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저들은 역시 공(公)을 귀한 인물로 여겼으나 본래 공(公)이 굳고 확실해서 거짓 굴복시키기 어려울 것을 알고 이에 공의 차자(次子) 승인(承仁)을 체포하여 백방(百方)으로 위협하여 수십 차례의 악형(惡刑)을 겪어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부서지기에 이르렀건만 한결같이 죽기로써 항거했으니 가위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할 것이다. 비록 저들같이 도깨비나 물여우처럼 남을 잘 얽어 잡는 자들로서도 끝내 단서(端緖)를 잡지 못한 채 잡혀 갇힌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으니 옛날 중국 한(漢)나라 때 동경(東京)의 당고(黨錮)의 화(禍)①도 역시 어찌 이보다 심했겠는가?

갑진(甲辰, 1904)년 봄에 노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나자 시국(時局)이 조금 변하여 비로소 공(公)의 부자(父子)가 석방되었다. 공이 옥중(獄中)에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基督敎)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곧 공의 만년(晩年)의 입장(立場)을 예비(豫備)한 것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공이 집에 돌아오자

외관(外館)에서 통역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공이 석방된 것은 곧 우리 공사(公使)가 알선해서 된 일이니 공은 마땅히 가서 사례하시오” 한다. 공은 정색(正色)하고 말하기를, “우리 정부가 나의 무죄(無罪)함을 알고 이제 석방한 것이지, 어찌 귀국 공사(貴國公使)의 말을 듣고 좌우할 이치가 있겠느냐?” 하자, 말하던 자가 부끄러운 빛으로 물러갔다. 여기에서도 또한 공이 정대(正大)해서 세력이나 이익으로 꼬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찌 뛰어나지 않았는가?

공(公)은 본래 빈한(貧寒)하고, 성질이 담박(淡泊)해서 집 사람이나 가업(家業)을 돌보지 않았다. 중년(中年) 이후로 더욱 곤액(困厄)해서, 서울에 있은 지 수십 년 동안 집 두어 칸을 얻지 못하고 동서로 옮겨다니면서 늙을 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곳이 없었으나 그래도 태연했다.

을사(乙巳, 1905)년 겨울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叅贊)에 임명되었더니, 다음해 여름에 근거없는 혐의로 또 경무청(警務廳)에 구속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석방되었다. 이때 일본(日本) 사람 환산중준(丸山重俊)이 경무청 고문(警務廳顧問)으로 있었는데, 공은 말하기를, “임금에게 아뢰지도 않고 칙임관(勅任官)을 구류(拘留)시키는 것은 크게 방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중준(重俊)을 내쫓기 전에는 결단코 의정부(議政府)에 나가지 않겠다.” 하자 정부에서는 여러 번 미안(未安)하다고 사과했으나 끝내 사면하고 말았다. 이해에 가선(嘉善)에 승진했는 바, 이것이 공의 관력(官歷)의 시말(始末)이요, 경술(庚戌, 1910)년 이후에 와서는 전연 교회(教會)와 사회(社會) 사이에 헌신(獻身)해서 희미한 바다에 지침(指針)이 되고 어두운 촛불을 밝혀주었다. 종교(宗教)와 과학(科學)을 매양 부르짖었고, 항상 말하기를, “우리 일선 생로(一線生路)는 오직 교육(教育)에 있다. 그러나 만일 도덕(道德)으로 기본(基本)의 법칙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교육은 도리어 해가 될 뿐이다.” 했다. 이것은 실상 공(公)의 체(體)가 있고 용(用)이 있어야 한다는 학문에서 나온 것으로써, 진실로 백대(百代) 후에 성인(聖人)이 다시 나와도 의심이 없는 것이다.

대개 공의 신앙(信仰)은 능히 그 골수(骨髓)에 스며든 것이요, 자질구레한 의식(儀式)에 얽매이지 않아서, 공연히 희미한 이론(理論)을 고집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와는 다른 바가 있으니, 이는 아는 자와만 말할 것이요, 모르는 자와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청년회(基督敎靑年會)에 있어서 진리(眞理)를 선양(宣揚)하고 후진(後進)들을 양성한 지 20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심(歡心)을 샀으니, 이는 공이 소년(少年)들 보기를 자기 자제(子弟)를 보듯이 했기 때문에 소년들이 공을 보기를 저들의 부형(父兄)을 보듯이 한 것이니 그 친절하고 정녕(叮嚀)하여 혼연(渾然)한 봄바람과 같았던 것과 과연 어질지 않고서야 능히 이럴 수가 있었겠는가?

기미(己未, 1919)년 봄에 민중운동(民衆運動)이 일어나자 공은 또 감옥의 고초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 흰 머리에 늙은 몸은 더욱 자신의 소유(所有)가 아니었다. 만일 민족(民族)에게 유익(有益)한 일이라면, 또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나 죽고 사는 것에 관계가 없이 앞으로 나가서 싫어하거나 괴로워하고 회피(回避)하는 태도가 없었다. 이에 교육집단(敎育集團)이나 언론기관(言論機關)에서 모두 공(公)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부지중에 사회(社會)의 원로(元老)와 민중(民衆)의 선구(先驅)가 되었다. 이미 80에 가까웠다. 모진 추위와 극성스런 더위에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며 좌우 사람들을 수응(酬應)하기에 분주 골몰(奔走汨沒)해서 때로는 식사(食事)할 겨를도 없다 보니, 자연히 피로하여 병상(病床)에서 신음(呻吟)한 지 이미 두어 달이 지나, 마침내 정묘(丁卯, 1927)년 2월 27일 묘시(卯時)에 재동(齋洞) 셋집에서 세상을 마치니 춘추(春秋)가 78이었다. 아아! 마음과 몸을 다하여 나라일에 이바지하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는 것은 공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온 세상이 놀라고 슬퍼하여 모두 따라서 죽고 싶은 탄식을 하고, 의논을 함께 모아 다음 달인 3월 7일에 사회장(社會葬)의 의식(儀式)으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舒川郡 韓山面 芝峴里) 건지산(乾芝山) 임좌(壬坐)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곧 부인의 묘(墓)에 합부(合祔)했었

다. 〈31년 후인 정유(丁酉, 1957)년 5월에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楊州郡 長興面 三下里)에 이장했으며 부인도 합장(合葬)했다〉 부인은 강릉유씨(江陵劉氏) 학생(學生) 한보(漢輔)의 따님으로서, 유순(柔順)하고 정숙(貞淑)해서 부덕(婦德)이 모두 갖추어졌었는데 공(公)보다 3년 먼저인 정미(丁未, 1847)년 9월 11일에 낳고, 공보다 20년 먼저인 정미(丁未, 1907)년 2월 17일에 졸(卒)했으니, 곧 그 주갑(周甲, 회갑)되던 해였다.

4남 1녀를 낳았으니 맏은 승륜(承倫)이요, 다음은 승인(承仁)이니 군수(郡守)요, 다음은 승간(承侃)이요, 다음으로 따님은 윤공섭(尹公燮)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승준(承俊)이다. 승륜(承倫)의 아들은 선직(宣稙)이요, 다음 따님은 조남붕(趙南鵬)에게 시집갔고, 다음 따님은 강석민(姜錫敏)에게, 다음 따님은 김동련(金東連)에게 시집갔다. 선직(宣稙)의 아들은 학규(鶴珪)요, 나머지는 어리다. 군수(郡守)의 아들은 한직(翰稙)·홍직(鴻稙)이요, 따님은 김남수(金南洙)와 박원명(朴源命)에게 시집갔다. 승간(承侃)의 아들은 안직(安稙)이요, 따님은 조남수(趙南洙)·조성수(趙誠壽)·조동현(趙東顯)에게 각각 시집갔다. 승준(承俊)의 아들은 경직(冏稙)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공(公)의 영구(靈柩)가 운행(運行)될 때, 서울로부터 산 밑에 이르기까지 4~5백 리의 거리인데도, 길 좌우에는 원근(遠近)을 말할 것 없이 일반 민중과 사회단체(社會團體)에서 서로 이끌고 나와서 영구(靈柩)를 맞고 보내는 자가 자못 수십만 명이 넘어, 슬퍼하기를 마치 친척처럼 했으니, 아아! 장한 일이로다. 공(公)은 과연 어찌했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그윽히 생각건대 자식이 되어 부모를 섬기기를 공(公)처럼 효순(孝順)하게 한 자가 없지 않고, 신하가 되어 임금을 섬기기를 공처럼 정직(正直)하게 한 자가 또한 없지 않고, 나가서 사회(社會)에 처하기를 공처럼 진심갈력(盡心竭力)한 자가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가득한 한조각 단충(丹衷)이 오직 '조선(朝鮮)'이란 두 글자가 있을 뿐이어서, 분육(賁育)②으로서도 그 지조를 뺏지 못하고 빈궁(貧窮)이 그 마음을 옮기지 못한 자는, 지금 같은 말세

(末世)의 혼돈(混沌)한 세상에 실로 드물게 보는 바이니, 공(公)이 어찌 딴 방법이 있었겠는가? 오직 평생동안 조선(朝鮮)의 마음을 잃지 않아, 살아서는 조선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조선 귀신이 되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이니, 공 같은 이는 참으로 조선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도다. 이 어찌 목은선생(牧隱先生)의 초손(肖孫)이 아니겠는가?

장례(葬禮)가 끝나자 장의위원(葬儀委員) 여러 분이 당시 입언(立言)의 군자(君子)③에게 명(銘)을 청하고 못난 나에게 행장(行狀)을 부탁하는 바, 나는 평일에 또한 공(公)을 몹시 애모(愛慕)하던 터이라, 의리에 감히 사양할 수 없어 이에 공(公)의 본말(本末)을 위와 같이 기록하여 삼가 행장(行狀)으로 삼는 바이다.

반남(潘南) 박승봉(朴承鳳) 삼가 씀.

〈 註 〉

① 漢東京黨錮之禍 : 후한(後漢) 말엽에 환관(宦官)들이 정권(正權)을 맘대로 휘두르는 것을 분개하여 이를 공박한 지사(志士)들이 환관(宦官)의 미움을 받아 종신 금고(終身禁錮)의 형(刑)을 받았던 일에서 나온 말

② 賁育 :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춘추전국시대의 용맹스러운 장수였음.

③ 立言之君子 : 후대에 모범이 될 만한 의견을 세우는 사람



이상재 묘지 전경



이상재 묘비 앞면



이상재 묘비 뒷면



이상재 묘비 좌측면



이상재 묘비 우측면

5. 4대 주미서리공사 이채연과 부인의 미국 활동



이채연

이채연李采淵은 1861년 9월 17일에 칠곡에서 아버지 이이봉李以鳳과 어머니 김녕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광주이씨 좌통례공파左通禮公派 14대손으로, 자는 명오이다.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영남 계열은 칠곡을 집성촌으로 하여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였지만, 당시는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던 때였으므로 관직에 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광주이씨 계열은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여 외척이 되는 일도 없었다.

이채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는 제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는 1886년 진사시에 입격하여 제중원 주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면서 영어를 학습하고, 외아문에서 1년 정도 영어를 습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887년 미국 주재 전권대신의 파견을 앞두고 번역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당시 같이 미국으로 파견되었던 이하영李夏榮도 같은 제중원 주사로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제중원에서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과 쌓은 친분은 이채연이 미국으로 파견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에는 오언 데니Owen N. Denny의 역할이 컸다. 그는 처음에는 사절단 파견에 반대했지만,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목격함에 따라 데니는 구미 각국과의 다변 외교를 통해 조선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파견안을 건의하였다.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인 조지 포크George C. Foulk 또한 고종에게 주미사절단 파견을 건의하였다. 파견은 지연되다가 1887년 12월 10일 마침내 초대 주미조선공사단이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출발하였다. 이채연도 이때 같이 동행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주미공사관원들은 각종 외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미국의 여러 기관을 보고, 주미 각국 공사, 외교관,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클리블랜드 대통령 등을 만나면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하였다. 이채연은 1888년 4월 21일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1889년 1월 21일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서리공사를 맡으면서(1890년 9월 2일~1893년 6월) 이계필李啓弼에게 미국 국무부에서 화폐 조사 과정의 시찰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1888년 1월 18일 박정양朴定陽이 임대 개설한 공사관 건물을 1891년 11월 28일에 단독으로 매입하였다.

이채연은 1896년부터 한성판윤을 역임하면서 한성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치도治道 사업을 벌이기도 하였고, 전차 부설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가 하면, 한성 내 거주민들을 위한 위생사업, 교육사업 등의 복지사업도 활발하게 벌였다.

1898년 2월에는 한성부재판소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하였고, 귀족원경貴族院卿, 양지아문부총재관量地衙門副摠裁官 등을 지냈다. 그 외 시종원경侍從院卿을 거쳐 1900년에는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미공사 박정양은 『미행일기美行日記』와 『미속습유美俗拾遺』에 미국의 문명과 풍습을 자세히 적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화성돈 곳곳에 방사선으로 뻗어있는 서클Circle과 초청을 받아 참여한 공식 행사 야연夜宴 즉, 이브닝 파티다. 조선의 유학자이자 외교관에 비친 신세계와 신문화에 '문화적 충격'을 받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성돈 도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가로와 세로로 나눠 도로의 번지를 정한다. 가로 도로는 1·2·3·4 등 아라비아 숫자로 동서東西로 뻗은 길의 번지를 매기고, 세로 도로는 A·B·C·D 등 알파벳 26자를 사용해 남북南北의 가가호호에 번호를 매긴다. 이런 규칙을 알면 아무개 가街, 아무개 번番을 찾기 매우 편리하다. 처음 오는 사람도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다섯 개 도로의 교통의 요충

지에 서클circle을, 십자十字형 도로, 도로와 양쪽에 인도人道가 있는 3가닥 도로, 쌍방 도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왕래가 빈번한 큰 거리에는 이따금 화원이 있는데, 화원 안에 화초와 나무를 심고 철제 의자를 설치해 인민이 잠시 쉬는 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하루는 박정양 공사가 공사관 일행들과 밤에 공사관 주변을 산책하며 바라본 야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물화物貨의 번성함과 가로등燈竿의 밝게 빛나 비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도로는 셋으로 나뉘어 있다. 그중 한 길은 차와 말이 다니는 곳인데, 모두 돌가루로 기름을 발라 단단하게 붙여서 비가 와도 진창이 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 좌우의 두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모두 벽돌로 비늘처럼 깔아서 진흙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 길 양쪽 곁에 여러 종류의 나무를 10보 정도 떨어지게 심어 그늘이 짙고 푸르러서 사람들이 여름날의 폭염을 알지 못하고 다닌다. 이어서 화원에 갔다. 화원은 워싱턴 내 십자 길거리마다 철살로 둘러친 곳인데, 그 넓이가 혹 1만 혹 몇 만으로 서로 다르다. 그 안에 온갖 나무와 별별 꽃을 심고, 혹 연못을 파서 물을 채우거나 물을 끌어들여 위로 내뿜게 만들어 매우 볼 만하다. 또 곳곳에 의자를 설치하여 인민들이 놀면서 쉬게끔 하고, 남녀가 서로 손잡고 노약자를 부축하고 이끌며 삼삼오오 왕래하는 것이 일상이다.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 도시, 셋으로 구분한 도로, 화원 등 박정양 공사가 목도한 주변 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당시 가로등은 가스등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컴컴한 밤에도 매우 밝아서 마치 대낮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돌가루와 기름을 발라 만든 차車와 말馬이 다니는 도로와 어류의 비늘처럼 벽돌을 깔아놓은 인도人道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도로 구성과 체계는

1896년 전후 조선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조사업'의 모티브가 된다. 당시 내부대신 박정양, 한성판윤 이채연 등은 도로개조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한성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청과 협조하여 경무관 이종하의 협력하에 추진했다. 이들은 미국 화성돈 파견 당시 경험한 방사상 도로망 체계를 경운궁慶運宮, 현 덕수궁을 중심에 놓고 서클형식의 방사선의 길들로 조성한다.

위 화원의 설명 중 '연못을 파서 물을 채우거나 물을 끌어들여 위로 내뿜게 만들어 매우 볼 만하다'는 주미조선공사관 주변에 위치한 듀퐁 서클Dupont circle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듀퐁 서클은 1870년 조성되어, 당시 분수대는 물론 나무, 화초가 있었고 그 일대에는 중국 공사관과 영국 공사관 등 외국 공사관 건물들이 위치하였다.

2012년 10월 매입 당시 공사관의 내·외부 모습은 도산 안창호 선생, 송재 서재필 선생의 유족들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사진들과 1903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헌팅턴도서관 인근 소장의 내부 1층, 외부 경관 사진을 통해서만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의 경우엔 프랜시스 벤저민 존스턴Frances Benjamin Johnston이라는 사진작가가 촬영했고, 제목에 'Korean Legation'(한국 공사관)이라고 붙어있는 게 정보의 전부였다. 작가의 이력을 추적해보니 1890~1893년 기간에는 주로 워싱턴 D.C.에 소재한 외국 대사관과 공사관 내·외부 사진을 촬영하여 가정생활 잡지 '데모레스트 패밀리 매거진'(Demorest's Family Magazine)에 투고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이 기록이 맞다면 헌팅턴도서관에서 제공하는 '1903년 추정' 정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잡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버지니아주립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14년 7월 23일, 미국 출장 중 버지니아대 도서관에서 먼지를 수북이 덮어쓴 121년 전의 잡지를 확인했다.

1893년 7월호에 중국, 일본 공사관 다음 기사로 공사관 사진과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이로써 공사관 내부 전시 공간 조성 시 원형복원 시점을 1903년에서 1893년으로 10년을 앞당기는 근거자료를 찾은 것이다. 잡지에 소개된 공

사관 외부 사진은 'THE KOREAN LEGATION'(한국 공사관), 내부 사진은 'ENTRANCE AND DINING-ROOM, KOREAN LEGATION'(한국 공사관 입구와 식당), 'SALON, KOREAN LEGATION'(한국 공사관 접견실), 인물 사진은 'MR. PAK CHUNG YANG. Korean Minister'(박정양, 한국 공사)였다.

1888년 공사관 개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폐쇄될 때까지 공사 및 관원들의 현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미국 내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대략 900여 건의 기사를 검토했다. 이 중 이채연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기사들이 흥미롭다. 이채연은 1888년 박정양이 미국에 파견될 당시 번역관으로 수행했고, 같은 해에 서기관書記官으로 승진했다. 이해 7월에는 참사관 이완용과 함께 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1889년 1월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 D.C.로 복귀했다는 기사가 특이하다. 참찬관 이완용 부인보다는 번역관으로 부임하였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채연 부인 성주 배씨星州 裵氏에 관한 관심이 외교가에서 뜨거웠다.


May, 1889. THE HOME MAGAZINE. 5

The Korean Legation.

BY MARY LOGAN TUCKER.

IT wa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Mr. Clevel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first established an embassy here, and accredited a Minister to our Government. When first they appeared on the occasion, they were objects of the greatest curiosity, a diagnostic characteristic Americans have not yet learned to restrain —while the "small boy" made the lives of these modest people most uncomfortable. The Minister was a most accomplished and able gentleman, speaking English very well, as did also his secretaries. Mr. Yun, now the acting Minister, Mr. Chung Yun having returned to Korea. The two ladies first appeared at one of the New Year's receptions, their graces being that of their native land, short waisted with full plain skirts, dresses or robing like the empire gown, wearing always on their heads a black cap similar to a fez, with the addition of a long, black gauze veil, very gentle and retiring, but one could see they were enjoying the novel sight of a "dipping room," to them an unheard-of privilege in their own land. Soon they were seen at the afternoon receptions of the Cabinet ladies, and very rapidly acquired enough English for the ordinary greetings of society.

A year ago this winter, the Korean Legation was removed to this city. At first they were pleasantly situated at the corner of Thirteenth street and Iowa circle—an old-fashioned double house, long occupied by an old resident of Washington. The interior has been freshly papered and refurbished in thorough American fashion, the parlors in front, with folding doors opening to the reception hall, the handsome staircase at the rear, affording seclusion to those modest little ladies, who—enjoying a breath of lovely spring air and sunshine. To-pass the time away, they would sit on the steps in this genial weather, and I spoke to Mr. Yun of any one who would send out. Some of the ladies to collect society matter for Mesdames Yun, a colored man opened the door, and they were quite surprised when were served in the dining-room at an early hour, with the family of the Minister present. It is to be regretted that the Oriental legations are so anxious to acquire American ideas and customs, that we really see nothing of their native customs or life, their dresses, or the interior arrangements of their homes or exquisite carvings and embroideries.

During last winter a year ago, quite a novel sight was witnessed, however, at one of the theatres, when Hermann was giving a performance here—namely, the first and only appearance of the wife of the Chinese Minister, Mme. Tsia Kee Yin. The Chinese Minister and suite give a few parts to the Korean Ministers, and on the occasion Mme. Tsai was accompanied by several other Chinese ladies, wives of the secretaries. The ladies sat in one box alone, the gentlemen of the legation in the next; opposite were the Korean ladies in their box, and all occupied the same box with their wives, indicating the advance of their country over China in freedom for women. The contrast in the garb of the Orientals is much better, the most daring of Worth's experiments. Mme. Tsai and the Korean ladies wore the native dress of their friends, lined with fur. When these were laid off, their full skirts and robes were of blue, brown, and crimson brocades. Their shining black hair was dressed high on the head, and in the coils were woven the head. Mrs. Yo Wan Yun, wife of the Korean Charge d'Affaires, wore a short waist of bright blue silk, with a skirt of wine-colored silk. Mrs. Yo Che Yun's short waist was of bright brown-colored silk, with a blue silk skirt. The ladies were all very pretty, and, having very expressive, dimples.

The social customs of the two nations are so different that while the Koreans have allowed ourselves of a very guarded kind, occasionally, however, laughing heartily at the jokes and tricks of the performers, the ladies of the Chinese ladies never chang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lthough they were all enjoying a great social event in their own way, not a smile, a word, or smiles or winks from the boxes, and when the performance was over, all entered their carriages and were driven off without a word having passed between the ladies.

This winter the little lady of Mr. Yun, Mrs. Yun Che Yun, has been very ill, and is announcing until recently. I saw the Minister and his wife at the house of the Children Missions, and, to illustrate their knowledge of American offices and quickness of learning, I will say that Mrs. Yun, whom I accosted, I spoke to her, Mr. Yun of their new house, and how we had enjoyed ours during our travels, and said that we hoped to have my father's statue placed in the capital that he had, "Oh, you are the daughter of General Logan!" and then she spoke of her husband's visit to Chicago, and how evening, on entering there at a ball, she had greeted me most cordially, mentioning at whose house they had met on that occasion.

In the summer the entire legation taken up its residence at the seashore, and enjoys much the same life as our fashionable Americans. Eventually they return to their native land, with a full knowledge of our life, a fact which will add largely to the great plan that eventually we will all be "one people."

Society Notes.

BY MARY LOGAN TUCKER.

REGARDLESS of the fact that Easter Sunday came this year a month or six weeks earlier than usual, ladies and gentlemen have donned their light spring suits—the lowest in the season; and "Jane" overcome, running the risk of pneumonia. Fortunately, the sun shone glorious and bright, but a cool March wind gave the rose of each person a blue tinge, not at all in keeping with his or her costume. Many of the ladies, following, dreaded weather was one to be accompanied by the "Grippe" in its most aggravated and fatal form. Many prominent people have been ill, while hardly a family has escaped its visit. Mrs. Cleveland, the White House, was quite ill, but it was found their indisposition came more from the draperies caused by the potted plants so exuberantly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Society is about to be bereft of the charm of Mrs. Hubbard, who, as Miss Gardiner, was the belle of Washington. Mrs. Hubbard's health has never permitted her taking a very active part in social life, those who were fortunate enough to meet her found her a most lovable and charming lady. Her husband's devotion to his young lady daughter and to her husband, to whom every one extends deepest sympathy. Another death, which has been a great shock to Washington society, is that of Count Arco Valley, who, after a few days' illness, passed away, and has not yet been buried. Mrs. Wheeler, wife of Mr. Wheeler, Mr. Cleveland, Mr. Bayard occupied the position of Secretary of State. Miss Bayard, through her diversions and charm of manner, won for herself, and endeared to her many friends in Washington, and Mr. Pendleton has also passed away. Mrs. Pendleton, who was a most charming lady, and by the announcement of the death of General Spinola, the well-known representative of Germany for 16 years. He was a grand old man—one of the most striking figures on the floor of the House, his peculiarity of appearance and dress making him a marked man. Mr. Spinola was also a true friend and an obstinate, aggressive enemy.

Lent gave the usual opportunity for the dramatics and enjoyment of literary and charitable kind. The tableaux entertainment at the residence of the various Hospitals and Homes, to which society people were the principal afternoon receptions, when many of the ladies assisted to pay their respects.

Mrs. Harrison and the ladies of the Cabinet have entertained during the month of March, so have also many of the other ladies prominent, and from pleasant spring afternoons, the pressure are quite filled with the fashionable receptions, which are the harbingers of summer, and with a few days, each their spring costumes.

The President and his party are now on their southern and western trip. With Mrs. Harrison and Mrs. McKee both absent, the White House has quite a deserted look, and the social life centers in the homes of several ladies prominent. The Secretaries are having their holiday.

Mrs. Yo, of the Korean Legation, hold

이완용 부인과 이채연 부인 소개 잡지기사

이채연이 동반한 부인 성주 배씨는 전 부인인 인동 장씨仁同 張氏가 1877년에 슬하에 자식 없이 죽게 되자 후처를

들였는데, 배맹진裴孟振의 딸이었다. 이채연과 성주 배씨의 슬하에는 이상필李相弼과 이상범李相範의 형제가 있었음을 〈광주이씨廣州李氏 족보〉에서 확인하였다.

이하영, 이완용에 이어 서기관 이채연이 미국에서 서리 공사로 1890년부터 1893년까지 재임할 당시 성주 배씨 사이에서 1890년 10월 12일 아들을 출산했다. 이 출산 사실은 현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인 최초 미국 출생' 사실을 강조하며 그 아이의 이름은 '화성돈華盛頓, Washington'의 음차를 사용하여 '화성돈의 자식孫'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였다. 영어로는 'Ye Washon', 국문으로는 '니화손'이라 지었다 라며 미국에서 조선 외교관의 최초의 자식이 출생했다는 의미를 부각하였다. 하지만 니화손은 태어난 지 두 달 닷새 만에 'Egzma' 라는 염증성 피부병으로 사망해 당시 공사관의 건물 주인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의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세스 펠프스의 사위 세블론 브라운Sevellon Brown은 당시 미 국무부 차관이자, 공사관 매입 시 계약 당사자였다. 그 가족 묘지에 '조선의 첫 외교관 자녀'가 묻히게 되었다.



'Ye Washon'으로 적혀 있는 니화손 묘비 앞면



국문으로 '조션 니화손'이 적혀 있는
니화손 묘비 뒷면

이채연 공사와 성주 배씨 재임 당시인 1893년 내부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이 미국 헌팅턴도서관(LA 인근) 소장의 내부 1층, 외부 경관 사진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은 미국의 최초의 여성 사진작가인 프랜시스 벤저민 존스턴Francis Benjamin Johnston이 촬영하여 〈데모레스트 패밀리 매거진'(Demorest's Family Magazine)〉에 1893년 7월호에 'Korean Legation'(조선 공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투고가 되었다. 여성 작가 존스턴은 1890~1893년 주로 워싱턴 D.C. 내 외국 대사관과 공사관의 사진을 찍어 잡지에 투고하였는데, 그 내부 사진 중에 이채연 부인이 손수 가공한 태극기와 소파 쿠션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조선 공사관 동정을 소개한 미국 신문은 "조선 여성들이 전통복식을 입고 최초 도미渡美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채연 공사 부임 당시 데모레스트 매거진에 실린 기사내용이다.

> 워싱턴에 가장 최근에 설립된 동양의 공사관은 약 5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 정규적으로 파견된 한국 사절인 조선왕국의 대표자입니다. 조선인이 가장 최근에 도착했지만, 극단적인 보수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동화하는 데 가장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선의 공사와 그의 스위트룸이 그들의 고유 의상을 차려입고 워싱턴의 거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가장 무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양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 도시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몽골인이 뚜렷한 이 앳된 얼굴의 작은 남자들은 보편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옅은 파란색, 사과 녹색,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등 가장 놀라운 조합으로 섬세한 색조의 펄럭이는 비단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좁은 검은 리본이 달린 올리브 턱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한공사관은 얼핏 보기에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미국화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아이오와 서클Iowa circle을 바라보는 매우 아름다운 집을 구입했다. 이 공사관은 증기 난방시설steam heat과 전기 벨부터 시작하여 융단, 새틴, 플러시 천이 씌워진 가구에 이르기까지 고상하면서도, 모두 최신의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다. 조선은 예술의 나라로 알려진 것처럼 환한 방들은 세련된 감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정면 입구의 포치 porte-cochère는 특히 매력적이며, 중앙 홀의 한쪽 면에 장식되어 있는 대형 태극기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마감을 한 오크 징두리 벽판도 아름답다. 식당은 입구 오른쪽에 있으며, 접견실(객당)과 작은 연회 공간(정당)은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 살롱, 접견실에는 매우 많은 창들이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대조되는 색상으로 처리된 융단 새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장식은 두 마리 질 좋은 호랑이 가죽, 벽난로 옆에 아름답게 수놓은 가리개, 그리고 공사와 유명한 관료들의 아주 흥미로운 사진들이 놓여 있다.

The present envoy, Mr. Pak Chung Yang, was appointed minister in 1888, but returned some time ago to Korea, where, though still retaining his foreign mission, he became Minister of the Treasury of his home government. In his absence the affairs of the legation are ably carried on by the charge d'affaires, Mr. Ye Cha Yun, an urbane little gentleman of great intelligence and universal popularity. Mr. Ye has quite adopted the conventionalities of our life and affects the latest fashion of European dress, small cap of horse-hair being all that remains in evidence of his picturesque native costume. Mr. Ye is a most agreeable host and a frequent entertainer, doing the honors of the legation with affable courtesy.

Some two years ago, two pretty and charming little Korean ladies became familiar and interesting figures in Washington society; Mrs Ye, and Mrs. Yun, wife of a secretary of the legation. These bright women fairly reveled in the liberty of their new environment, which was in such contrast to the

absolute seclusion of their home life; and Mrs. Ye, in particular, showed a wonderful adaptability to the strange conditions surrounding her. She grew warmly attached to her new home, which feeling was strengthened by the birth and loss of a dear little baby, fittingly christened "America." Mrs. Ye has since returned to Korea, and now has another little daughter, whom Mr. Ye will be most proud to introduce to his many American friends when he brings back his pretty wife this fall.

〈번역문〉

현재 특사, 박정양은 1888년에 공사로 임명되었으나 얼마 전에 조선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외국 사절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조선 정부 호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재 시 공사관 업무는 뛰어난 지성과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잖은 작은 신사인 대리공사 이채연이 유능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공사는 우리 미국 삶의 관례풍습을 상당히 받아들였고 유럽의 최신 패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고풍스러운 전통 복식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은 말총의 작은 모자뿐입니다. 이 공사는 상냥한 예의로 공사관의 명예를 다하는 가장 쾌활한 주인이자 빈번히 주최하는 연예인입니다.

약 2년 전, 예쁘고 매력적인 두 명의 아담한 한국 여성이 워싱턴 사회에서 친숙하고 흥미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찬관 부인 조씨와 배씨입니다. 이 영리한 여성들은 가정 생활의 절대적인 은둔과는 대조적인 새로운 환경의 자유를 상당히 즐겼습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낯선 상황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집에 대해 따뜻하게 애착을 갖게 되었고, "미국"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가진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의 탄생과 상실로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씨는 그 후 조선으로 돌아갔고 이제 또 다른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씨는 이번 가을 예쁜 아내 배씨를 데려왔을 때 많은 미국인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것입니다.

6. 주미공사 수행비서 강진희



강진희

강진희姜璡熙, 1851~1919는 1887년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임명되어 1888년 1월에 미국에 부임했던 인물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진옥進玉, 호는 청운菁雲으로 1885년 35세의 늦은 나이에 사역원司譯院 종9품 참봉의 관직을 시작으로 이듬해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임시대리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의 접응관차接應官差로 일본을 방문한 관력 등으로 보아 일본어와 영어 등 어학 실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진희는 조선 정부 관원으로서보다는 서화가書畵家로 한국 미술사에 끼친 업적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공사관에서 근무한 1년여 동안 〈화차분별도火車分別圖〉, 〈묵매도墨梅圖〉, 〈삼산육성도參山六星圖〉, 〈승일반송도昇日蟠松圖〉, 〈잔교송별도棧橋送別圖〉 등 총 5편의 그림을 그렸다. 그 중 〈화차분별도〉는 135년 전인 1888년 미국 워싱턴 D.C. 포토맥강 철로 위를 달리는 두 대의 기차를 직접 보고 그린 그림으로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여 그린 최초의 미국 풍경화다. 한국 미술사적 가치는 물론 조선과 미국, 조선과 중국의 정치·외교사적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화차분별도〉는 강진희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시기에 華初화초(彭光譽, 주미 청국 참찬관)와 菁雲청운(강진희)의 여러 그림과 글을 모아 만든 화첩 〈美槎墨緣 華初菁雲褋畵合璧帖미사묵연 화초청운잡화합벽첩〉(간송미술관 소장)에 실려 있는데, 첫 장 표제에 "대조선 개국 497년, 무자년1888년에 워싱턴의 주미조선공관에서 그렸다"라고 적혀 있어 정확한 제작 연도와 장소를 알 수 있다.



〈화차분별도〉, 1888년 제작
(종이에 먹, 28×34cm, 간송미술관 소장)

제목의 '분별'分列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대의 기차가 각각의 철교 위를 달리고 있는 경관이다. 철교 아래에는 배 한 척이 한가롭게 떠 있고 강둑에는 나무들과 뾰족한 지붕의 5층 건물이 서 있다.

강진희는 조선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넜으며, 샌프란시스코부터 워싱턴 D.C.까지 기차를 탄 경험, 1888년 4월 1일(양력) 참찬관 이상재, 번역관 이채연, 무변 이종하 등과 함께 볼티모어로 바람 쐬러 가며 본 산과 교량의 풍경이 〈화차분별도〉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아래는 볼티모어로 다녀온 당일 주미공사 박정양이 쓴 『미행일기』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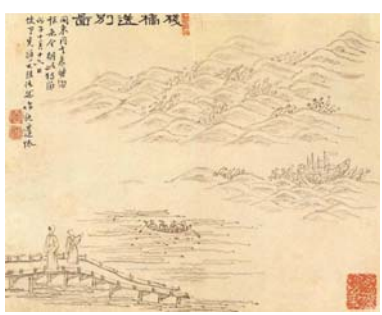
> 참찬관 이상재, 번역관 이채연, 수원 강진희, 무변 이종하 등이 바람 쐬러 볼침 볼티모어에 갔다가 당일에 돌아왔다. 듣건대 당일 12시에 철도국으로 갔는데, 이날이 서력으로 일요일이어서 12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오후 3시에 비로소 출발하여 오후 4시에 볼침에 도착하였다. 120리 연로에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산은 대다수가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며, 수풀이 우거졌고, 물이 혹 돌아나가거나 모이고 교량이 잇달아서 매우 볼 만하다. 단 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한쪽 눈을 돌리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잘 볼 수가 없었다.

두 대의 기차가 연기를 내뿜고 가는 모습을 그린 강진희는 〈화차분별도〉 제목 왼쪽에 '웃어넘긴다'는 '付之一笑'부지일소를 백문방인(白文方印, 네모 모양으로 종이에 그림이나 글씨를 찍을 때 글씨가 하얗게 나오는 것)으로 종이에

날인했다. 또, 그림에 날인된 '不名一家'불명일가는 '송대 소식蘇軾의 시풍詩風은 이전 시대의 한 시인만 고집하지 않고 많은 시인의 시풍을 학습했다'는 글귀로 강진희가 한 작가만의 작풍을 따르지 않고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풍을 섭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철로와 기차를 중심으로 주변 배경은 생략하고 간략한 필치로 스케치했다. 비록 뛰어난 필치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본 이국의 풍경을 핵심만 포착하여 묘사함으로써 그림의 주제를 뚜렷하게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풍경을 담아낸 최초의 기행견문화로서 의의가 있다.

미국 풍경을 그린 다른 작품으로는 〈잔교송별도〉(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가 있다. 멀리 떠 있는 큰 배를 향해 여러 사람이 탄 작은 배가 노를 저어 향해가고 있고, 나무다리 위의 두 인물이 배웅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서기관 이하영과 수행원 강진희, 학도 이계필, 미국인 알렌을 공사관에 남도록 하고, 오전 7시에 서기관 이상재와 무변 이종하, 하인 김노미를 데리고 비를 무릅쓰면서 워싱턴정거장으로 나갔다. 남게 된 공사관원들과 알렌이 나와서 전별하였다. 4만 리를 배와 기차로 동행하고 1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맛보며 생활하다가 이별하니 섭섭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니 병이 깊은 몸이 더욱 피로하다.



〈잔교송별도〉, 1888년 제작
(종이에 먹 20×25.2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이 그림은 초대 공사 박정양이 영약삼단을 어겨 조선으로 소환된 날(1888년 11월 19일)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이날 박정양은 워싱턴에 이하영, 강진희, 알렌 등을 남겨두고 떠났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심의형 장포를 입은 두 인물은 이하영과 강진희일 것이다. 실제로는 워싱턴 정거장에서 송별했으나, 다시 배를 타고 먼 길

을 떠나는 일행들과 송별하는 마음에서 기차역이 아닌 항구로 그려냈다. 이날 강진희의 심정이 그림에 잘 나타난다.

> 함께 오고 함께 가자고 올 때 약속했건만 오늘 아침에 나만 남을 줄 어찌 알았으랴. 무자년 10월 16일양력 11월 19일, 사절 일행이 먼저 돌아가기에 섭섭함을 가눌 수 없어 이것을 그려 마음을 달랜다.
> (同來同去來時約 詎意今朝此獨留 戊子十月十六日 使節先歸 不勝悵然 作此遣懷)

〈잔교송별도〉 그림에는 '포부를 위해 공부를 접는다'는 '有懷投筆'유회투필로 백문방인을 새기고 파도는 두꺼운 윤곽선을 그린 뒤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얇은 필선으로 그리고, 이를 사선으로 겹쳐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다음의 〈삼산육성도〉는 강진희가 워싱턴에서 서양 종이에 그린 작품이다. 여섯 개의 점을 따라 연결된 남두칠성南斗六星과 중국 전설에 나오는 삼신산인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의 세 산을 그린 작품으로 이 그림의 제작 의도는 그림에 적은 강진희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늘 2월 초8일은 곧 우리 동궁 저하가 탄강誕降하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 신은 먼 밖에서 엎드리오니, 즐겁고 기쁜 정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 해옥海屋에서 구여九如를 칭송하고, 산을 향해 백번 절하옵니다. 신 강진희

위의 글을 통해 언급된 동궁 저하는 세자인 이척(훗날 순종 즉위, 1874~1926)을 가리키며 1888년 2월 초8일(양력 3월 9일)은 동궁의 15번째 탄강일이었다. 이날 공사관에서는 관원들이 망하례望賀禮를 행하고 '問安'문안 두 글자를 전보로 보내 동궁의 탄강을 축원했다. 그림의 남두육성은 예로부터 생명과 수명을 관장한 별자리이고, 삼신산은 많은 신선들과 불로불사의 선약仙藥이 있다고 알려진 전설의 산이다. 담묵의 선묘로 산의 윤곽을 그리고 초묵을 이



〈삼산육성도〉, 1888년 제작
종이에 먹 채색, 120×60.5cm, 국립중앙박물관

용한 여러 번의 붓질로 산의 윤곽을 뚜렷하게 표현했다. 암석 사이의 공백은 짧은 측필을 그어 메웠다. 서기瑞氣가 가득한 구름의 표현과 암석에 그려진 짧은 풀의 묘사는 자유분방한 기질이 엿보인다.

7.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참서관 박승봉


박승봉

박승봉朴勝鳳, 1871~1933은 1890년대 후반 미국에 파견되어 외교관으로서 서양의 문명을 직접 경험한 인물로 귀국 후에는 개화 관료로 활동하였다. 이어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일제가 설치한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찬의贊議로서, 1921년 중추원 개편 후에는 참의參議에 이어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참여관參與官을 지낸 인물로 2009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박승봉은 야천자손 참봉공東民, 應川 五子의 후손이며 순조의 외가인 반남박씨 가문으로 유학의 거장인 박윤원朴胤源의 종5대손이고 증조부 주수周壽는 예조판서를, 조부 제인齊寅은 이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지냈다. 아버지 통정좌부승지 희양喜陽과 어머니 한산이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조선 말 내각 수반이었던 박정양朴定陽과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朴泳孝와도 친척지간이다.

1895년 3월 6일(음력)자로 법무아문에서 주사로 관직을 시작하여 1895년 11월 13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주미조선공사관 3등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파견됨으로써 1896년 2월 6일 주미공사로 임명된 서광범徐光範과 이어 주미공사 이범진李範晉, 서기관 이의담, 이교석 등과 함께 외교관으로 3년간 머물면서 참서관으로 승진하여 개화사상을 받아들였고 서기관 이교석李敎奭과 함께 1898년 2월 5일에 귀국하였다.

박승봉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공사의 비서로 근무했다. 1897년 전 주미공사 서광범이 1896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책을 이어가다가 이범진 공사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1897년 8월 13일 오후 4시경 과도한 운동으로 급성으로 진행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옆을 지킨 이는 고종의 아들인 의화군과 민영환, 그리고 박승봉이었다.

서양 미국 생활을 마친 그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를 느꼈던 조정에서는 그를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서울에서도 외국인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길은 언더우드H.G. Underwood, 元漢慶 선교사가 설립했던 새문안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으며 역시 미국 북감리교회 파송을 받고 정동에 설립한 정동감리교회도 출석하였다. 이 일로 미국에서 파견나왔던 외국교관들이 거의 크리스천이었기에 이들을 만나서 국제 정서에 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일본인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고 있었다. 결국 일제가 조선을 자신의 영토화를 위해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자신들의 영토화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자연히 청나라 군인들은 조선에서 물러가고 이 일로 조선에서는 일본의 위상이 자연히 높아져 갔다. 여기에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쓰면서 조선을 자신들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 일로 자연히 1905년 러일전쟁이 역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러시아 남하정책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대신 일본의 세력이 한반도에 진을 치게 되었다. 나라가 점점 일본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무렵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박승봉은 이준李儁, 1859~1907을 극비로 헤이그에 파견하였고 이때 고종 황제의 어인이 찍힌 밀서를 휴대케 하였으나 이 일이 탄로가 나 일제는 고종황제에게 압력을 가하여 박승봉 국내부 협판을 좌천시켜 평안북도 관찰사로 발령이 되었다. 이 일로 그는 서울을 떠나 평안도에 가서 살게 되었다.

1904년 6월 박승봉은 이상설과 함께 일본인의 전국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침략성과 부당성을 폭로하는 「일인요구전국황무지개척권불가소日人要求全國荒蕪地開拓權不可疏」를 올려 고종이 이 상소를 받아들여 일본의 요구를 물리쳤다. 1907년 평안북도 관찰사에 좌천되었지만, 당시 평안도는 개신교 계열의 계몽 운동이 활발하던 지역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되었던 모리스 선교사를 만나 그의 소개로 기독교계 인사인 남강 이승훈을 알

게 되었다. 때마침 그가 설립하려고 하는 오산학당을 세우는 데 좋은 동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이승훈과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으며 월남 이상재와도 교류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다. 또한 장차 조국의 장래를 의논하고 기도하는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이 일로 윤치호, 이승만, 이원긍, 유성준, 홍재기, 김정식, 이승인, 안국선 등을 만나 교회로 인도하면서 애국 운동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독립협회 출신들이 많이 출석한 연동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1909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를 다니던 교인들 몇 사람이 제동에 살고 있던 김창제金昶濟의 집에 모여 기도회로 시작하였다. 얼마 후 황기연, 유길준의 동생으로 연동교회에 다니던 유성준 등과 함께 안동교회를 설립하고 초대 장로에 취임했다. 서울 중심부인 북촌에 세운 안동교회는 그와 같이 양반 명문가 출신으로서 개신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주로 출석하게 되었다.

얼마 후 박승봉의 주선으로 어느 초가집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안동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 예수교회보 사장인 한석진 목사가 부임하자 안동교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 일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양반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갑자기 교회가 성장해 갔다. 당시 안동교회를 신축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이일로 박승봉도 열심히 봉사를 하여 초대 장로로 신임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만 봉사를 하지 않았고 1908년에는 당시 기호지방에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 들었던 사립 기호학당畿湖學堂를 설립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이 일로 2대 교장직을 맡아 수고도 하였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박승봉은 이상재, 신흥우, 함태영, 현순, 김필수, 박희도, 최린, 오세창, 권동진 등이 그의 집에서 3·1운동의 거사를 꾸미는 데 한몫을 담당하였다. 이상재와 함께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에도 참여하여 1913년 이사에 선출되었다. 1919년에는 최남선이 최초로 독립선언서를 와카구사죠 일본인 교회 교인 어느 주택에서 작성했을 때 그 초안을 박승봉 집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손병희 대표에게 넘겨 인쇄

하도록 하였다. 이승훈의 주도로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3·1운동 기획에 참여했고, 3·1운동 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안동교회 교인 최창식을 통해 독립자금을 보낸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때 안동교회에서 그를 배척하는 교인들이 있자 스스로 물러나 을지로에 집과 교회를 옮기고 하교교회河橋教會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1921년 기독교 출판사인 광문사를 윤치호, 이상재, 이승훈과 함께 설립했으며, 1922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에도 참가하여 전형적인 개량주의적 구국 계몽 운동의 길을 걸었다.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후 일제가 설치한 식민통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찬의가 되었으며, 1921년 중추원 개편 후에는 참의직에 임명되었고 함경남도와 평안남도의 참여관도 지냈다. 그는 1933년 6월 23일 별세하여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선영에 안장되었다.

8.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서기관 이의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서리공사를 지낸 이의담李宜聃, 1861~몰년 미상의 본관은 흥양興陽으로 1861년 7월 14일 출생 사실과, 1887년 2월 전환국 사사司事를 시작으로 1908년 연천군수 면직까지의 관력官歷만 확인 가능하며 그 외 그의 가계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1896년 7월 15일 주미조선공사관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7월 29일 서기생 이교석李敎奭과 함께 부임지인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다음날 16일에는 주미공사 이범진과 부인, 차남 이위종 등과 주사 이익채李益采, 하인 박경창朴慶昌을 인솔하여 서울을 출발하였다. 이범진 일행은 중국 상해를 들러 민영익과 묄렌도르프를 만났다. 이는 민영익 귀국을 설득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으나, 1883년 보빙사 정사로 수행원들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선진 문물을 직접 경험하고 귀국 길에 세계 일주를 한 민영익을 만나 미국 관련 상세한 정보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8일에 참서관 이의담과 서기관 이교석은 상해에서 주미공사 이범진 일행과 합류하였다. 이후 참서관 이의담은 주미 공사 이범진, 소실 박씨 부인, 차남 이위종, 서기관 이교석, 하인 박경창 등 5명 일행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長崎 및 시모노세키馬關, 고베神戶 등을 거쳐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하여 주일 공사 이하영李夏榮 등을 만나 21일 태평양을 향후 출발하였다. 9월 2일 캐나다 빅토리아항에, 3일 벤쿠버항에 상륙하여 철로를 이용 로키산맥을 넘고 슈피리어호, 오대호, 몬트리올, 오타와를 통과하는 횡단 열차를 타고 캐나다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어 미국 뉴욕을 거쳐 워싱턴 D.C. 정거장에 9월 10일 도착하여 마중 나온 주미공사 서광범徐光範, 1859~1897, 참서관 박승봉朴勝鳳, 1871~1933, 직부 서병규徐丙奎 등을 만나 마차로 갈아타고 마침내 주미공사관에 도착하였다.

미국 현지 〈The Morning Times〉는 조선으로부터 공사와 가족들이 1896년 9월 9일 저녁에 도착했다고 전하고(〈Ye Pom Gin and His Family

Arrived Last Evening〉, 1896. 9. 10.) 『미사일록』에서는 9월 10일 도착으로 기록하고 있다(『美槎日錄』 建陽元年 9月 10日). 미국 언론기사에는 도착했다는 사실과 함께 "1892년 이채연 부인이 귀국한 이후 첫 공사 부인인 소실 박씨가 미인이며, 차남 이위종이 10살로 이미 영어문장을 익혔고 모두 조선 의상을 입고 있다"라는 내용을 9월 10일자 기사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1898년 4월 9일, 주미공사관 3층 서기관 이의담의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실이 현지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는데, 얼마 지나 국내 언론에도 기사화되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화재는 히터의 결함으로 발생하여 귀중한 그림, 책상과 공문서 등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범진 공사는 아침식사 중이라 화재가 나자 공사 가족은 이웃집으로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공사관에 보관하던 문서들을 화마火魔로부터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6]

1900년 3월 이범진 공사가 유럽으로 전임되면서 4월 초부터 이의담이 서리공사 직위를 맡게 되었다. 화재가 난 약 2년 후인 1900년 4월 15일 『주미내거안』[7]에는 당시 임시 서리공사 이의담이 공사관 건물의 손상이 심해 물이 새는 등 수리·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대한제국 외부外部에 '질품서質稟書 제1호'로 보고하면서 현지 보수 업체(A.J. Fisher & Co.)에게 받은 견적서인 '주미공관중수명세서駐美公館重修明細書'를 송부하였다. 이 기록은 1900년 당시 공사관 건물 2, 3층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 등 각방의 명칭과 이곳에 비치되어 있던 구체적인 물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역이다.

---

6) 〈독립신문〉 "지나간 토요일에 미국 와승돈에 잇는 대한 공ᄉᆞ관에 불이 나셔 온통 다 타졋다더라"(1898.4.16.);《Washington Post》, 〈Korean legation ablaze〉(1898.4.9.); 《Washington Times》, 〈FIRE AT KOREAN LEGATION〉(1898.4.10.)

7)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은 1895년 11월 8대 서광범 공사 재임 시기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공사관이 폐쇄되던 김윤정 공사 재임 시까지 약 10년간 주미공사관과 조선 및 대한제국 외부(外部)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아놓은 기록물철이다. 모두 7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국한문으로 작성한 문서에 사안에 따라 영어가 포함된 부속 문서들도 첨부해 놓았다. 주요 내용은 공사관의 현지 관원들의 봉급 및 운영에 관한 건, 국서(國書) 봉정에 관한 사항, 주미공사의 교체 등에 따른 인장(印信) 교체 및 전임 공사의 재직 시 주요 사항 등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한 것들이다. 이 같은 내용들로 볼 때, 현지 외교 사안을 다룬 문서라기보다는 공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현지 공관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외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을 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사관 운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록물이자 사료이다.



『주미내거안』 5책〈주미공관중수명세서(駐美公館重修明細書)〉

Legation of Korea

Washington April 15th 1900

質稟書第一號

本公館을 修改아니ᄒᆞ온지가 幾近八九年이라 全屋이 壞傷ᄒᆞ야 再則屋上이 漏之ᄒᆞ니 不幾月이면 將至陷落之境이오 屋內引水鉛管及水桶等物이 都是朽坡ᄒᆞ야 方今下層에ᄂᆞᆫ 水流各處ᄒᆞᄆᆡ 由此木料朽傷ᄒᆞ야 惡氣溝室이오 其他萬不成樣之情形이 非一非再故로 使修改家舍會社人으로 全屋을 周察後에 不可不略略修補處를 分別錄之ᄒᆞ여ᄉᆞᆸᄂᆞᆫᄃᆡ 其修理費爲美國金貨二千元假量이ᄋᆞᆸ기 該錄單一紙를 胎呈ᄒᆞ와 玆에 質稟ᄒᆞ오니

査照ᄒᆞ오셔 如何措處之方을 指令ᄒᆞ시믈要홈

光武四年四月十五日

駐箚美國特命全權公使臨時署理李宜聃

議政府贊政外部大臣朴齊純 閣下

內附修理交錄單一紙

〈번역문〉

주미공사관

1900년 4월 15일

질품서 제1호

본 공관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지가 거의 8, 9년에 이릅니다. 전체 건물은 손상되었고, 게다가 옥상은 누수가 되어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무너질 지경입니다. 건물 내로 물이 스며들어 배관과 물통 등은 모두 썩고 파손되어, 지금 하층에는 물이 곳곳에 흘러 목재는 썩어 해로운 기운이 배관과 각 방에 가득합니다. 그 외에도 도무지 꼴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황이 비일비재한 고로 집을 수리 보수하는 회사에게 건물을 두루 살펴보게 한 후, 대략 수리 보수할 곳을 분별하여 기록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수리비가 미국 금화 2,000원가량으로 해당 문서 1건을 동봉하여 보내드리고 질품하오니 대조하셔서 어찌 조처해야 좋을지 방도를 통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무 4년(1900년) 4월 15일

주차미국특명전권공사임시서리 이의담
의정부찬정외부대신 박제순 각하

내부수리교록단일지
위와 같이 임시서리공사 이의담이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

에게 보낸 〈질품서 1호〉의 주요 내용은 8~9년 동안 건물 보수를 하지 않아 건물 전체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 특히 각 층의 누수가 매우 심각해 서둘러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질품서와 함께 미국 현지 업체(A. J. Fisher & Co.)로부터 수리에 따른 각 층별 내역과 비용(1,962.80달러) 등이 기재된 공사 견적서(1900.4.13.)를 포함한 「명세서」를 받아 부속문서로 보고하는데, 이는 당시 공사관 건물의 주요 공간과 그 상태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에 해당한다. 특히 이 문서에는 당시 공사관 내부 1, 2, 3층과 지하층의 각방 명칭도 상세히 적어 놓았다.

공사관 2층과 3층은 사진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층별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이 공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2층은 공사방과 사무소, 서적실로 구성된 공적 업무 공간으로, 3층은 공관원 숙소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지하공간은 보일러실, 세탁실, 식료품저장고, 당구실 등으로 쓰여 관리 및 휴식공간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층은 메인홀(Main Hall), 접견실(Parlor, 객당), 접견실 후면(Back Parlor, 정당), 온실(Conservatory), 식당(Dining Room)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층은 공사방, 서재(Library), 사무실(Office), 3층은 공사(公使)외 나머지 공관원들이 사용하는 3개의 방, 지하층은 보일러실(Furnace Room), 당구실(Billiard Room), 부엌(Kitchen), 식료품저장고(Pantry), 세탁실(Laundry) 등으로 소개하고 있어 당시 내부 공간의 기능과 배치 상태를 잘 보여준다. 이는 미국 헌팅턴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사관 1층 내부 사진 2컷(1892년경 촬영)과 함께 공사관 2, 3층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 등 각 방의 명칭과 용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자료인 셈이다.

〈원문〉

內附修理處錄單一紙

一千九百年四月十三日 Fisher會社
駐美公館重修明細書

A.J. FISHER & CO.
CONTRACTORS AND BUILDERS
921 Virginia Ave. S. W.

Washington, D. C. April 13th, 1900.

Mr. Tam E. Ye,
Charge d' Affaires of Corea
at Washington, D. C.

Dear Sir : ---

I propose to furnish the necessary material and labor and make the following repairs to house 1500-13th st. N. W. known as the Corean Legation.

Roof and Third Story.

Repair and paint tin roof, repair slate roof of tower and use railing on the crest of roof and repair tops of chimneys and fire walls.

Bath Room on Third Floor.

Repair plumbing of washstand and spigotts, Enamel bathtub and paint wood work and renew papering.

Room 1, Third Floor.

Repair windows and doors and put on new paper and touch up and varnish wood work.

Room 2, Third Floor.

Scrape and whitewash walls and ceiling and repair and paint windows and doors.

Room 3, Third Floor.

Repair plastering and re-paper room. Repair and varnish windows and doors and base and varnish window and door in hall.

SECOND STORY.

Room 1.

Repair and varnish windows and doors and repaper room.

Bath Room.

Repair plumbing and repair and varnish windows and doors and wainscoting.

Library.

Repair and varnish windows and doors and wainscoting and re-paper room.

Hall.

Re-paper and varnish second story hall.

Office.

Repair and varnish windows and doors and base.

Bath Room, No. 2 same Floor.

Repair window and door and wood work of closet and varnish the same.

Bed Room No. 3.

Repair windows and doors and varnish same and paint roof of porch.

FIRST FLOOR.

Main Hall.

Paper entire hall and tint cornice and varnish the wood work and furnish and put down carpet of same quality as is now on the floor.

Parlor.

Repair and touch up and varnish the windows and doors and base and scrape and re-paper and tint cornices and put down new carpet of same quality as is now on the floor.

Back Parlor.

Repair and touch up and varnish wood work and scrape and re-paper and tint cornice.

Conservatory.

Repair windows and doors and wall and put in new flowerstand and put down new matting and re-paper ceiling and side walls.

Dining Room.

Repair and touch up and varnish the wood work and scrape and re-paper the ceiling and walls.

Butler's Pantry.

Repair dumb waiter, and repair windows and doors and paint the same and scrape and re-paper the room and put in new butler's sink and new

wood work for the same.

Back Hall.

Scrape and re-paper and repair and varnish the window and base.

Servant's Water Closet.

Scrape and paper room and repair and paint wood work, and repair plumbing and put new tray under washstand and new sill to window and repair seat of closet.

Basement Hall.

Repair and paint wainscoting and doors and scrape and whitewash walls, ceiling and put down new floor.

Furnace room.

Repair plastering and whitewash walls and ceiling and repair plumbing and put sills and lintels to cellar windows and repair iron guard and concrete cellar with Portland cement.

Billiard Room.

Put in new floor and repair plastering and re-paper room. Repair and touch up and varnish wood work.

Kitchen.

Scrape and whitewash ceiling and walls and repair range and put new wood work, to sink and put in glass and repair windows and touch up and varnish wood work.

Entry.

Scrape and whitewash walls and repair and paint windows and doors and wood work.

Water Closet.

Remove bath tub and repair closet seat and scrape and whitewash room

and repair plastering and repair and paint wood work.

Pantry.

Repair plastering, scrape and whitewash room. Repair and paint wood work and windows and doors.

Laundry.

Repair plastering and scrape and whitewash room and put in new floor and one new door and repair and paint wood work and repair fire place and put new top on tubs and repair wainscoting.

Back porch.

Repair and paint roof of porch over laundry door, also roof over coal shed, and build new side gate and repair side fence and make new back gate and put in electric bells, and repair the roof and gutters and spouts and lantern to the Porte Cochere, and put beveled plate glass in vestibule doors and clean off and varnish the front door and frame and paint all iron and wood work on the outside of house heretofore painted with two coats of paint for the sum of $1,962.80/100.

The aforementioned work is very essential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and from a sanitary standpoin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se repairs to be made for the health of the occupants.

Respectfully A.J. Fisher & Co.

〈번역문〉

1900년 4월 13일 피서회사
주미공관중수명세서

A.J. FISHER & CO.
CONTRACTORS AND BUILDERS
921 Virginia Ave. S. W.

워싱턴 D.C. 1900년 4월 13일

수신 : 임시 서리공사 (이의담Tam E. Ye)

나는 1500번지 13가 북서쪽, 주미공사관의 수리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와 노동을 제안한다.

지붕과 3층(Roof and Third Story)
- 주석 지붕 수리 후 도장, 지붕 타워의 슬레이트 지붕 수리, Fire Walls와 굴뚝 상부 수리

3층 욕실(Bath Room on Third Story)
- 세면대 수도관, 수도꼭지, 에나멜 욕조 수리, 목재 도상, 벽 도배

3층 방 1(Room 1, Third Story)
- 창문과 문 수리, 벽지 도배, 목재 수리 후 바니쉬 칠함

3층 방 2(Room 2, Third Story)
- 벽과 천장을 긁어내어 백색도료를 칠함, 창문과 문 수리 후 도색

3층 방 3(Room 3, Third Story)
- 회미장 보수, 벽 도배, 창문과 문, 바닥 수리 후 바니쉬 칠함, 홀 창문과 문에 바니쉬 칠함

2층(SECOND STORY)

방 1(Room 1)
- 창문과 문 수리 후 바니쉬 칠함, 벽 도배

욕실(Bath Room)
- 수도 배관 수리, 창문과 문, 징두리벽(wainscoting) 수리 후 바니쉬 칠함

서재(Library)
- 창문과 문, 징두리벽(wainscoting) 수리 후 바니쉬 칠함, 벽 도배

홀(Hall)
- 도배 및 바니쉬 칠함

사무실(Office)
- 창문과 문, 바닥 수리 후 바니쉬 칠함

2층 욕실 2(Bath Room, No. 2 same Floor)
- 창문과 문, 벽장 목재 수리 후 바니쉬 칠함

침실 3(Bed Room No. 3.)
- 창문과 문 수리 후 바니쉬 칠함, 포치지붕 페인트

1층(FIRST FLOOR)

메인 홀(Main Hall)
- 전체 홀 도배, 목재 및 가구(furnish) 바니쉬 칠함, 카펫 깖

응접실(Parlor)
- 창문과 문, 바닥 수리 후 바니쉬 칠함, 도배, 천장 몰딩 엷게 칠함, 새 카페 비치

응접실 후실(Back Parlor)
- 목재 수리 후 바니쉬 칠함, 도배, 천장 몰딩 엷게 칠함

온실(Conservatory)
- 창문, 문, 벽 수리, 새 화단 비치, 새 매트 비치, 천장과 옆벽 도배
식당(Dining Room)
- 목재 수리 후 바니쉬 칠함, 천장과 벽 도배
식기실(Butler's Pantry)
- 덤 웨이터(dumb waiter) 수리, 창문과 문 수리 후 도장, 도배, 씽크 새로 설치, 목재 신설
홀 후면(Back Hall)
- 도배, 창문과 바닥 보수 후 바니쉬 칠함
하인용 화장실(Servant's Water Closet)
- 도배, 목재 수리 후 도장, 배관 보수, 세면대 하부 트랩과 창문 문틀 새로 설치, 변기 수리
지하홀(Basement Hall)
- 징두리벽과 문 보수 후 도장, 천장과 벽에 백색 도장(whitewash), 바닥 신설
보일러실(Furnace Room)
- 벽과 천장 회 미장 위 백색 도장(whitewash), 배관 수리, 창고 창문의 문틀과 상인방(上引枋) 설치, 포틀랜드 시멘트로 콘크리트 저장고와 iron guard 수리
당구실(Billiard Room)
- 바닥 신설, 회벽 보수 후 도배, 목재 보수 후 바니쉬 칠함
부엌(Kitchen)
- 천장과 벽 보수 후 백색도장(whitewash), 오븐 수리, 싱크에 목재작업, 유리 설치등, 창문보수, 목재 수리 후 바니쉬 칠함
입구(Entry)
- 벽을 긁어내고 백색도장(whitewash), 창문과 문, 목재 보수 후 도장
화장실(Water Closet)
- 욕조 철거와 변기 보수, 긁어내고 백색도장(whitewash), 목재 보수 후 도장

식료품저장고(Pantry)

- 회미장 보수 후 백색도장(whitewash), 목재, 창호, 문 보수 후 도장

세탁실(Laundry)

- 회미장 보수 후 백색도장(whitewash), 바닥과 문 1개소 설치, 목재 위 도장, 난로보수, 세탁조 보수

후면 포치(Back Porch)

- 세탁실 위 포치지붕과 석탄 헛간 위 지붕 보수 후 도장, 옆문 신설, 옆 펜스 보수, 뒷문 신설, 전자벨 설치, 마차 출입구로의 지붕, 홈통, 배수구, 랜턴 설치, 현관 대기실 문 베벨글라스 설치, 문틀 청소 후 바니쉬 칠함, 집 외부 철과 목재 위 재도장, 총액은 1,962.80달러이다.

위에서 언급한 작업은 건물의 보존과 위생 관점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이 수리 작업은 입주자들Occupants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J. Fisher & Co.

임시서리공사 이의담이 언제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는지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서리공사로 신태무申泰茂 임명을 1900년 6월 2일자로 주한 미국 공사 알렌H.N.Allen에게 통지한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차 귀국 특명전권공사駐箚貴國特命全權公使 이범진李範晉이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공사로 전임되어 이의담이 잠시 사무를 대리하고 있으니 공사관 2등 참서관參書官 신태무를 위촉하여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임시로 공사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귀국하여 1907년 12월 31일 연천군수에 임용되었으며, 1908년 4월 17일자로 연천군수에서 면직되었다.

9. 주미공사 조민희





조민희

조민희趙民熙는 주미공사 이범진의 뒤를 이어 파견된 외교관이다. 그의 본관은 양주楊州이고, 조병익趙秉翼의 아들로 1859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을사늑약에 항의하며 자결한 조병세趙秉世의 집안 조카이며 을사오적 이완용의 처남이기도 하다.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법부협판에 이르렀다. 특명전권공사로서 미국과 일본에 주재하였고, 여러 친일 단체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일제 강점 후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이왕직 찬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참의 등에 임용되었다.

1885년 9월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10월 승정원 대리 임시관직인 가주서假注書를 시작으로 1886년 1월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 1887년 3월 홍문관 부수찬이 되었고, 이후 9월 양성현감, 12월 용인현령을 거쳐 1889년 10월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1894년 6월 승정원 동부승지, 1895년 8월 전주부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1897년 1월 비서승이 되었다. 1897년 9월에는 평안남도 관찰사, 1899년 평안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11월 법부 협판에 임명되어 형법교정관을 겸임하였다. 1901년 3월 12일자로 프랑스 주재특명 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16일자로 미국 주재를 명받아 1904년 4월까지 주차 미국 특명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조민희의 주미공사과 김만수金晩秀를 프랑스 주재 특명전권공사 파견에 대해 당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재임 1901~1906는 본국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파견의 의도를 설명했다. 미국 주재 공사관은 이미 개설이 되어있으나, 프랑스 등 다른 공사관은 신설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행한 데 대해 대한제국의 중립 문제를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 조약 체결국에 상주 공사관을 개설함으로써 대한제국 황제의 위엄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파악하였다.

조민희가 미국 워싱턴으로 부임하기 위해 경운궁(현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에게 하직 인사한 내용을 보면 자세한 부임 기간 및 경로 등을 엿볼 수 있다.

> 상(고종)이 이르기를, "구주歐洲의 각 공사는 앞서 이미 출발했다. 경이 가는 곳은 해륙海陸에서 멀리 동떨어진 곳이니, 잘 다녀오라." 하니, 조민희가 아뢰기를, "황령皇靈이 함께하시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미국까지는 며칠 걸리겠지만 한 달 정도일 듯싶다." 하니, 조민희가 아뢰기를, "인천을 통해 일본 신호神戶, 고베에 이르면 5일 정도 소요될 것이고, 신호에서 동경까지는 1일에서 2일 정도, 동경에서 횡빈橫濱, 요코하마까지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대로 머물러 공사의 복장을 만드는 데 6일에서 7일이 소요될 것이고, 횡빈에서 배를 타고 15일에서 16일 정도 가면 샌프란시스코桑港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華盛頓까지도 7일에서 8일이 걸리니, 다 계산하면 한 달이 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횡빈에서는 공사의 복장을 만들 수 있는가? 필시 도식圖式이 있을 것이다" 하니, 조민희가 아뢰기를, "도식도 있고 잘 만들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배편은 언제 있는가?" 하니, 조민희가 아뢰기를, "모레 오후 1시에 일본 장기長崎, 나가사키까지 가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어 정하묵으로 하여금 조민희에게 국서國書를 전하도록 하니, 조민희가 무릎 꿇고 받았다. (『승정원일기』 1901. 4. 18.)

이후 조민희 공사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1901년 4월 13일 이의담李宜聃 대리공사가 공사관 수리를 위해 요청했던 예산 즉 은화 4천 원을 받아 부임하였다. 1달 여가 소요된 5월 22일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도착하였다. 6월 4일에는 전 주미공사 이범진 후임으로 국무성 헤이John Hay 서기관과 함께 백악관에 가서 정식으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Jr, 재임 1897~1901를 예방하고 신임장을 제정했다. 조민희는 대리공사 신태무申泰茂, 3등 참서관 이승구李升九와 동행했는데, 이들은 모두 그들의 서열에 맞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 윌리엄 미국 대통령은 고종의 돈독한 후의에 감사를 표하였다.

1902년 1월 5일 대한제국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서리 민종묵閔種默에게 보낸 보고서 제11호에 따르면, 조민희 공사는 부임 시 은화 4천 원을 가지고 와서 작년 1901년 8월에 공사관 수리 비용으로 지불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수리비용과 집기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어떤 물건이 공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주미공관물품기(駐美公館物品記)〉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 五



〈주미공관수리후유물기(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 五

‘주미공관수리후유물기(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원문 및 물품설명

光武五年八月 日(1901년 8월) 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御眞 睿眞

正堂

交椅三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錫粧坐鍾一坐	석장좌종 : 주석으로 장식한 좌종(앉아서 치는 종)
華甁五箇	화병 : 꽃병
紗帳二雙	사장 :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커튼
厚帳一雙	후장 : 두터운 커튼
火屛一件	화병 : 태양이 그려진 벽난로를 막고 있는 병풍
國旗一面	국기 : 태극기

客堂

交椅十一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綢屛三件	위병 : 비단으로 수놓은 병풍
大鏡一坐	대경 : 벽난로 위 큰 거울
板畵四件	판화 : 벽에 걸어 놓은 그림
小凳一坐	소등 : 작은 걸상
紗帳十一件	사장 :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커튼
厚帳六雙	후장 : 두터운 커튼
石粧坐鍾一坐	석장좌종 : 돌로 장식한 좌종
玻璃花甁一雙	파리화병 : 수정으로 만든 꽃병
石粧罇樣物一雙	석장준양물 : 돌로 장식한 술병형태
華甁一箇	화병 : 꽃을 꽂는 병
鐵網屛一件	철망병 : 철망형태로 만든 병풍

門內甬道

方案一坐	방안 : 책상
面褓一件	면보 : 수건
名刺碟一箇	명자설 : 이름이나 신분이 새겨진 접시
飯鍾一箇	반종 : 식사를 알리는 종
笠架鏡幷一坐	입가경병 : 갓을 걸고 거울을 겸하는 선반
板畵一機	판화 : 그림
花缸一坐	화항 : 꽃병

食堂

厚帳一雙	후장 : 두껍게 만든 커튼
紗帳三雙	사장 : 비단으로 만든 얇은 커튼
食卓一坐	식탁 : 식사하는 탁자
交椅十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大鏡二坐	대경 : 큰 거울
器皿櫥一坐	기명장 : 음식 그릇을 보관하는 장롱
小卓一坐	소탁 : 작은 상
銅茶鑵具臺一坐	동다관구대 : 받침대를 갖추고 있는 차 우리는 기구
石粧坐鍾一坐	석장좌종 : 돌로 장식한 좌종
留器圓卓一坐	유기원탁 : 그릇을 놓아둘 수 있는 원탁
廳屛一件	청병 : 식당내에 비치하고 있는 병풍
塑像俱琉璃厘一雙	소상구유리리 : 찰흙으로 만든 상, 유리
花甁俱假花一箇	화병구가화 : 조화를 꽂은 꽃병

事務所

交椅五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英字典幷機二卷　영자전병기 : 영문 자전과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찌)
挈盒欌二坐　설합장 : 그릇을 보관하는 장롱
書卓二坐　서탁 : 책을 놓거나 책을 읽기 위해 만든 탁자
長椅一坐　장의 : 긴 소파
綢屛一件　위병 : 비단으로 수놓은 병풍
電扇一坐　전선 : 선풍기
長鏡一坐　장경 : 긴 거울모양의 장식품
英文印刷機一坐　영문인쇄기 : 영문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
板畵一機　판화 : 벽에 걸어놓은 그림
掛鍾一坐　괘종 : 벽에 걸어놓은 시계
紗帳三雙　사장 : 비단으로 만든 얇은 커튼
英文壓刷機一坐　영문압쇄기 : 영문을 새길 수 있는 기계
衡一箇　형 : 저울
地球具臺一坐　지구구대 : 받침대를 갖추고 있는 지구본

書籍室
英文書冊六百二十二卷　영문서책 : 영문서
櫃內二十七卷　궤내 : 함 안
側案一坐　측안 : 측면 책상
小欌一坐　소장 : 작은 장롱
存案一卷　존안 :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이나 안건
暗報冊五卷　암보책 : 비밀보고 문서

公使房
寢床一機　침상
交椅二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掛笠機一坐	괘립기 : 갓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한 기구
書卓一坐	서탁 : 책을 놓거나 책을 읽기 위해 만든 탁자
粧鏡一坐	장경 : 거울과 아래 물품을 넣어 놓는 서랍이 있음
紗帳一雙	사장 : 비단으로 만든 커튼

各房

寢床六機	침상
交椅十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粧鏡四坐	장경 : 거울과 아래 물품을 넣어 놓는 서랍이 있음
書卓四坐	서탁 : 책을 놓거나 책을 읽기위해 만든 탁자
長椅一坐	장의 : 긴 의자, 즉 소파로 보임
小櫥一坐	소장 : 작은 장롱
掛笠機幷鏡一坐	괘립기병경 : 갓을 걸어놓을 수 있는 기구와 거울
厚帳二雙	후장 : 두껍게 만든 커튼
板畵二機	판화 : 벽에 걸어 놓은 그림
紗帳四雙	사장 : 비단으로 만든 커튼
唾器六箇	타기 :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衾具冬夏幷	침구동하병 : 이부자리(겨울과 여름용)
飯刀十五箇	반도 : 식사준비용 칼
叉子十五箇	차자 : 포크
大匙十五箇	대시 : 큰 숟가락
茶匙十箇	다시 : 차 숟가락
加皮匙十箇	가피시 : 가죽으로 씌운 숟가락
磁器甫兒十五箇	자기보아 : 자기로 만든 작은 반찬 그릇
鐘子十箇	종자 : 종기라고도 하고 간장 그릇
小碟十箇	소설 : 작은 접시

煤燈心鐵一箇	매등심철 : 그을음이 나는 등, 속 부분은 심철을 사용
食床白褓四件	식상백보 : 밥상을 차리는 데 사용하는 백색 보자기
揮巾二十箇	휘건 : 식사할 때 앞에 두르는 수건
洗手琉璃器七器	세수유리기 : 세수할 때 사용하는 유리그릇
貯水器一箇	저수기 : 물을 모아두는 기구
銀器六箇	은기 : 은으로 만든 그릇
銀茶鑵一坐	은다관 : 은으로 만든 차 우리는 기구
銀錚盤一箇	은쟁반 : 은으로 만든 쟁반
果碎機一件	과쇄기 : 과일을 가는 기구
石花碟匙四箇又小六箇	석화설시 : 석화(굴)무늬 작은 접시 / 작은 접시
酒甁二箇	주병 : 술병
酒碗一箇	주완 : 술 담는 그릇
盃十二箇	배 : 술잔
三板酒五箇	삼판주 : 삼페인

廚房

炊餐大爐一坐	취찬대로 : 밥을 짓는 큰 밥솥
長椅一坐	장의 : 긴 의자, 즉 소파로 보임
交椅二坐	교의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木床二坐	목상 : 나무로 만든 상
濾水石缸一坐	여수석항 : 물을 걸러 깨끗하게 하는 돌 항아리
石缸三箇	석항 : 돌 항아리
氷水缸一坐	빙수항 : 빙수를 담은 항아리
自鳴鐘一箇	자명종 : 알람시계
灸釗一箇	구쇠 : 뜸을 뜨는 쇠
鷄卵調機一箇	계란조기 : 계란을 적합하게 하는 기구

煮餠鐵一箇　　자병철 : 떡을 굽는 기구
煎餠鐵一箇　　전병철 : 음식을 부치는 기구
南飛四箇　　남비 : 냄비
麵包鐵一箇　　면포철 : 빵 굽는 기구
湯鑵一箇　　탕관 : 약을 따르는 통
洋鐵桶三箇　　양철통 : 철로 만든 통
磁器缸一箇　　자기항 : 자기로 만든 항아리
火揷一箇　　화삽 : 재를 치거나 숯불 등을 옮기는 조그마한 삽

器皿類
白碟匙十五箇　　백설시 : 흰 접시
湯碟匙十五箇　　탕설시 : 스프(soup)를 담는 접시
醋甁一箇　　초병 : 식초병
塩器六箇　　염기 : 소금그릇
琉璃碟匙一箇　　유리설시 : 유리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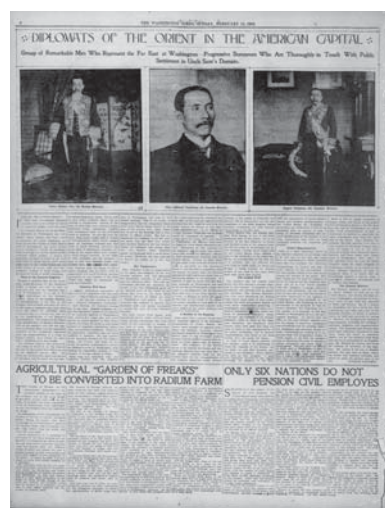
下層地室
戲几大床一坐　　희궤대상 : 놀이할 때 기대는 방석과 큰 상
几四箇　　궤 : 기대는 방석
杖二十四箇　　장 : 지팡이
寫眞十二本　　사진
匙一箇　　솔
割草機一坐　　할초기 : 잔디를 깎는 기구
掃雪揷一箇　　소설삽 : 눈을 쓸어내는 삽
石炭揷一箇　　석탄삽 : 석탄을 담거나 옮기는 삽
火具一箇　　화구 : 불을 때는 데 필요한 기구
水管開金一箇　　수관개금 : 수관을 여는 열쇠

또한 조민희 공사는 남미 콜롬비아에 속해있던 파나마국의 독립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내 재가를 요청하였다. 대한제국도 세계 각국들에게 파나마국과 같은 위치로 독립을 특별히 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세계 민주 정치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특히 이미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도 이미 승인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민희 공사가 보낸 내용이다.

"방금 주차미국 특명전권공사 조민희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새로운 미국 주재 파나마국 공사의 공문을 보니, 「본국은 본래 남미 콜롬비아국에 속한 땅이었으나 현재 독립하여 민주 정치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승인을 받았고,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가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번거롭겠지만 귀 공사公使가 귀국 정부에 자세히 전하여 일체 승인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해 보니, 해국該國은 새로 독립하여 한두 우방이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리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파나마국의 독립을 특별히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특별히 승인해 주는 일에 관계되어 본부本部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조민희 공사를 촬영한 공사관 내부



☆DIPLOMATS OF THE ORIENT IN THE AMERICAN CAPITAL☆

AGRICULTURAL "GARDEN OF FREAKS" TO BE CONVERTED INTO RADIUM FARM

ONLY SIX NATIONS DO NOT PENSION CIVIL EMPLOYES

〈The Washington Times〉(1904.2.14.)



러시아 대사 Count Cassini, 일본 공사 Kogoro Takahira와 공사관원, 중국 공사 Chentung Liang-Cheng과 공사관원 대한제국 공사 조민희(Minhui Cho)(〈Harpers Weekly〉(1904. 5. 7.)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1903년 12월 다시 주차 일본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다가 1904년 9월에 귀국하여 육군 보병 참령參領에 임명되었다. 1905년에는 훈1등에 서훈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받았다. 1906년 1월 육군 보병 부령 계급으로 경상남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7월 평리원 재판장에 임명되어 헤이그 특사 사건의 처리를 맡았다. 같은 해 8월 승녕부 시종장承寧府侍從長에 임명되었고, 그해 11월 다시 승녕부 총관에 임명되었다.

1907년 10월, 대한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다이쇼 천황)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친일 대신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부장에 선출되었고, 1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동아개진교육회의東亞開進敎育會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08년 2월 통감부의 유림 회유정책에 편승하여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조직한 유교단체 대동학회의 평의원이 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대만과 조선의 식민화를 보조하고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발족된 단체인 동양협회 한국지부에 가입해서 활동하였다.

1909년 1월 순종 황제가 서남 지방을 순행할 때 호종하고 2월 훈1등 태극장을 받았으며, 1910년 8월 종1품으로 승진하였다. 1909년 7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 때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황태자 도한기념장을 받았다. 또 안중근 의거 직후에는 고종의 특사로서 이토 히로부미 조문을 위해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하였고, 11월 장충단에서 열린 관민 추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10월 7일 발표된 자작 작위 수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 1911년 1월 13일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은사공채권 교부식에 참석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5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같은 해 2월 22일 총독관저에서 열린 작기 본서 봉수식爵記本書奉授式에 참석하였다. 그 해 8월 29일자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 축사를 게재하였다. 또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12월 정4위에 서위敍位되었다.

1915년 4월 일본 황후 1주기에 조선귀족 총대로 참가하고 11월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여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대례식에 참석하였을 때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一視同仁 하시는 성은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감상문이 1915년 11월 29일자 〈경성일보〉에 게재되었다. 같은 해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 발기인 및 특별회원이 되었다. 1917년 10월 불교계 친일단체 불교옹호회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1918년 정4위에 승서되었고,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이왕직 찬시(고등관 2등)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고종 황제 국장 빈전 주감을 맡았다. 이후 1919년 11월 15일부터 1921년 4월 26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21년 4월 28일부터 1924년 4월 26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였

다. 또한 1925년 4월 18일까지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이어 1926년 5월 15일 종3위에 승서되었다. 1927년 12월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되어 1928년 2월 29일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다. 이 같은 사정은 조선총독부 비밀문서인 〈조선귀족약력〉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의 파산 소식은 1928년 〈조선일보〉 보도와 같이 "요사이 조선귀족들의 재산이야말로 봄눈 녹듯이 하나식 둘식 소리 업시 사라저버리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1927년 2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귀족론'은 친일 귀족들의 몰락이 1920년대의 일반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준다.

> "근일의 각 신문지는 조선귀족이 영락의 심연으로 질주하고 잇는 것을 보도하엿스니, 후작·자작 등 4귀족이 파산선고를 당하게 되엇다는 것이다. 이와 가티하야 조선귀족이 몰락하야가는 상태를 우리 안전眼前에 볼 때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들의 처지에 연민의 정을 표할 수도 업지 안켓지마는 그들의 몰락을 대관大觀할 때에 그들은 귀족 전체로서의 필연한 운명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잇는 것이다."

1931년 1월 2일 사망하여 2월 16일 장남 조중수趙重壽, 1894~1940가 자작 작위를 세습하였다.

10. 주미공사 서광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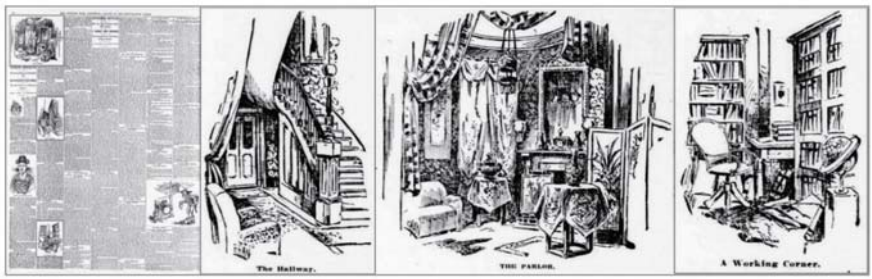


서광범

보빙사 시절 서광범 이외의 자료는 주미공사 이범진 재임 기간 동안 각종 신문·잡지 등 언론에 실린 주미공사관에 관한 기사들은 주미공사관 보수 및 복원, 내부 구조 및 전시 물품 구입 및 제작 등을 통한 재현에 대한 근거를 찾는 데 많은 정보를 주었다. 특히 아래 〈The Evening Star〉 (1896. 8. 15.)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미공사관의 내부에서 관복을 입고 있는 서광범 공사[8]와 1층 중앙 홀(The Hallway), 객당(The Parlor)과 2층 사무소(A Working Corner) 등 내부 공간에 대한 자세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다. 1896년 9월 퇴임을 앞둔 서광범 주미공사의 소식을 〈Evening Star〉가 8월 15일자 기사로 다뤘다. 후임 공사 이범진은 워싱턴 D.C.로 향해 부임하기 위해 여정 길에 있었다. 앞선 기사에는 1893년 존스턴Frances B. Johnston이 촬영한 공사관 사진과 일치하는 1층 객당 모습을 포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 사무실의 모습이 삽화로 함께 소개되었다. 기사 속 당시 공사관 실내 모습은 공사관 복원 및 재현에 귀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1892년경에 여성 사진작가 존스턴이 촬영한 주미공사관 내부 중앙 홀과 식당, 객당과 정당 사진과 『주미내거안』「유물기」(1901년 8월) 등 사료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시 인테리어 재현내용에서 크게 참고가 되었다. 중앙 홀 계단실 난간의 조명등, 객당 내 병풍, 소 탁자 및 테이블보 디자인, 거울, 커

8) 서광범은 1882~1883년 일본을 시찰하고, 이어서 보빙사 일원으로 미국, 유럽을 시찰한 뒤 국제적 안목을 넓혀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과 미국을 떠돌다 1894년 말 김홍집 내각에 복귀했다. 이후 1896년 2월 주미공사로 부임했으나, 아관파천1896으로 친러파가 정권을 잡자 부임 7개월 만에 공사직을 물러났다. 기사는 이러한 서광범의 퇴임 소식과 함께 당시 조선의 내정을 소개한 것이다.



〈The Evening Star〉(1896.8.15.)

튼 등, 사무소의 지구본, 의자 책상, 책장 등의 구성이다.

주미 공사로 이범진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2명의 갑신정변 주역이자 미국으로 망명한 서광범과 변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처리가 조선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다른 유학생들에 대한 대우와 큰 차이가 있어 그 상황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896년 9월 10일(미국 신문에는 9월 9일 도착 기사) 워싱턴 D.C. 주미공사관에서 1895년 을미사변 후 도미한 김헌식金憲植, 이희철李喜轍, 임병구林炳龜, 안정식安廷植, 여병현呂炳鉉, 이범수李範壽, 이하영李廈永 등 6명의 유학생[9]들의 충성과 절의를 칭찬한 바 있다.[10] 또한 이들 유학생 중 임병구, 여병현, 이범수, 이하영이 영국과 프랑스를 유람하러 간다고 하자 그들의 뜻을 치켜세우기도 하였다.[11]

1897년 8월 13일 3시 30분경, 전 주미 공사 서광범은 워싱턴 D.C. 그의 자택 현 주소 2826 14th St. N.W. Washington D.C. 20009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

9) "경응의숙(慶應義塾)에 수학 중이던 임병구(19), 이범수(24), 김헌식(27), 안정식(27), 여병현(26), 이하영(29) 6명은 지난달(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동교 기숙사를 은밀히 빠져나와 미국 도항을 도모하였다. … 박의기(朴義氣)라는 자도 성성학교(成城學校)에서 도주하여 행방불명인 바, 아마 7명은 모두 복장을 바꾸어 외국에 도항한 것 같다"(『朝報』, 1896.3.1.); "지난 2월 경응의숙을 도망하여 미국에 도항한 유학생 6명은 벤쿠버에 도착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 6명은 작년 7월 중 일본으로 온 조선정부 유학생으로 미국 워싱톤시에 가는 자들로 두발을 자르고 양복을 입고, 재일 조선 공사로부터 재미 공사 서광범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이달 11일에 벤쿠버에 도착하였다"(『時事新報』1896.4.17.).

10) 『美槎日錄』,建陽2年(고종 34년) 9月 10日.

11) 『美槎日錄』,建陽2年(고종 34년) 9月 23日.

그는 1883년에는 보빙사 민영익의 종사관으로, 1884년 10월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다가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던 인물이다. 이듬해 5월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 워싱턴 D.C.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으며 1890년 서재필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2번째로 1892년 11월 18일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였다. 이후 1894년에 일본의 주선으로 귀국하여 1895년에 학부대신으로, 1896년 1월 18일에는 주미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친일내각이 무너지자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공사에서 해임되었고 1896년 9월 11일자로 신임 주미 공사 이범진과 공사 교체[12]된 후 약 11개월 후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주지하다시피 주미 공사 이범진은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를 업고 피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문관수찬에 임명되었는데, 12월 홍문관원들의 집단 상소에 반일 토벌을 건의하는 등 갑신정변 주도 세력을 증오하며 그 흉적들을 잡아 처형할 것을 주장했다.[13]

서광범의 사망 원인은 과도한 운동으로 급성 진행된 폐결핵으로 보도되었다. 이범진 공사와 공사직 교체 이후에도 병세가 좋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귀국일이 미뤄져 오다, 고종이 서광범을 특별 위원으로 임명하여 빅토리아 여왕의 취임 60주년을 맞아 영국을 방문했던 여정으로 서광범의 질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8월 7일 토요일 자전거를 타고 난후 병세가 깊어졌다. 즉 격렬한 운동이 죽음을 재촉한 원인이 되었다.[14]

장례는 8월 15일 신지학협회the Theosophical Society 회원들 주관으로 윌리엄 리 장례식장William Lee Funeral Homes에서 화장되었다. 장례예배는 고인이 잠시 활동했었던 신지학협회의 블라바츠키 지부Blavatsky branch 회원들의 주관으로 예배당에서 짧게 치러졌다.

---

12) 『미사일록』, 건양원년, 9月 11日.

13) 오영섭, 「을미사변 이전 이범진의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2005, 41~44쪽.

14) 『THE EVENING STAR』 「DIED OF CONSUMPTION」(1897. 8. 14.).

장례식은 단출했다. 협회의 회장인 조지 코핀George M. Coffin이 고인의 일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전했고, 역시 신지학협회 회원인 로버트 러치Robert Lerch가 뒤를 이어 몇 마디 더했다. 조선의 국기로 감싸인 관이 2,500도로 불타는 화장용광로 안에 넣어졌고,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화장재는 단단히 봉해진 주석상자에 담겼으며, 내일 아침 조선공사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날 행해진 장례예배에 뉴욕에 머물던 러시아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 참석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과 고종의 차남 의화군義和君, 1877~1955, 워싱턴 내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서른 명 정도의 조선 유학생들이 참석했고, 비슷한 수의 신지학협회 회원들도 참석했으나 주미공사관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15]

이범진 주미 공사가 서광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전 공사 서광범과 현 공사 이범진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의견이 주목할 만하다.

> "적어도 고인(서광범) 측에서는, 현 공사(이범진)와의 사이에서 아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건 상대방이었죠. 이범진 공사는 서광범이라는 인물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유로 그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범진) 공사의 성격엔 유별난 점이 있는데, 바로 자만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유형의 인물인데다, 제가 아는 조선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편자공(말굽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데, 몇 전에 왕비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비에게 아첨과 눈치 빠른 일처리로 환심을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왕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에겐 습관과도 같은 일이었다는군요"[16]

위와 같이 이범진 공사는 서광범에 대해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싫어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이범진은 고인에

---

15) 『THE SUN』 「POM KWANG SOH BODY CREMATED」(1897. 8. 16.).

16) 『THE EVENING STAR』 「INTENTIONAL SLIGHT」〈Opinion of an Acquaintance〉 (1897. 8. 18.).

예우를 표하지도 않았고, 고인의 관을 덮을 주미공사관에 조선 국기를 요청했을 때 이범진이 이를 거부했고 요청한 당사자인 포스터 제닝스Foster Jennings를 해고했다.[17] 이렇듯 이범진 공사가 국기로 트집을 잡은 것은, 자신이 싫어했던 서광범을 추종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질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여겼다.

서광범은 사망 당시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은 8월 17일자로 증인은 육군 장교 로얄 에머슨 위트먼Royal Emerson Whitman와, 신태무, 주미공사관의 이의담 비서관, 서병규 전 담당관 이상 네 사람이다. 네 증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고인은 13일 오전 열한 시경 사망했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 유언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청하며, 14번가 2819번지의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적 재산을 포함한 이 도시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온전히 박승봉에게 남긴다는 말을 남겼다.[18] 신청인은 고 서광범이 1892년 11월 18일자로 이곳 미합중국의 시민이 되었으며, 그의 재산은 지출부담이 적으며 1,000달러의 가치로 책정된 거주지와 500달러가량 값어치의 가재도구, 3,000달러의 미합중국 저축 채권에 더불어 릭스 은행(Riggs' Bank) 계좌에 479.62달러가 있다고 서술했다. 고인의 유족은 아내와 두 누이로 조선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시신은 유언대로 화장하고 유골은 1898년 봄 본국으로 송환되어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논현리 비정동 산31(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장 추정) 야산에 유교식으로 다시 장사지냈다. 이 장소에 강남구청이 들어서면서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98 야산에 안장되었다.

---

17) 『THE EVENING STAR』「INTENTIONAL SLIGHT」〈Other Consideration〉 (1897. 8. 18.).

18) 『THE EVENING STAR』「POM K. SOH`S LAST WISHES」(1897. 8. 20.).

徐光範 墓碣〈서광범 묘갈〉

維廣州治西彦周面碑井洞負寅四尺而封者故大韓駐美公使緯山徐公衣履之藏也嗚呼天道不可不知而惟可知者公之大節也盖公當 甲申之禍逃竄海外茹恨黜昧者凡十周歲而至甲午夏朝野稍稍有徵察公當年心事不知公者憫其跡而原其心知公者許其心而撫其跡 從玆以往百世之下又不知以公爲何如人也由此觀之仁人君子之終不可誣有如是夫公諱光範字敘九緯山其號也系出大邱高麗軍器少尹閈之後入 本朝有諱嶸號涵齋以學問有重名寔生諱淽判中樞府事 贈領議政謚忠肅號藥峯爲 穆陵名臣四傳而爲 元陵國舅達城府院君諱宗悌謚孝僖又再傳而諱信修 贈贊成無嗣取仲兄府使 贈贊成諱仁修弟二男有寧爲後禮曹判書 贈上相諱龍輔領議政謚翼獻亦無嗣取弟郡守 贈贊成應輔第三男戴淳爲後禮曹判書謚孝憲諱相翊吏曹叅判是爲公皇考妣貞夫人潘南朴氏生員齊完女也 哲宗己未十一月八日生卽西曆一千八百五十九年也公生而姿品非凡才藝夙就見者咸期以遠大長而涉獵經史且潛究各國文字嘗自以謂使我國家不能成自立基礎奠之於磐泰之安則決非皇天賦予之意也慨然憂歎之志造次靡懈嘗曰君權不得不限也民志不得不壹也官制亟宜改革使名實相孚焉學校亟宜廣設使民智開明焉工商亟宜勸奬使財源導引焉不如此富强之術將何所施焉此 皆當世時諱而公則娓娓惓惓不明不措也 皇上庚辰擢增廣文科壬午春奉 命遊覽日本八月以叅贊官再往日本癸未圈拜待教歷拜副修撰兼司書兼弼善南學教授副應教出入經幄奏對如流 上大奇之亟欲不次大用夏又以叅贊啣奉使美洲始修交隣之誼甲申夏復命六月特 除同副承旨內務叅議秋拜兵曹叅議十月當國家之變流入日本轉至合衆國時公年雖少而志節益堅不撓專力於政治之學以及格致之科而憂國愛 君之誠盖十年如一日也甲午六月强隣乘釁國有大亂 上大悔之冬特 命昭雪還國公胥 命金吾又陳疏請罪 上卽不優批仍 命入對自是禮遇隆而信任專特陞崇政階任法務大臣判義禁司事乙未夏官制改正復任法部大臣兼高等裁判 長決獄平允人咸比之以冬日可愛秋移學部大臣勑設學校培養人材冬拜特命全權公使前往美國仍 命駐箚時有

本國學生十餘人自 日本轉至者公憫其失學流離捐俸銀二千元以爲學資美人亦無不感歎至今傳爲美談丙申春拜中樞院一等議官未及復 命而卒卽光 武元年丁酉七月十七日甲辰也公臨歿以火葬遺囑大抵 聖鑑垂明公之秉心悉所炯燭而竟未能仰答 聖恩以報涓埃盖欲燒身滅跡 涘引其過而已戊戌春以身灰返國而葬配贈貞敬夫人安東金氏判書孝貞公炳地女貞靜和淑六親咸服先公二十三年卒後配貞敬夫 人密陽朴氏士人承憲女內行純備不幸十年處困備嘗艱險而持身謹飭終不失女士之範人莫不稱之取族人光鼎子載德爲後嗚呼公間 世人也世道國步誰爲扶持一治一亂相承而不已方其將亂而天必生能弭之人枒公非其人耶頎秀凝遠公之容儀也寬厚宏涘公之局量也 樞機靜毖而謀廬宥密公之才猷也至若超然物外澹然理內見人所不及見處言人所不能言者非天之生知公其孰能如此嗚呼天假之 年使公少須曳以訖其庸則其伸大義成大功庶幾於萬一上天不仁大勳未底而公則就世墓草已屢宿矣豈天之於公只擬於一亂而已耶 此奚獨公之飮恨於泉下抑亦志士英雄抆淚於千載之下也然是不可與不知者道也噫 大美國欽命駐箚大韓便宜行事大臣兼總領事安連撰 四寸弟軍部主事光軾書

大韓光武四年庚子五月 日立

〈서광범 묘갈 번역〉

광주 치소의 서쪽에 있는 언주면 비정동 북동동쪽을 4척 정도 등진 곳에 있는 봉분이 고 대한주미공사 위산 서광범의 장지이다. 아! 슬프다. 천도는 분명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인사로 오직 알 만한 것이 바로 공의 큰 절개이다.

공은 갑신의 화를 당하여 해외로 망명하였는데 어리석음을 한스럽게 여긴 것이 무릇 10년이 되었다. 갑오년(고종 31, 1894년) 여름, 조야에서 점차 공을 불러 살피니 이 해에 심사로 공을 모르는 자는 그 과거를 걱정하였으나 그러한 마음들을 용서하였다. 공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고 예전의 일들에 대해 묵인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백세지하에 이르도록 또한 공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모를 수 있겠는가. 이로써 어진 사람이나 군자의 죽음을 보게 되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울 수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음이 있는 것이다.

공의 이름은 광범이고 자는 서구이며 위산은 그의 호이다. 세계는 대구에서 나왔으니, 고려 때 군기 소윤을 지낸 한의 후예이다. 본조에 들어와서는 이름이 해이고 호가 함재인 분이 학문으로써 명망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성을 낳았다. 성은 판중추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충숙의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호는 약봉이다. 그는 선조 때의 명신으로 네 번 스승이 되었고, 영조의 국구 달성부원군 종제는 증시하여 효희공이라 하였으며 또한 두 번 스승이 되었다. 그리고 신수는 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후사가 없어 중형인 부사로 찬성에 추증된 인수의 둘째 아들인 유녕을 양자로 삼아 후사로 하였다. 그는 예조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용보는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익헌인데 또한 후사가 없어 동생인 군수 증 찬성인 응보의 3남 대순을 취하여 후사로 삼았는데 그는 예조판서를 지냈고 시호는 효헌이었다. 상익은 이조참판을 지냈는데 이분이 곧 공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는 정부인 반남 박씨로 생원 제완의 딸이다.

공은 철종 기미년(철종 10, 1859년) 11월 8일에 태어났으니 곧 서력 1859년이다. 공은 태어나면서 그 풍채와 기품이 비범하였으며 재예를 일찍 성취하였으니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원대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장성하면서는 경사를 섭렵하였으며, 또 각국의 문자를 몰래 연구하여 일찍이 스스로를 '사'라고 하였다. 우리 국가가 능히 스스로 기초를 세워 반태의 안정을 정하지 못하였은즉 황천이 우리에게 내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개연히 걱정하여 탄식하는 뜻이 있었다. 갑자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일찍이 말하길 "군주의 권력은 제한되어야만 한다. 백성의 뜻은 반드시 일치단결되어야만 한다. 관제는 빨리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는 명실상부한 것이어야 한다. 학교는 빨리 널리 세우도록 해야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개명을 알게 해야 한다. 공·상을 빨리 권장하여야만 한다. 사신들은 재원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강의 방책이 장차 어찌 시행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그 시대에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때가 이를 꺼려하였으므로 공은 곧 여러 번 되풀이하여서 간절하게 명확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황상께서 경진년(고종 17, 1880년)에 증광문과를 통해 공을 뽑았고 임오년(고종 19, 1882년) 봄에 명을 받들어 일본을 유람하였으며, 8월에 참찬관으로서 다시 일본에 갔다. 계미년(고종 20, 1883년)에는 대교에 권배되었고, 부수찬 겸 사서 겸 필선 남학 교수 부응교에 차례로 제배되었으며 경연에 출입하였는데, 주대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러웠다. 임금이 그를 뛰어나다고 여겨 순서를 밟지 않고 크게 쓰려 하였다. 여름에 또한 참찬어봉사로서 미주에 가 비로소 교린의 관계를 맺었으며, 갑신년(고종 21, 1884년) 여름에 복명하였다. 6월에 동부승지 내무참의에 특별히 제수되었고, 가을에 병조참의에 임명하였다. 10월에 국가의 변란(갑신정변)을 당하여 일본으로 유입하였다가 옮겨 합중국(미국)에 이르렀는데 이때 공의 나이는 비록 연소하였으나 지절은 더욱 굳어 흔들리지 않았다. 정치학에 힘을 쏟아 격치의 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우국 애군의 정성은 10년이 되었건만 하루와 같았다.

갑오년(고종 31, 1894년) 6월에 강린(청나라와 일본)들이 기회를 타서 나라에 큰 난이 있자 임금이 크게 뉘우치게 되었고, 겨울에 특명으로 소설하여 공을 환국시킬 것을 의금부에 명하였다. 공이 또한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곧바로 좋은 비답을 내렸고 이내 명을 내려 입대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예가 더욱 융숭하였고 신임은 한결같았다. 특별히 숭정대부에 올려 법무 대신 판의금사사에 임명하였다. 을미년(고종 32, 1895년) 여름에 관제개정이 있자 다시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장에 임명되어 옥송을 해결하는데 사람들에게 공평하면서도 만족스럽게 하니 모두 그를 따라 마치 겨울에 따뜻한 햇살과 같이 아끼었다. 가을에 옮겨 학부대신이 되어 학교를 창설하여 인재를 배양하였고, 겨울에는 특명전권공사에 제배하여 먼저 미국에 가도록 하였다가 이내 주차

를 명하였다. 이때 본국의 학생 10여 인이 일본에서부터 옮겨와 도착하였는데 공이 학업을 잃고 유리되는 것을 근심하여 봉급 2천 원을 내어 학자금으로 하도록 하자 미국인들 또한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지금까지 전하여 미담으로 삼고 있다.

병신년(건양 1, 1896년) 봄에 중추원 일등의관에 제배되었으나 미처 복명치 못하고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때가 즉 광무 원년 정유년(1897년) 7월 17일 갑진일이었다. 공은 죽음에 임하여 화장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겨 부탁하였으니 대저 성감(임금의 감식)에 공의 한결같은 마음을 드리워 밝혀 촛불의 밝히는 바를 다하고자 함이었다. 마침내 능히 성은을 우러러 답하여 연애로 보답하는 것이었다. 대개 소신하고자 한 것은 흔적을 없애고 그 과거를 흘러가도록 한 것일 따름이었다. 무술년(광무 2, 1898년) 봄에 몸이 재가 되어서 나라에 돌아오게 되니 장례를 지냈다.

부인의 정경부인에 추증된 안동김씨로 판서 효정공 병지의 딸이니 정결함과 조용함 그리고 화애로움과 정숙함이 있어 6친이 모두 따랐다. 공보다 23년 앞서 졸하였다. 후배는 정경부인 밀양 박씨로 사인 승헌의 딸이다. 내행은 정순함을 갖추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10년간 어려운 사정에 처하였다. 일찍이 어렵고 험난함을 겪었으나 몸을 지켜 삼가고 신칙하여 끝내 여사의 규범을 잃지 않았으니 사람들마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친척인 광정의 아들 재덕을 취하여 후사로 삼았다.

오호라! 공은 여러 세대를 통해 보기 드문 인물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와 국운은 누가 돕고 유지하겠는가? 일치일란이 서로 이어지지 않을 따름이다. 바야흐로 장차 난이 닥쳐오니 하늘은 반드시 뛰어난 인물을 내는 법인데 우러르건대 공이 그 사람이 아닌가 한다. 훤칠하고 빼어나며 엄정하고 천박하지 않은 것은 공의 의용이요, 너그러우면서 후하고 크면서도 깊은 것은 공의 재간과 도량이며, 천하의 큰 정치를 맡아 고요하면서도 근신하여서 지모와 사려는 넓고 조용하였으니 공의 재주와 계책이라 하겠다. 초연함에 이르러

서는 세상 물정의 바깥에 있었고, 조용함에 이르러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안에 있었다.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바였고 다른 곳에서 언급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능히 언급하지 못할 바이니 하늘이 낸 인물이 아니라면 공을 아는 것이 어찌 능히 이와 같겠는가?

오호라! 하늘이 내려준 수명은 공에게는 작았고, 모름지기 역사에서 그 쓰임을 다하게 하였다면 공은 대의를 펼쳐 큰 공을 거의 이루었을 것이다. 상천이 대훈을 사랑하지 않아 이루지 못하여 공은 곧 세상에서 묘초만을 얻었을 따름이다. 여러 날이 지났건만 어찌 하늘은 공보다 다만 일란에 의심을 둘 따름인가? 이것이 어찌 홀로 공만이 지하에서 한을 품는 것이겠는가? 우러르건대 또한 지사·영웅이 천세동안 눈물을 닦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것이니 도라 하겠다. 아아! 슬프도다.

대미국 흠명 주차 대한 편의 행사대신 겸 총영사 안연이 글을 짓고,
사촌 동생 군부 주사 광식이 글을 쓰다.

대한 광무 4년(1900년) 경자년 5월 일 세우다.



서광범 묘지 전경



서광범 묘비 앞면



서광범 묘비 뒷면



서광범 묘비 좌측면



서광범 묘비 우측면

11. 서리공사 김윤정

마지막 서리공사 김윤정金潤晶, 1869~1949의 본관은 청도淸道이다. 인천부 경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살해한 혐의로 지목된 김창수金九, 1876~1949를 심문하기도 했으며, 1904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대리공사 시기 미국 국무부에 고종의 밀서를 전달해 달라던 이승만의 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천부 경무관 재직 시절 대한제국 학부가 선발한 정부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1897년 3월부터 유학하였으며 1903년 6월 졸업 후 대한제국 공사관 고문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 찰스 니드햄Charles Needham 박사의 추천으로 주미 공사관에 서기생으로 채용되었다. 이후 주미공사관 3등 참서관, 1등 참서관, 대리공사 등을 지내며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주미공사관도 철수하게 되어 1906년 2월 귀국하여 태인군수, 1906년 인천부 부윤 겸 감리사를 역임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었다. 그 파장은 6개국에 개설·운영하고 있던 주일대한제국공사관(1887년, 이하 '개설연도'), 주미대한제국공사관(1888년), 주영대한제국공사관(1901년), 주불대한제국공사관(1901년), 주러대한제국공사관(1902년경), 주청대한제국공사관(1903년)과 영사관領事館 관원들이 주재국에서 철수를 통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을사늑약과 함께 재외공관 폐쇄 결정이 나고 주미공사관은 1906년 2월 마지막 14대 서리 공사였던 김윤정이 가족과 함께 귀국하였다. 즉 선폐쇄 조치 후 소환을 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는 셈이다. 공사관 건물은 1910년 9월 1일, 일제가 5달러에 강제 매입한 후 바로 미국인 풀턴Horace K. Fulton에게 10달러에 매각하였다.

을사늑약은 14대 서리 공사 김윤정 재임 시기에 체결되었다. 9대 주미공

사 이범진李範晉이 주러시아 공사로 전임된 후 10대 공사 이의담李宜聃, 11대 서리공사 신태무申泰茂, 재임 1900년 8월~1901년 4월, 12대 공사 조민희趙民熙, 재임 1901년 4월~1904년 1월, 13대 서리공사 신태무1904년 1월~1905년 6월, 14대 서리공사 김윤정재임 1905년 7월~9월을 마지막으로 주미공사관의 약 17년 운영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일제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보다 1년 2개월이 앞선 1904년 9월 6일부터 주미공사관을 포함한 대한제국의 재외공관 폐쇄 방침을 세우는데, 그 시기부터 비밀리에 당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재외 대한제국공관의 외교관과 그 관원들에게 사가賜暇 귀국, 즉 현지 공관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가하며 그들이 귀국한 뒤에는 재파견이나 후임 파견을 중지하는 대신에 주미공사관이 행사하고 있던 재외업무나 권리 및 이익 등은 모두 현지 일본공사관이 인수해 시행함으로써 주미공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미일본공사관 내부 모습(1893년경, 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1905년 3월에 들어서 주미공사관은 심한 재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1904년 12월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신태무 서리공사 및 관원들의 봉급 및 관리비 등 공사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송금을 끊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주미공사관 폐쇄를 위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주미공사관은 외교공관으로서의 활동과 기능은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었으며 실제 관원들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자체 비용 해결이 더 급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가 획책한 주미공사관 폐쇄는 일체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 비용의 송금 중단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신태무는 1905년 6월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귀국을 위한 여비와 6개월분의 급여 등을 받지 못하다가 1천 달러를 송금받고서야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신태무의 후임으로 서리 공사를 맡게 된 1등 참서관 김윤정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윤정 서리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미일본공사 다카하라高平小五郎에 6,050여 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1905년 11월 27일 받은 돈은 고작 2천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주미공사관의 사정은 미 국무부장관의 귀까지 들어갔다.

김윤정은 귀국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그의 부인과 세 자녀가 함께 계속 미국 체류를 희망하며 주미일본공사와 미국 국무부 장관을 찾아가 미국 거주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까지 했다고 한다. 주미일본공사 다카하라가 본국 외무성에 김윤정의 미국 체류에 대해 건의한 내용은 그의 미국에서 친일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청일전쟁 후 일본 교관에게 지도를 받은 사관생도였고, 일본 도움으로 임시서리공사에 승진한 점과 특히 김(윤정)이 일본 측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정하고 일본외상의 훈령을 한국 황제의 명령에 전혀 구애됨이 없이 시행함으로써 황제로부터 5번이나 견책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일본공사관에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워싱턴이 곤란할 경우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하와이 주재 일본 영사관 직원으로 채용하여 적절한 봉급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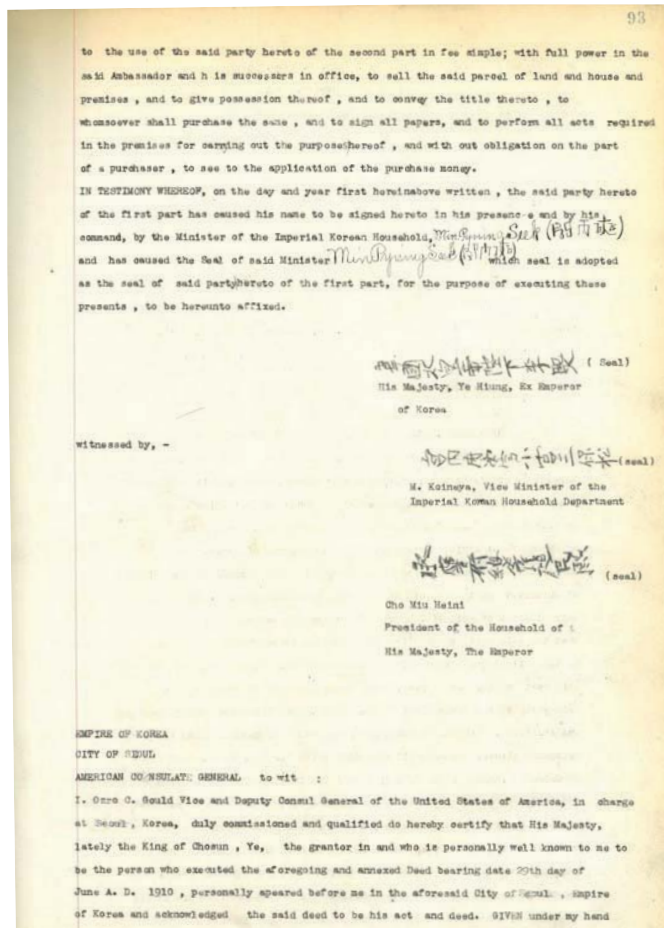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체류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1906년 1월 29일 워싱턴을 떠나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김윤정 공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인 1905년 12월 30일자로 주미공사관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 문서와 관유재산 일체를 일본공사관에 인계한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각 절차 및 금액

일본 정부는 주미일본대사 아우키 슈조青木周藏를 통해 방치되어 있던 주미공사관 매입희망자를 찾기 시작하여 테일러J. Augustus Taylor가 1만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1891년에 이 건물을 2만 5천 달러에 매입하여 5천 달러를 들여 수리까지 한 상황에서 1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일본대사는 이 건물을 매입한 지 16년이 지났고 매입 당시에는 각국 외교공관들이 위치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중하층 흑인들이 거주하는 변두리 지역으로 1만 달러는 괜찮은 가격이라하여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워싱턴특별행정구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이하 '워싱턴 D.C.'의 법규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매각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었다. 주미공사관은 1891년 당시 조선 국왕 고종의 명의로 워싱턴 D.C. 등기소에 등기된 개인재산이므로 일본대사가 이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종으로부터 주미일본대사에게 양도되어야 했다. 워싱턴 D.C. 법에 따른 양도 절차는 고종이 미국 영사領事 앞에서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이 재산(주미공사관)을 양도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양도를 승인해야 하며 이를 미국 영사가 공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이러한 워싱턴 D.C. 법규에 따라 양도증서를 만들어 1910년 7월 4일 주미일본대사 우치다 고사이內田康哉에게 보낸다. 이 증서는 1910년 6월 29일 고종이 미국 서울총영사관 부총영사 골드Ozro C. Gould 임석 아래 궁내부 차관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와 승재부총관承宰府總管 조민희 등 2명의 보증인 입회하에 작성, 서명 날인하고 보증인이 부서副署했으며 이를 골드가 확인, 서명 공증한 것이었다. 이 증서는 고종이 1891년 11월 28일 미국인 브라운Sevellon A. Brown에게서 매입한 주미공사관 건물과 토지를 주미일본대사에게 부동산과 5달러를 받고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3

to the use of the said party hereto of the second part in fee simple; with full power in the said Ambassador and h is successors in office, to sell the said parcel of land and house and premises , and to give possession thereof , and to convey the title thereto , to whomsoever shall purchase the same , and to sign all papers, and to perform all acts required in the premises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thereof , and with out obligation on the part of a purchaser , to see to the application of the purchase money.

IN TESTIMONY WHEREOF, on the day and year first hereinabove written , the said party hereto of the first part has caused his name to be signed hereto in his presence and by his command, by the Minister of the Imperial Korean Household, Min Syung Suk (閔丙奭)
and has caused the Seal of said Minister Min Syung Suk (閔丙奭) which seal is adopted as the seal of said partyhereto of the first part,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hese presents , to be hereunto affixed.

(Seal)
His Majesty, Ye Hiung, Ex Emperor
of Korea

witnessed by, -

(seal)
M. Koinaya, Vice Minister of the
Imperial Korean Household Department

(seal)
Cho Miu Heini
President of the Household of
His Majesty, The Emperor

EMPIRE OF KOREA
CITY OF SEOUL
AMERICAN CONSULATE GENERAL to wit :

I. Orre C. Gould Vice and Deputy Consul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harge at Seoul , Korea, duly commissioned and qualified do hereby certify that His Majesty, lately the King of Chosun , Ye, the grantor in and who is personally well known to me to be the person who executed the aforegoing and annexed Deed bearing date 29th day of June A. D. 1910 , personally apeared before me in the aforesaid City of Seoul , Empire of Korea and acknowledged the said deed to be his act and deed. GIVEN under m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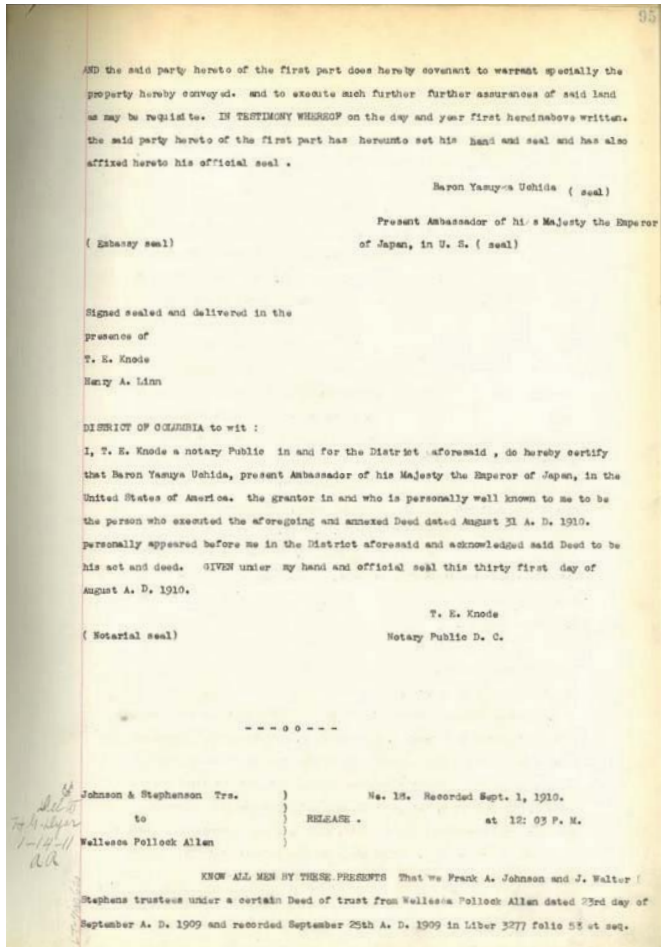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일본공사에게 양도한 문서(1910.9.1., 미국 워싱턴 D.C. 소재 등기소 소장)

주미일본공사 우치다는 이전부터 이 건물 매입을 약속했던 미국인 풀턴 Horace K. Fulton과 정식으로 매매 절차를 끝내고 매각 대금으로 1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데 이 매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의

3%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관행에 따라 3백 달러를 중개인에게 낸다. 실수령액은 9,700달러였던 것이다. 또한 공사관 건물에 있던 가재도구 등은 별도 경매를 통해 196달러 22전의 수입을 올렸고 이밖에 공사관 건물 관리비 가운데 남은 36달러를 합쳐 모두 9,932달러 22전을 원화로 바꿔 1만 9,984원 34전(당시 외환시세 100원에 49달러 70전)을 일본 외무성으로 송금하여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돈의 처리를 위해 주미일본공사 우치다에게 매도 가격이 명시된 매도증서 1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치다는 매도증서는 워싱턴 D.C.의 부동산 대장Deed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 증서에는 '가급적매도가격의 기입을 피하는' 이곳의 관례에 따라 우치다-풀턴 간의 매매 증서에도 "을(풀턴)이 갑(우치다)에게 지불한 10불의 금액과 기타 유가의 약속을 감안, 갑은 을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매각 대금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 매도증서로 매각 대금을 처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러한 회신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워싱턴 D.C.의 관례에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고종이 주미공사관 건물과 부지 등을 일본대사에게 양도한 양도증서에는 5달러에 양도한다고 적었고, 일본대사가 풀턴에게 매도한 양도증서에는 10달러를 받고 매각한 것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다. 고종이 이 건물을 매입한 증서에도 매입 가격으로 5달러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고종이 1891년 12월 1일자로 이 건물을 매입한 실제 가격은 2만 5천 달러였으며 고종이 일본대사에게 양도할 때 매각 대금으로 5달러를 기재했으나 실제 돈거래는 없었다. 일본대사 우치다가 미국인 풀턴에게 주미공사관 건물을 매각한 매매증서에는 10달러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만 달러를 받고 팔았던 것이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워싱턴 D.C. 부동산 대장에 등재된 매매증서에는 '가급적 매도 가격의 기입을 피하는' 이곳의 관례에 따라 형식적인 가격을 기입했기 때문에 실제 가격에 대해 혼란을 일으켜 왔다.

2012년 10월 18일 잃었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문화재청에서 다시 매입



95

AND the said party hereto of the first part does hereby covenant to warrant specially the property hereby conveyed. and to execute such further further assurances of said land as may be requisite. IN TESTIMONY WHEREOF on the day and year first hereinabove written. the said party hereto of the first part has hereunto set his hand and seal and has also affixed hereto his official seal .

Baron Yasuya Uchida (seal)

Present Ambassador of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in U. S. (seal)

(Embassy seal)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n the presence of
T. E. Knode
Henry A. Linn

DISTRICT OF COLUMBIA to wit :

I, T. E. Knode a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District aforesaid , do hereby certify that Baron Yasuya Uchida, present Ambassador of his Majesty the Emperor of Japa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grantor in and who is personally well known to me to be the person who executed the aforegoing and annexed Deed dated August 31 A. D. 1910.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in the District aforesaid and acknowledged said Deed to be his act and deed. GIVEN under my hand and official seal this thirty first day of August A. D. 1910.

T. E. Knode
Notary Public D. C.

(Notarial seal)

- - - o - - -

Johnson & Stephenson Trs. } No. 18. Recorded Sept. 1, 1910.
to } RELEASE . at 12: 03 P. M.
Wellesea Pollock Allen }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we Frank A. Johnson and J. Walter Stephens trustees under a certain Deed of trust from Wellesea Pollock Allen dated 23rd day of September A. D. 1909 and recorded September 28th A. D. 1909 in Liber 3277 folio 55 et seq.

일본이 미국인 풀턴에게 매도한 문서(1910.9.1.)

했다. 그러나 주미공사관 관련 모든 연구자료 및 언론 기사 등에 일본에 의해 5달러에 강탈당하고, 이어 미국인 풀턴에게 10달러를 주고 팔았다는 등기부상의 기록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면의 워싱턴 D.C. 관례에 따랐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의 주미공사관 폐쇄와 공관원 철수, 강제 매각 등과는 다른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910년 8월 한일강제병합 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그해 11월 조선총독부의 특채로 등용되어 전라남도 참여관과 경기도 참여관을 거쳐 충청북도지사로 고속 승진한 후 1926년 중추원 참의가 되었다가 1945년 중추원 고문직에 올랐다. 그의 딸 윤고려는 개화파 정치인 윤치오尹致昊의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윤씨로 성을 바꾸었다.

그는 서광범, 이범진, 서재필, 이승만, 김규식, 하란사 등과 함께 초기 조선인 미국 유학생의 한 사람이었다. 실업계에서도 활동하여 조선상사주식회사의 사장으로 활동했다. 딸 윤고려尹高麗, 1891~1913는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초기의 교육자이기도 했다.



現代的模範女史

▲녀자샤회의모범윤고라▼

▲문명과공익에열심부인▼

김윤정의 딸 윤고려 관련 기사〈매일신보〉(1913.4.16.)

그의 아들 프랭크 김은 1906년 김윤정의 귀국에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소재하고 있는 노스필드 마운트 허만 학교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에 남아 유학하였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여 백

p.251-252

V. 결론

Ⅴ. 결론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이로 인해 미국 워싱턴 D.C.에 개설돼 있던 주미조선(대한제국)공사관이 폐쇄되고 외교관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882년 5월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필자는 1883년 민영익閔泳翊 등 보빙사報聘使의 파견 목적과 현지 활동, 의미 등을 인물을 중심으로 추적하였다. 파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 외교관들이 미국 아서Chester A. Arthur 대통령을 예방하여 고종의 국서를 봉정하고, 미국 주요 지역 사찰을 통해 청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주독립국'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둘째, 미국의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고문관, 군사교관 및 교사 등을 초빙해 정치·군사·교육 등의 분야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차관을 도입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주미조선공사관의 개설 배경 및 의의, 주미공사를 중심으로 자주외교와 근대화를 위한 활동,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한 주미공사관 폐쇄 등의 약 17년 동안의 주미조선(대한제국)공사관 활동을 미국 현지 공문서 및 신문 등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朴定陽 일행은 청국의 '영약삼단另約三端' 준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1888년 부임을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외교관들은 영약삼단 즉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청국 공사와 함께 미국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조건을 파기한 채 미국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을 만나 국서를 봉정한 후 미국 워싱턴 D.C.에 상주공사관을 개설한 '자주외교'의 노력들. 미국 건국의 아버

지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생가 및 워싱턴 기념비 등을 방문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조지 워싱턴의 '독립 의지'를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생각했다.

미국 워싱턴 D.C. 외교가에 등장한 참찬관 이완용李完用, 서기관 이채연李采淵 부인들의 활발한 활동, 특히 이채연 공사 부인인 성주 배씨는 미국에서 '조선의 첫 외교관 자녀'를 출산하였고,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리공사 이채연은 '은자隱者의 나라' 조선이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출품 준비를 현지에서 진두지휘하며 세계 무대에 조선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미외교의 거점으로서 '주미조선(대한제국)공사관의 운명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 정지되어 공사관이 폐쇄되는 시기 즉, 14대 서리공사 김윤정金潤晶 재임 시기에 일제에 의해 주미공사관 폐쇄를 위한 '압박'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 참고문헌 |

공보실, 『월남 이상재 선생 약전』, 공보실, 1956.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요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2019.
김원모, 『한미 외교관계 100년사』, 철학과현실사, 2002.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김원모, 『상투쟁이 견미사절 한글국서 제정』 上·下, 단국대학교출판부, 2019.
김유동, 『월남 이상재 실기』, 월남이선생실기출판소, 1927.
김을한, 『월남 이상재 일대기』, 정음사, 1976.
문화재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보고서』, 2019.
박정양 지음 · 한철호 옮김, 『미행일기』, 푸른역사, 2014.
박정양 지음 · 한철호 옮김, 『미속습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알렌 지음 · 김원모 번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출판부, 1991.
외솔회, 『나라사랑』 9(월남 이상재 특집호), 외솔회, 1972.
이구열, 『우리 근대미술 뒷이야기 한국 근대미술사학의 개척자 이구열의 화단비화』, 돌베개, 2005.
이민식, 『근대사의 한 장면 콜럼비아 세계박람회와 한국』, 백산자료원, 2006.
이범진 지음·김철웅 옮김, 『미사일록』, 푸른역사, 2020.
이상재 지음·한철호 옮김, 『美國公私往復隨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전택부, 『월남 이상재』, 한국신학연구소, 197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한철호, 『미국공사왕복수록』,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홍인근, 『대한제국의 해외공관-일본외무성 기록-』, 나남, 2012.

김영욱, 「菁雲 姜璶熙(1851~1919)의 생애와 서화 연구」, 『미술사연구』 33, 미술사연구회, 2017.
김원모, <자료> 「遣美使節 洪英植復命問答記」, 『사학지』 15, 1981.
김원모, 「서광범 연구」, 『동양학』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85.
문일평, 「대미관계오십년사」, 『호암문일평전집』 제1권,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손정숙, 「한국근대주한민국공사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유영익, 「갑오경장 이전의 유길준」, 『한림대학논문집』 4, 한림대학교, 1986.
유영익, 「군국기무처 의안의 분석」,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1985.
이덕주, 「'근대화의 요람' 정동이야기(1)」, 『기독교사상』 458, 40-2, 대한기독교서회, 1997.
이동국, 「조선의 구미전권공사 파견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1887~1890)」, 『學林』 47, 2021.
이민식, 「석거 이채연(1861~1900)」, 『근대한미관계사』, 2017.
이상재, 「상투에 갓 쓰고 미국(米國)에 공사(公使)갓든 이약이, 벙어리 외교(外交), 그레도 평판(評判)은 조왓다」, 『별건곤』 창간호, 1926.
정경민, 「조선의 초대 주미조선공사 파견과 친청노선 강화」, 『역사와현실』 96, 2015.
차문섭, 「서광범」, 『한국근대인물백인선』, 1979.
최지혜, 「한국 근대전환기 실내공간과 서양 가구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한겨레21, 「전우용의 서울탐史 945호 정동 하비브하우스가 한옥으로 남은 이유」 (2020.5.)
한종수, 「주미공사 이범진의 활동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2022.
한종수, 「駐美 朝鮮公使館 개설과 '자주외교' 상징물 연구 - 공문서 및 사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 『역사민속학』 44, 역사민속학회, 2014.

한철호,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미국관〉, 《한국사보》 66, 1992.
한철호, 「초대 주미전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77, 2019.
홍인근, 「일본의 대한제국외교공관 폐쇄」,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9, 경인문화사, 2007.

레디앙(http://www.redian.org/archive/125457)(2018)
한국역사연구회(http://www.koreanhistory.org/7302)(2019)

경기그레이트북스 47

개항기 미국 파견 '외교관'의 활동 -경기도 관련인물을 중심으로

발행 2024년 10월 1일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기 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집 필 한종수

편 집 경인엠앤비

ISBN 978-89-999-0483-7
ISBN 978-89-999-0109-6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짐은 경이 원래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일처리가 치밀하여 정성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도에 주차(駐箚)하는 전권대신으로 특파하는 바이다. 경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와 친목과 화호를 도모하는 데 힘쓸 것이며, 일을 논의할 때 모가 나지 않도록 하여 타협을 이룩토록 하고, 반드시 견문을 넓히되 우리나라 사정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라. 아울러 우리나라 상민(商民) 가운데 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자를 보호해 주며, 특별히 통상을 일으키는 방도도 강구토록 하여라. 그 나라 정부와 인민의 정형(情形)도 수시로 설법(說法), 채방(採訪)하며 그 나라에 주차하고 있는 중국 및 각국 공사·영사들과도 친밀히 교제하고, 또 각국의 사정을 자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라. 이것이 짐이 바라는 바이다."

-고종이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에게 훈유(訓諭)한 내용-

값 15000 원
ISBN 978-89-999-0483-7
ISBN 978-89-999-0109-6 (세트)